『'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

진정성 있는 교육과 관광

書院

2021. 11. 5. 금

호텔 인터불고 대구

주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주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서원학회
후원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달성군, 논산시, 정읍시, 장성군,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함양군

학술대회 일정

사회자 : **이병훈** 영남대학교 연구교수

시간	소요시간 (분)	세부내용
09:30~10:00	30	**등록** : 등록
10:00~10:20	20	**개회식** ■환영사_ 이수환 영남대학교 교수, 한국서원학회 회장 ■축　사_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축　사_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10:20~10:50	30	**기조 강연** **발표주제 :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10:50~11:40	50	**주제 1 '한국 서원'의 가치(보존과 활용)** **발표주제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토론 :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발표주제 :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 ■엄원식 문경시청 과장　□토론 : 김제근 달성군청 학예사
11:40~12:50	70	중식
13:00~13:50	50	**주제 2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표주제 :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정수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발표주제 : 『국내 세계유산 관광체험』** ■방미영 서경대학교 교수　□토론 : 이건웅 콘텐츠문화학회 회장
13:50~14:00	10	휴식
14:00~14:50	50	**주제 3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교육** **발표주제 : 『서원의 교육환경』** ■김자운 공주대학교 교수　□토론 : 김순한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발표주제 : 『서원의 인성교육』** ■한재훈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토론 : 김영나 경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14:50~15:00	10	휴식
15:00~15:50	50	**종합토론** ■좌장 : 우인수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자 전원 및 참석자
15:50~16:00	10	폐회식

Contents_목차

기조강연 | 발표주제 |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 13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주제 1 '한국 서원'의 가치(보존과 활용)

| 발표주제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27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토 론 문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토론문 ····· 37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주제 |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 ····· 41
엄원식 문경시청 과장

| 토 론 문 |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에 대한 토론문 ····· 89
김제근 달성군청 학예사

주제 2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관광

| 발표주제 |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 ····· 97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문 |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에 대한 토론문 ····· 113
정수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발표주제 | 국내 세계유산 관광체험 ····· 117
방미영 서경대학교 교수

| 토 론 문 | 『국내 세계유산 관광체험』에 대한 토론문 ····· 133
이건웅 콘텐츠문화학회 회장

주제 3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교육

| 발표주제 | 서원의 교육환경 ····· 139
김자운 공주대학교 교수

| 토 론 문 | 『서원의 교육환경』에 대한 토론문 ····· 179
김순한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발표주제 | 서원의 인성교육 ····· 181
한재훈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 토 론 문 | 『서원의 인성교육』에 대한 토론문 ····· 201
김영나 경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년의 결실을 맺는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우리 국민들은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일상생활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의 활동이 제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금일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보존통합관리단에서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및 한국서원학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 역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자리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정성 있는 교육과 관광'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이배용 한국의 서원 보존통합관리단 이사장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여섯 분의 석학께서 주제 발표를 할 것이며, 심도 있는 토론도 함께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이라는 기능과 유기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원 본연의 가치는 강학, 즉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그 시대에 가치에 맞는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원이 위치한 곳의 자연 경관도 고려하였으며, 건축물은 그 경관에 녹아들게 건립하였습니다. 이를 전승 받은 현재의 우리는 서원의 교육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활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아울러 서원 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민

관학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배용 한국의 서원 보존통합관리단 이사장님 이하 단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술대회 개최를 후원해 주신 관계 기관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19를 이겨낼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 오늘 함께 고민했던 주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이 수 환

축사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막바지에 이른 11월 첫 주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국내학술포럼을 열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국내학술포럼은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14개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서원학회의 도움을 받아 열리게 되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님,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 이수환 서원학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자체 여러분과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단은 각 지자체, 문화재청의 도움으로 전문가들과 9개 서원협의회가 참여하는 워크숍과 해외 유산답사, 학술회의 등으로 핵심역량을 키우면서 드디어 2019년'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에는 등재 1주년 기념'세계유산축전'의 일환으로 옥산서원에서 '한중학술대회'와 서울에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주최로'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전통이 살아있고 미래지향적인 대구광역시에서 국내학술포럼이 개최되기에 앞으로의 발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내학술포럼의 주제는 '한국의 서원, 지속가능한 활용'입니다. 지속가능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세대로의 계승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세대 간의 괴리와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물질만능주의와 성과중심의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자연과 사람 간의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해소는 바로 참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교육의 시작은 역사공부입니다. '역사는 현재이고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듯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미래 세대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서원'이 간직한 교육의 기능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단지 과거의 박제된 역사유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정신문화의 본산이고 인성교육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2년 전 ‘세계유산 등재의 현장’에서 ‘한국의 서원’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등재발표 직후 유림들이 공수하고 감사의 의례로 올린 ‘읍례’에 세계인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유림들의 복장과 예절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지는 서원의 춘추향사, 삭망례와 같은 의례와 유림 상호 간 교류와 정신교육 등을 ‘한국의 서원’을 통해 체득한 것입니다.

선현들의 어록에‘교학상장(敎學相長) 즉 가르침과 배움으로 서로를 성장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26살 차이가 난 퇴계 선생과 고봉 후학 간의 사단칠정논변에서 진정한 교학상장의 예를 봅니다. 나이와 학문이 높다고 후학을 무시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서원’이 간직한 선비정신과 선현들의 강학정신이 깃든 서원의 교육기능을 되살려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3개 주제인 서원의 가치, 지속가능한 관광과 교육에 대한 발표에서 미래를 향한 많은 지혜와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 장소에서 국제학술포럼이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격려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학술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5.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전 이화여대 총장
이 배 용

기조강연

한국 서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배 용
(전 이화여대 총장,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1.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치

지금 되돌아보면 지난 9년은 오로지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켜야 한다는 열망으로 지내온 것 같다. 시작하고 총괄하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과 부담감이 막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다행히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 43회 총회에서 등재한다는 방망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온갖 시름과 긴장이 녹아내리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은 저뿐 아니라 늘 함께 애써주고 정성을 모아준 서원관리단 직원들, 각 서원의 유림 어른들, 전문학자, 지자체, 문화재청의 모든 구성원들의 한 마음 된 감격이 있었다.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등재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서원의 가치를 세계가 알아준 만큼 박제된 과거유산이 아니라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 정신적 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그동안 서원이 잘 보존되고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데는 오늘날까지 서원의 제향기능이 온갖 정성을 다해 큰 몫을 하였다.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선현에 대한 존숭과 감사로 초하루와 보름의 삭망례, 춘추계 향사, 강습례 등을 한결같이 끊임없이 이어왔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한다.

유형유산이라면 우선 건축물의 보존이 중심이 되는데 건축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보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모아지는

가, 바로 서원에서 진정으로 우러러 받드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서원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지켜질 수가 없다. 아울러 그 지역의 신뢰가 없어도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신, 자연을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대원군 때 철폐되었어도 또 살아난 서원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현재 서양교육에 밀려 쇠퇴된 교육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과거의 유물로만 보존이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단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시대도 급격하게 변했으니 원형은 유지하면서 내용은 현대시대에 맞게 어느 정도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사당에 여성 출입이 금지되었던 규제를 풀고 여성 초헌관을 추대하여 상생의 시대를 연 도산서원의 정신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한 선비상도 남성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주시에서 선정한 여성의 선비대상도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룬 원동력에는 교육의 열정이 있다. 특히 전통교육에는 지식의 차원뿐 아니라 심성을 끊임없이 바로잡는 인성교육이 중심에 있었다. 조선시대 사립학교의 효시인 서원 교육에는 인류의 미래지향적 가치인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자연, 평화를 추구하는 융합적인 조화의 기능이 있다. 서원에 들어서면 수려한 자연경관이 눈에 들어온다. 수백 년을 역사의 증인으로 지켜온 나무들이 울창하고 맑은 계곡이 흐르고 주변 산세와 어울리는 목조 건축의 아름다운 조화는 백 마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움과 깨달음의 시작이다.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 즉 자연과 인간의 이치의 결합은 스스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자연을 통해 배우는 언어이다. 즉,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는 오행(五行)의 목(木), 금(金), 화(火), 수(水), 토(土)의 원리에서 인간 심성의 기본인 오성(五性)의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이 상호 합일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다. 즉, 나무(木)를 통해서 사람은 인(仁)을 배우고, 쇠(金)를 통해서 의로움(義)과 정의 그리고 의리를 배우고, 불(火)을 통해서 예(禮)의 질서를 배운다. 물(水)을 통해서는 배움, 즉 깨달음(智)을 알게 되는데 물

이 낮은 곳으로, 또 넓은 곳으로 바다를 향해 부단히 흐르듯이 겸손과 포용의 자세를 배우게 되고, 흙(土)은 만물이 딛고 생성하는 토양이 되듯이 인간관계에서 기본은 무엇보다도 믿음(信)이라는 데서 참다운 인성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서원에서 선비들이 닮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었고 또한 존경하는 선현이었다. 조선의 선비는 스승의 가르침과 서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스스로 사색하면서 상생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늘 푸른 소나무를 통해서는 변치 않는 한결같은 의리 정신을, 대나무를 통해서는 굽히지 않는 절개를, 할아버지 대(代)에 심으면 손자 대에 가서야 열매가 열린다는 은행나무를 통해서는 인내와 끈기의 향학열을, 연꽃을 통해서는 진흙탕에서도 때 묻지 않고 세속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맑고 고고함을 터득했다.

또한 서원마다 공부할 때, 현판 하나하나에 새겨진 문구가 예사롭지 않다. 문을 드나들 때나 누정에서나 강학당·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사당에서 제례할 때마다 유교가 주는 인간이 깨우쳐야 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각 지역의 서원끼리도 끊임없이 소통하였다. 서원을 찾은 손님의 명단인 심원록(尋院錄)을 보면 유명 유학자들의 이름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기숙 생활을 하면서 상부상조하는 협력 체제를 갖추게 하고 바로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지혜는 오늘날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류가 공유해야 할 세계유형유산으로 큰 가치가 있다.

2.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원과 인문정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왔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인사 잘하고 예절 바른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도덕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받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도덕과 정신은 땅에 떨어지고 막말하고 무질서하고 서로를 헐뜯는 품

격 잃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참다운 인재를 키워야 함을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여겨야 하는 학교에서부터 폭력이 난무하고 잔학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폭넓은 반성과 도덕재무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다시금 철저히 자기반성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직과 신뢰, 책임과 성실, 존중과 배려, 공동체적 질서와 화목, 품격과 예절은 예나 지금이나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인문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이자고 있다. 대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룩해 온 물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혼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 생태적 문제 등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행복한 삶 지수' 등에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행복이 빵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정신적인 부분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대외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요구와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가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범국가가 되어야 하는 새로운 사명도 부여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품격 있는 선진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인문 정신적 문화와 가치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한때 물질적으로 크게 번영을 누린 민족이라도 인문정신 문화의 뿌리가 없는 민족은 결국 쇠잔과 명망의 길을 재촉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물질만능 풍조와 기계문명에만 젖어 있어 유형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 가치를 놓치는 바람에 공존과 타협의 지혜가 저평가되고, 비생산적인 가치관의 충돌과 소모적인 대립, 갈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달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함께 창출해 나갈 기회도 놓치고 있다.

지금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제약을 받아 축소되고 침체되었다. 무엇보다도 인간성의 회복이 우선이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전통사상과 고전을 통해 참된 지혜와 마음가짐을 찾을 수 있다. AI도 대신할 수 없는 마음, 영혼, 정신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세계사를 통해 보면, 인문 정신은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서양의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의 인문 정신을 부활시켜 근대로 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었다. 가장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IT기술문화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을 강조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외에도 인문 정신은 위기의 시기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도 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을 휩쓸고 초토화시키며, 독일 국민을 극한에 내몰며 절망하게 했을 때, 독일 국민을 일으켜 세운 것은 철학자 피히테가 1807년에 행한 유명한 연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었다. 피히테는 이 연설을 통해 독일 국민의 정신과 혼을 일깨워, 독일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문정신은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인문정신을 멀리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우리 역사 속에서 찾는 지혜와 태도가 필요하다. 인문정신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정신이 조선시대 선비정신이고 그 본산이 서원인 것이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한국 서원이 지켜야 할 약속

2019년 7월 6일 현지시간 3시 20분 세계유산총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심사 받을 때 이코모스가 제시한 등재 결정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것은 새로운 신청서입니다. 이전의 신청서는 2015년 제출됐으나 세계유산위원회의 검토에 앞서 철회되었습니다.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이코모스 자문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코모스 자문보고서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당사국은 개정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연속유산은 15~19세기 조선왕조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한국의 중부와 남부에 걸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감상과, 몸과 마음의 수양의 일환으로 산과 물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강학, 제향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일반적인 건축 양식에 바탕을 두는 한편, 이 요소들은 성리학 이상의 이해와 주변 환경과의 연결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각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교육 기관인 해당 신청유산은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제향, 강학, 교류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학적 구조의 표준화를 통한 첫 번째 서원의 탄생과 건축학적 배치, 기술의 실험과 함께한 그들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속유산은 서원의 시작과 발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코모스는 당사국이 추가로 제출한 신청유산의 비교 분석이 해당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고려를 정당화한다고 봅니다.

해당유산은 문화유산 등재기준(iii)과 (iv)에 근거하여 당사국에 의해 신청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코모스는 신청유산이 기준(iii)은 충족하지만 기준(iv)은 충족하지 않으며, 완전성과 진정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등재기준 (iii)과 관련하여, 신청유산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우수한 증거라고 생각되며, 그 중 많은 부분이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성리학 개념이 지역화에 대한 뛰어난 증거를 보여줍니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환경에 맞추어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변화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인 서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위치, 지형, 축조된 요소들은 크게 신청유산의 전체 구성을 정의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서원을 위한 경사진 장소를 포함합니다. 건물의 치밀한 배치, 형태, 세부사항은 모두 중요한 속성이며 다른 건축요소로는 담장, 대문, 길, 계단, 기념비가 있습니다. 서원은 주변경관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누각에서 바라본 경관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나무와 다른 식물들이 있는 풍경 또한 하나의 속성입니다.

무형요소에는 강학, 제향, 교류 및 여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성리학적 가치는 여전히 강학과 제향의식을 통해 전파됩니다.

제안된 유산경계와 완충지대가 적절하며, 완충지대를 넘어 서원과 원거리 조경 요소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계들의 보호 또한 적절합니다.

이코모스는 보호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산에 대해 중요한 관리 문서를 작성하여 구성요소 수준에서 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단일 유산으로서의 9개 요소를 통한 소개가 더 잘 개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체유산에 대한 소개는 개별 요소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유산은 좋은 보존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니터링 접근도 만족스럽습니다. 신청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 개발 압력이나 곤충 피해 등의 주요 요인들은 잘 이해되고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국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쿠웨이트는 한국의 서원은 한반도 전역에 퍼진 학문적 그리고 과학적 문화의 원천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지지 의견을 피력했고, 튀니지는 신념과 과학이 연결된 과정의 역사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유산이며 단순히 문화적 관점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이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논지로 지지를 선언하였다.

원래 서원이 시작된 중국 대표는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17세기 사이에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보급과 현지화에 기여, 자연환경과 잘 보존되어 독자적인 건축설계를 발

전, 한국에서 성리학적 이상이 꽃피도록 도왔다는 점과 앞으로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더 많은 문화교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세계유산 목록상의 성리학 유산이 잘 대표되기를 기원한다는 요지로 명확하게 지지발언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교육적,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지지와 더불어 특히 보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스페인은 완벽한 수준의 보존 상태,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무형적 측면, 관료들의 훈련보다 지식보호 목적이었음에 주목하며 지지발언을 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훌륭한 증거이며 건축학적 원형과 유지에 강조점을 두고 지지하였다.

이러한 지지발언이 연이은 속에서 마침내 의장이 한국의 9개 서원의 등재를 선포하자 숨죽이고 기다리던 서원의 유림, 관계기관, 전문가, 관리단은 모두 함께 환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4개의 세계 유형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등재 방망이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9개 서원 대표 18명의 유림들이 갓 쓰고 도포 입은 자세로 공수, 읍례, 평신의 순서로 감사의 의례로 허리를 굽히니 장내는 떠나갈 듯한 축하의 박수 소리와 함성이 울렸다. 바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을 실감하였고 감사의 응답과 공감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느낀 감동의 시간이었다.

이어서 이코모스의 추가적인 권고사항으로서

1) 서원 관리를 위한 주요 문서 작성을 완료할 것.
2) 연속유산으로서 9개 서원에 대한 추가적인 통합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이 제시되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이 제시되었고 지금 현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이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행하고 있다.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추후 세계유산을 유네스코 본부에 보고할 때 순조롭게 인

정을 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원의 등재 이후의 과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이제 한국의 서원은 우선 교육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원래 서원은 사립 명문 고등교육 기관이다. 요즈음 인격과 도덕이 메말라가는 시대 상황에서 서원은 인성을 함양한 전인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서원에서 발간하고 공부했던 서책에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 지도자의 덕목 등 많은 영감을 주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다.

위학지서(僞學之序)의 "많은 것을 널리 배우고(博學之), 의심이 일어나면 꼭 묻고(審問之), 깊이깊이 생각해보고(愼思之),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해서(明辨之), 독실하게 실천한다(篤行之)로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며, 수신지요(修身之要)의 말은 진실되고 믿음 있게(言忠信), 행실은 독실하게 공경하고(行篤敬), 성냄을 절제하고 욕심을 막으며(懲忿窒慾), 선한 쪽으로 나아가고 과실이 있으면 고친다(遷善改過)로서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오늘날에 더욱 절실히 다가옴은 무슨 이유일까. 물질 만능, 출세 위주, 개인의 영달에 치중한 나머지 인간의 참된 자세를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현상이 오늘날의 크나큰 병폐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첫째, 서원을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오늘날 트랜드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자의 필수 코스로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대학원 대학의 설치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교육과정을 구상해보면

1) 고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과정 : 지도자층들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교육
2) 현대 변화하는 과학과 전통교육이 함께하는 융합과정
3) 세계화시대에 동양고전을 서양학문과 접맥시키고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글로벌 교육과정

– 방법 : 공동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을 3개 권역[소수·도산·병산서원], [옥산·도동·남계서원], [필암·무성·돈암서원]으로 만들어 연계할 수 있다.

둘째, 국가적 지원을 받아 서원마다 역사관, 교육관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단편적인 해설서나 안내판을 설치했으나 서원이 걸어온 길, 서원의 인적 구성, 특히 서원의 제향인물의 사상사적 집중 탐구가 필요하다. 소수서원의 안향, 도산서원의 퇴계 이황, 병산서원의 류성룡, 옥산서원의 이언적, 도동서원의 김굉필, 남계서원의 정여창, 필암서원의 김인후, 무성서원의 최치원, 돈암서원의 김장생, 이분들은 그 시대를 온전하게 가꾸고 사회정의를 위해 직언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던 사표이자 참스승이요, 대학자였다. 제향인물의 이념과 실천의 자세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

이분들의 시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은 바로 살아있는 서원의 역사를 미래로 견인하는 것이다.

셋째, 서원에 비치되어 있는 서책, 현판 등 번역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한문에 능숙치 않다. 서원에 건물마다 걸려있는 현판들은 전시품이 아니다. 그 속에서 서원을 드나들던 선현들의 학문과 시대의 참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목판을 모두 집대성하여 2015년 「유교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다른 지역도 확대하여 「유교책판」을 보강하고 아울러 한글로 번역되어 설명책자를 발간하면 훨씬 차세대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원에서 오랜 세월 진행되어 왔던 제향의례를 종합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서원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온 측면도 있다. 서원에서 진행되어 오는 제향의 의미와 절차 등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전통적 의례, 관습이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원이 제향기능을 몇 백 년을 유지하면서 잘 보존되어 건물이 온전히 남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원의 유지와 보존에 가장 핵심적으로 기여해 왔던 그 지역의 선현, 스승에 대한 공경심과 학문의 계승과 발전, 공동체 의식 등은 형식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유대가 더욱 진정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이라 생각하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향의례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보존, 전승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원에서 배우는 자연의 언어이다. 중국과 달리 한국의 서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산과 강 그리고 나무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백 마디 말이 필요 없이 마음이 정화되고 그 속에서 학문의 진실성이 체감되는 것이다. 소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잣나무, 매화, 모란, 연꽃, 국화 등 그 수백 년 동안 자라고 있는 지킴이로서 나무의 의미,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피고 지는 꽃들의 의미가 바로 선비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앞으로 점차 관광객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서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큐레이터, 관리요원, 해설사 등 상주인원이 필요하다. 서원은 공공교육기관이어서 특히 교육기능이 활성화, 유지되지 못한 오늘날에는 사찰처럼 상주인원이 거의 없다. 국가가 박물관에 큐레이터를 배치하듯이 각 서원마다 상주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서원이 바람직한 관광자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농업 생산경제에서 도시산업 경제로의 전환, 핵가족과 주거문화의 변경, 사회경제변화 등 서원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느 한 서원이 인력 확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일곱째,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찍이 선비정신의 덕목을 체득시켜야 한다. 서원과 인근의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선비정신 교육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인격 성장과 사회성을 키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서원 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여덟째, 국회에서 발의된 서원 진흥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가적 지원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고 보존도 철저히 하고 활용도 지혜롭게 하면서

찾아가는 세계적 유산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유림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는 서원 운영의 실질인 지원은 개개의 서원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미래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것이고, 전 국민의 인격적 함양과 문화적 품격을 올려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서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사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전통에 미래가 있다고 하였다.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전통과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서원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제 1

‘한국 서원’의 가치(보존과 활용)

세계유산 등재기준으로 본 한국의 서원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OUV’의 의미 되새기기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한국의 문화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이다. 한국의 서원은 이제 세계로부터 한국 전통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 주는 탁월한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서원이 구시대적 유물, 당쟁의 구심처로 평가절하 되던 앞선 시기와 비교할 때 실로 놀라운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는 아직도 완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서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냉랭한 시선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에 대한 의미 있는 재해석 작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원을 현대문명에 접목할 수 있는 생생한 재해석 작업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비로소 적절한 보존과 활용대책이 성립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럼 우리는 서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어떤 잣대에 의해 그 논의를 수렴하고 통합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라는 대원칙은 서원의 변화를 인도하는 등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미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서원은 세계문화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등재기준 ii), iii), iv), vi)의 항목들을 충족하여 등재되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서원상도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의 대원칙을 존중하면서 시대에 맞게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서원의 ‘OUV’는 한국이 세계인들과 약속한 변화의 대원칙이자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중심으로 서원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서원의 OUV를 충실히 존중하는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만약 전국의 여러 서원이 각자의 개별성과 독자성이라는 울타리에 매몰되어 혹여 '서원답지 않는 서원'상을 노정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만약 서원이 道館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질하거나, 禪房과 방불한 형식을 취한다면 이것은 서원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본고에서는 서원문화에 관한 전문연구자들이 2015년 작성한 서원의 보존대책과 활용대책에 관한 논문집(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편)을 참고로 하여 각 서원에서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OUV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개 세계유산 서원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몸짓을 하고 있음은 크게 다행스럽게 판단된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들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떠오른다.

등재기준 ii)가 던지는 메시지는?

구글을 통해 검색해 보면 UNESCO-ICOMOS가 함께 작성한 세계유산에 관한 OUV는 그 의미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 추상적인 의미를 명료화하려는 노력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의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76년에 있었던 UNESCO의 전문가 미팅에서부터 OUV에 관한 2005년의 Kazan Meeting에 이르기까지 그 용어의 개념사에 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UNESCO와 ICOMOS가 추천하는 'What is OUV'(Berlin,2008)라는 책자를 간행하여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비교의 틀을 제시해주고 있어 서원연구자들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원이 등재기준에서 벗어난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만족할만한 문화적 요

소는 서원에서 발견할 수 없는가 등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등재기준 ii)를 일별해 보도록 하자. 등재기준 ii)는 인류의 중요한 가치가 교류된 것을 보여 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여기에서 방점은 문화 '교류(interchange of human values)'에 있다. 이에 한국측의 답변에서는 "한국의 서원은 중세 동아시아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한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 보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등재기준 ii)를 둘러싼 양측의 문답은 서원이 새로운 문화수용의 첨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 서원이 성리학의 수용, 확산, 조선 성리학의 심화라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서원은 문화의 발신처가 아니라 조락한 소비처로 기능하고 있음을 연구자들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서원은 "고리타분", "제사 지내는 곳", "한자 공부하는 곳", "비슷한 건물 배치"등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서원 활용에 있어서의 최대 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오히려 장점으로, "지성사의 거점으로서 고품격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공간(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몇몇의 사람들이 한적하게 서원 문화를 느낌)", "서원의 보편성과 특수성(인물/제향 등)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등의 가치를 보다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흥미도"에 대한 부분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흥미와 가치 전달을 적절하게 배분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도산서원 활용계획 중)

그런데 등재기준 ii)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연구기능을 강력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존대책과 활용대책이 제향과 강학이라는 양대 도식 속에 가두어져 있고, 전통시대의 강학은 사실상 왕성한 연구기능과 통합되

1) <The Criteria for Selection> "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어 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강학을 '학습(schooling)'이라는 좁은 영역 속에 가두어 두고 있다. 한국의 서원이 그 지성사적 역할을 왕성하게 했던 시기는 중국의 성리학을 수용하여 조선사회에 토착화시킨 16세기로서, 서원의 연구역량이 극대화된 시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서원은 사실상 동아시아 유학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정도의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대안은 도산서원과 국학진흥원 관계처럼 상호 상보적인 '연구 클러스트'를 조직하여 서원이 연구 집단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야 비로소 서원이 새로운 문화 모형의 거소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등재기준 iii)과 iv)의 유형자산 보존대책은 ?

등재기준 iii)은 사실상 9개 서원 모두가 충족하고 있는 항목이다. 등재기준 iii)은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니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최소한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 여기에서 강조점은 물론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라는 점에 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건축형식과 공간의 증거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서원과 주변 경관과의 특출한 관계를 보여 준다."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여 지나, 비전문가의 소견으로서는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a unique or exceptional testimony)'라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할 수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보존과 활용대책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부지불식간에 관여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로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서원관련 각종 형태의 고문서, 목판, 그리고 구비 전승 설화들 등도 매우 독특한 서원의 역사를 보여 줄 수 있는 증표들이다. 각 서원의 활용대책을 건의한 전문연구자들도 이 '유니크한 증표'에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고, 간혹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는 보고서도 있다. 한

2) <The Criteria for Selection>, "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예를 보자.

병산서원의 외삼문인 복례문과 누각인 만대루 사이에는 광영지(光影池)라는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광영지는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섬을 둔, 전형적인 '천원지방(天圓地方)'을 표현해 놓았다. 강학에 열중하던 병산서원 유생들은 광영지 앞에서 지친 머리를 가다듬었을 것이다. 병산서원 밖에는 '달팽이 뒷간'이라 불리는 특이한 모양의 옛 화장실이 있다. 이 화장실은 출입문이 없는 대신, 진흙 돌담의 시작 부분이 끝 부분에 가리도록, 달팽이처럼 감겨져 있는 형태로 안에서 근심 풀고 있는 사람을 배려해 놓았다. '달팽이 뒷간'은 서원에서 궂은일을 하던 일꾼들이 사용하였다. 힘든 일에 지친 일꾼들의 노고를 잠시나마 풀어주는 해학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 기사는 병산서원에 대한 소묘, 혹은 스토리 텔링의 한 꼭지로 이 '달팽이 뒷간'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결코 병산서원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로 제시되지는 않으리라 본다. 여하튼 각 서원은 그들 서원만이 지니고 있는 개별성과 차별성을 뚜렷하게 각인하는 작업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호를 통해 서원건축의 의미를 확인하는 병산서원의 해석이나, 서원에 깃든 한말 의병활동의 관련자료를 재조망하면서 서원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확대한 무성서원 등은 확실한 지기 정체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한편 등재기준 ⅳ)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을 보여 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이어야 한다."[3] 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응답은 "한국의 서원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하는 특유한 건물배치와 건물유형을 창출하여 성리학이 추구하는 천일합일 사상이 반영한 유교건축 미학의 전형을 보여 준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원건축을 '천일합일'의 이념과 연결하는 노력은 매우 깊은 통찰을 보여줌은 명백하나, 모든 서원을 설명하는 중심적인 키워드로서 과연 적당한지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예로 옥산서원과 병산서원 만대루에 대한 설명문을 참조해 보자.

3) <The Criteria for Selection>,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가. 천인합일의 조화! 서원 건축 : 옥산서원은 서쪽 자옥산을 바라보며 서향을 하고 있다. 북쪽 화개산을 주산으로 해서 앞으로 흐르는 자계천과 주변의 울창한 수목이 빼어난 경관을 이룬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서원은 자계천 둔덕의 너럭바위인 세심대를 마주 보는 곳에 있다. 예전에는 지금의 진입로가 아닌 서쪽 자옥산 자락의 하마비를 지나, 자계를 가로지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가야했다. 세심대 너럭바위에서 그 뒤로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을 배설하여 서원의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 하나의 축선상에 앉히도록 했다. 서원출입문–루–강학공간 마당–강당–사당출입문–사당으로 이어지며 설정된 중심축에 건물들이 배치되었고, 기타 건물들은 중심축 좌우측으로 병렬하여 배치되었다. 건물들은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하고 있다.

나. 누각인 만대루(晩對樓)는 유식 공간을 대표한다. 만대루에서 바라보는 병산과 낙동강은 절경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유생들은 유식도 하고 시회(詩會)를 가졌던 것이다. 병산서원의 이러한 공간 구성과 건물 배치는 제향·강학·유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화로운 건축 구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등재기준 vi)이 제시하는 신앙, 예술, 문학과의 연계성 여부는?

등재기준 vi)은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 문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과의 연결 속에서 그 의미를 지닐 것임을 첨언하고 있다.[4] 이 기준에 대해 한국 측은 "한국의 서원은 서원 요건의 중요한 요건인 제향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서원은 지방문화와 교화의 중심지로서 도서관과 출판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많은 문집, 문헌, 목판 등을 남겼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서원이 고유의 제향기능과 출판, 장서 기능을 잘 대변한 것으로

4) <The Criteria for Selection>, "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보인다.

특히 제향의례는 유교문화의 속성이 지금도 촌락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경이로운 현장이다. 소수서원이 도동곡과 연계한 제향의례문화 체험을 추진한다든지, 기호예학의 중심지인 돈암서원이 제향의례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은 서원의 존재의미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는 이 제향의식을 조선의 도통론, 생사관, 삶의 양식등과 관련한 좀 더 확대된 차원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등재기준 vi)에서 주목되는 점은 서원과 관련된 예술, 신앙, 문학작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점이다. 이미 옛 선비문화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 잔존된 자료들을 발굴 보존한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업이다. 필암서원에서 인종이 그린 묵죽도(墨竹圖)로 한편의 서사를 구성한다든지, 김인후의 문학 활동을 조명하는 일 등은 서원문화의 다양성을 알려 주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각종 문집에 산재해 있는 서원문화에 관한 다양한 사료들을 집대성하고 그것을 쉬운 언어로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동서원과 옥산서원의 문루에 게시된 뜻 모르는 현판, 계단과 담장, 사우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상징물과 도형 등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낯설기는 하나, 해독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추기는 문화유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The Criteria for Selection

Selection criteria

(i)

to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ii)

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iii)

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iv)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v)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vi)

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vii)

to contain superlative natural phenomena or areas of exceptional natural beauty and aesthetic importance;

(viii)

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major stages of earth's history, including the record of life, significant on-going geological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landforms, or significant geomorphic or physiographic features;

(ix)

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significant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i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errestrial, fresh wate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nd communities of plants and animals;

(x)

to contain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natural habitats for in-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those containing threatened spec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Operational Guidelines

(year)

2002 Cultural criteria (i) (ii) (iii) (iv) (v) (vi) /Natural criteria (i) (ii) (iii) (iv)
2005 Cultural criteria (i) (ii) (iii) (iv) (v) (vi)/Natural criteria (viii) (ix) (vii) (x)

The protection, management,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properties are also important considerations. Since 1992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peopl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have been recognized as cultural landscapes.

“세계유산 등재기준으로 본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토론문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본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중에서 “진정성 있는 관광과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정순우 교수님이 발표한 “세계유산 등재기준으로 본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명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서 본 학술대회 주제를 논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정교수님이 제기한 문제점 중에서 두 가지 에 집약하여 좀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교수님은 서원이 자체 개별성이나 독자성에 매몰되어 ‘서원답지 않은 서원’ 모습을 보여 서원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수용, 확산되면서, “조선 성리학의 심화라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새로운 문화수용의 첨병”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문화의 ‘소비처’가 아니라 ‘발신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서원이 “제사 지내는 곳”, “한자 공부하는 곳” 등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성사의 거점”이자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충족하기 위해 “서원의 연구기능을 강력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교수님도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모든 서원은 사실상 동아시아 유학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정도의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 . 가능한 대안은 도산서원과 국학진흥원 관계처럼 상호 상보적인 ‘연구 클러스트’를 조직하여 서원이 연구 집단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작업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산서원과 같은 사례 이외의 방안도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교수님은 "지금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존대책과 활용대책이 제향과 강학이라는 양대 도식 속에 가두어져 있고, 전통시대의 강학은 사실상 왕성한 연구기능과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강학을 '학습(schooling)'이라는 좁은 영역 속에 가두어 두고 있다. 한국의 서원이 그 지성사적 역할을 왕성하게 했던 시기는 중국의 성리학을 수용하여 조선사회에 토착화시킨 16세기로서, 서원의 연구역량이 극대화된 시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조선시대와 다른 시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공감하고, 현재 존속하고 있는 서원의 역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점은 정교수님이 언급하였듯이 "보존과 활용대책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부지불식간에 관여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정교수님이 발표문에서 강조하였듯이 "서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 "서원을 현대문명에 접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재해석 작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원에 대한 재해석 작업을 구축하는 일은 '한국의 서원'의 "진정성 있는 관광과 교육"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서원'에 적용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과 관련하여 부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는 이코모스로부터 두 차례 심사받았습니다. 두 차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의 서원'에 적용한 등재기준은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해 바뀌었습니다. 2015년 1월 제출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에 우리나라가 제시한 등재기준은 (ii), (iii), (iv), (vi) 이었습니다. 이 등재기준에 근거하여 이코모스가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에 대해 '반려'로 심사 의견을 제시하자 문화재청은 등재신청서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1월 우리나라가 다시 제출한 등재신청서에 제시된 등재기준은 (iii), (iv)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이 등재기준 (iii)을 충족하는 문화유산으로 평가하고 2019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서원’은 등재기준 (iii)을 충족하는 문화유산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래문화자산!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
-문경 근암서원을 중심으로-

엄 원 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

목 차

1. 머리말
2. 근암서원 복설과정
3. 근암서원 배향인물
4. 근암서원의 운영과 활용프로그램
5. 진정성 있는 서원의 활용은 무엇인가?
6. 맺음말
※ 참고자료

1. 머리말

국내에 남아 있는 서원의 대부분은 제향 공간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강학 공간은 문을 닫은지 이미 오래이다. 서원 훼철 후 서당운영과 가학으로 교육의 명맥이 이루어졌으나 일제 강점기 근대식 소학교가 생기면서 점점 전통적인 공간에서의 강학 기능은 쇠퇴 일로를 걸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훼철된 이후 꾸준히 복설이 이루어져 숫자면에서는 현재 조선후기 수준[1]으로 회복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힘

1) 전국 지역별 서원 분포 현황(2021년 10월 현재)

이다. 교육공간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음에도 이렇게 복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교 정신의 계승으로 밖에 이해 할 수가 없다. 어쩌면 이런 점이 서원의 세계유산등재를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

문경 근암서원은 17세기에 건립되었던 수많은 서원 중 하나이다. 특별한 이슈라고 여겨질 만한 역사적인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당 창건부터 치자면 약 500년의 시간 동안 이곳에서 배출된 인물조차도 명확한 자료가 없어 잘 알기가 어렵다. 새삼 기록의 중요성과 보존의 절실함을 느껴본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근암서원에 마지막으로 배향되었던 인물인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1679~1759)선생의 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청대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서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서원의 일반적인 기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청대 선생은 조선 후기 숙종 · 영조 연간에 활동한 영남 퇴계학파의 대표적인 문신이자 학자이다. 선생은 20세가 되던 1698년부터 81세로 눈을 감기 열흘 전까지인 1759년 7월까지 거의 매일 일기를 썼다. 약 30여 권에 이르는 분량이다. 62년 동안의 기록은 후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어 현재는 43년간의 일기가 15책 분량으로 남아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1702년~1704년 ②1706년~1713년 ③1719년~1725년 ④1727년 ⑤1731년~1734년 ⑥1736년~1739년 ⑦1745년~1759년 사이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들 일기를 통해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권상일의 삶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지역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기	대구	강원	울산	광주	대전	서울	부산	제주	인천	**총계**
현존 서원	213	144	103	68	36	32	27	23	9	9	6	2	1	1	1	0	**675**
미복원 서원	100	46	37	19	21	25	15	6	11	3	0	2	3	0	0	1	289
계	313	190	140	87	57	57	42	29	20	12	6	4	4	1	1	1	**964**

대원군 시기 서원철폐령으로 남은 47개 서원 가운데 서원으로 남한에 존속되었던 숫자가 22개소였음에도 현재 675개소로 다시 복원 혹은 신설되거나 명칭을 변경 하는 등을 통해 증대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울 뿐이다. 당시 훼철된 서원 가운데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미복설된 서원이 271개소로 조사 되있다. <박성진, 「서원관리 운영의 현황과 과제」, 2013.>

이 중 일기에 나타난 근암서원의 기록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 살펴보면 22세때인 1702년에 서원에 목재 홍여하와 사담 김홍민의 배향일 논의를 시작으로 죽기 2달 전 까지인 1759년 5월까지 근암서원 관련되는 일들을 일기에 기록[2)]하였다. 모두 64건이지만 결본과 검색시 누락된 부분까지 합하면 백 여 번 이상에 걸쳐 서원을 찾고 서원에 대한 일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서원들도 이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청대일기에서처럼 평생을 두고 서원과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근암서원을 중심으로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서원의 복설과정과 배향인물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 근암서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운영 및 활용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국내 천 여 곳에 가까운 향교와 서원은 제향공간으로서의 활용은 거의 100%라고 봐야한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서원의 경우에는 훼철 후 100여년 동안 꾸준히 다시 복설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서원 공간의 80%를 차지하는 강당과 동재, 서재, 관리사 및 고직사 등은 일 년에 단 한 번도 문이 열리지 않는 곳이 상당수에 달한다. 제향의 기능만 필요하다면 사우만 복원했었어야 했는데, 오늘날 이런 사안을 두고 고민하는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2. 근암서원 복설과정

근암서원은 1870년 훼철 후 백 여년을 넘긴 1975년과 1979년에 각각 강당과 사당을 중건하였다. 이후 고직사 등 부속사를 건립하였다.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복설과정과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순 없지만 전국적으로 서원이 복설될 때 이곳도 마찬가지로 유행처럼 번진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문경지역은 석탄 산업이 활발해 가행 광산만 하더라도 40여개소가 넘을 시기였다. 석탄생산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2) 본문 참고자료에서 참고

활성화되었을지는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비성장기이면서 동시에 유림들의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원이 복설되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만하다. 복설 후 20여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역 내의 유림들 간에, 타지역간에 교류도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즈음 문경시의 유림단체인 향교, 성균관유도회, 성균관청년유도회, 박약회, 담수회 등의 대표로 구성된 '문경유림단체협의회'가 2005년 7월 창립을 했다.

이 단체에서 가장 먼저 문경시에 건의한 사업이 지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원인 근암서원의 제대로 된 복원이었다. 문경시 모든 유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 담당자를 맡고 있던 터라 서원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길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난다.

서원의 역사가 짧은 것도, 서원에 배향된 인물이 다른 서원의 배향인물에 비해 저평가 되는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문화유산이 별로 없었고, 서원을 운영하는 관리운영회도 형편이 넉넉하질 못했다.

지정된 문화재가 없으니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 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질 않았고, 서원 복설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질 않았다. 다행히 3년여의 노력 끝에 경북 도청의 도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금으로 국비 15억을 비롯하여 지방비를 포함해 3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지역의 유림 뿐 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기뻐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복설 작업에 착수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서원이 차지하고 있었던 부지는 훼철 이전에 서원이 차지하고 있던 부지의 1/3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서원 부지로 추정되는 곳은 이미 민가가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 부지는 농토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가와 농토를 매입해야 하는 1차 과제가 생긴 것이다. 사실 다들 잘 아는 얘기겠지만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토지와 건물 매입이다. 더구나 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무조건 식의 막무가내가 될 때가 많다. 다행히 배향인물들의 후손들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도움으로 서원 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부지 확보 후 선행한 사업이 복원정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사업이었다. 기본계획이 잘 세워지고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시작할 수가 있고 복원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도 실시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시굴작업을 통해 과거 서원에 사용되었던 석물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고 석물들을 통해 서원의 건축 규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초석은 기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서원 강당의 크기를 알 수 있으며 강당의 규모를 알면 사당과 동서재의 크기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원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먼저 문경지역의 인문적, 자연적 환경을 분석하고 서원건축의 구성체계를 확인했다. 일반적인 서원의 발생과 기능에서 서원건축의 구성체계와 배치유형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문헌과 고지도를 토대로 근암서원의 역사적 위상을 살피고 이를 종합하여 복원 기본구상과 원칙을 세웠다.

보통 조선시대에 건립된 건물들은 토지문제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토지와 건물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주도 불부합 되고 지목에서도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근암서원도 마찬가지로 건립당시의 모습은 서원 훼철과 함께 서원 부지는 개인소유로 상당수 넘어간 상태였으며 서원의 과거 위격에 맞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근암서원 복설의 경우 건축 비용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토지문제 만큼은 근암서원 문중에서 해결을 해야 사업이 가능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수많은 서원의 복설이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잘 해결이 된 모양이다. 최근에 복설된 안동의 호계서원과 영양군의 영산서원, 영주의 이산서원은 각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 형태로 건립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운영도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 하지만 관리비와 운영비 부분까지 지원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충북 진천군에서도 백원서원 복설을 준비 중이며 강원도 원주시에도 칠봉서원을 옛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훼철 후 서원 복설시 문중과 유림의 힘으로 복원이 되었다면 2000년 이후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곧 지자체에서 서원을 운

영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 현재 근암서원이 문경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했었다.

처음 근암서원을 복설하자고 했을 때 유림 대부분의 의견은 제향공간에만 관심이 있었다. 강학공간과 동서재에 대한 활용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없었다. 오랜 기간 설득을 통해 강당은 현대식 교육시설을 완비했고, 동재와 서재는 각각 온돌구조에서 전기 판넬 구조로 설계를 변경했으며 샤워실과 화장실을 건물 안으로 배치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과감하게 현대적인 시설로 설계했으면 어떠했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근암서원의 배치는 우리나라 서원의 보편적 배치형태인 전학후묘를 따랐으며 배치 축성은 사당에서 사당 삼문, 강당, 루문을 정확히 일직선축의 중심에 배열시키고 강당 앞에 동재와 서재를 대칭 배열 시켰다. 경북지역 서원 중 배치구성이 전학후묘, 전재후당 배치의 예는 구미 금오서원, 달성 도동서원, 경주 옥산서원과 서악서원, 안동 병산서원과 임천서원, 역동서원, 도산서원, 봉화의 삼계서원, 상주 도남서원 등 도내 전역에 분포한다. 한편 전학후묘, 전당후재 배치는 문경의 소양서원, 상주 흥암서원, 청도 자계서원, 영천 창대서원 등 그 예가 많지 않다. 특히 상주와 문경 소재 향교는 모두 전당후재형이란 점에 주목이 된다. 훼철 이전의 배치 구성을 갖춘 서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존하는 상주, 문경 지역에 현존하는 서원, 향교 배치구성이 전학후묘, 전당후재의 배치구성 비율이 많다는 점은 사실이다.

여기에 건립시기는 16~17세기에 집중되었고 지형적인 차이에 의해 강학구역이 전재후당 또는 전당후재 배치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처음에는 근암서원의 지형이 서북향이 낮고 남동향은 높은 경사지에 입지해 있어서 입구부분에 홍살문을 세워 서원 영역임을 표시하려 했지만 예산부족과 부지협소의 문제로 세우지는 못했다. 건물의 구성은 사당 1동, 전사청 1동, 삼문 1동, 강당 1동, 동재 1동, 서재 1동, 내곽 화장실 1동, 루문 1동, 관리사 1동, 외곽 화장실 1동 등 모두 10동의 건물을 복원했다.

3. 근암서원 배향인물

근암서원에는 모두 일곱 분을 배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 분 또는 두 세분을 배향하는데 비해 조금 많이 배향하고 있긴 하다. 1665년(현종 6)에 우암 홍언충 선생을 모시는 서원으로 창건된 뒤 뒤이어 1669년에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을, 1693년에는 사담(沙潭) 김홍민(金弘敏,1540~1593)과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 1620~1674)를, 1876년(정조 10)에는 활재(活齋) 이구(李榘, 1613~1654)와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1664~1733),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0~11750)선생이 배향되어 있다. 이 중 청대 선생은 배향된 일곱 분 중 유일하게 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산북면 서중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1) 우암 홍언충

홍언충(洪彦忠, 1473 ~ 1508)은 자가 직경(直卿)이고 호는 우암(寓庵)이며 본관은 부림(부계, 지금의 군위 부계)이다. 아버지는 허백정(虛白亭) 홍귀달(洪貴達) 선생으로서 공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등을 지냈고 사후에 문광이라는 시호가 주어졌다. 우암은 허백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4세 때 봉화 청량산 안중사에서 이우, 황맹현과 함께 독서 하였고 허암 정희량, 용재 이행, 읍취헌 박은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많은 시문을 나누었다.

23세때인 1495년(연산 1)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에 제수된 이후, 다음해에는 정희량, 박은 등 13인가 사가독서를 하였고 26세 때에는 홍문관 저작과 박사 등을 역임하고 가을에 질정관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이후에 홍문관 부수찬이 되고 이조 좌랑에 전보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1503년에 수찬에 올랐으며 그해 정조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글을 올려 임금에게 직간하다 노여움을 사서 진안에 유배되었다. 부친 홍귀달이 경원으로 유배될 때 다시 거제도로 이배 되었다. 거제도로 이배되던 중 조령에 이르러 1506년 중종반정(34세)이 일어나 풀려났다. 그뒤 중종이 성균관 직강에 제수하였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않고 술과 시로 여생을 보냈다. 1508년 3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부인은 무반(武班) 남손(南蓀)의 따님이며 슬하에 삼남 삼녀[3]를 두었으나 후사가 없어 근래에 이르기까지 외손들이 봉사하고 있다. 그의 문집 『우암고』에는 시가 총 245제 41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회를 형상화한 술회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벗과의 주고받은 차운시와 죽음을 애도한 만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갑자년(1504)에 진안현에 귀양살이를 할 때 앞으로의 일을 장차 예측 할 수 없이 돌아가므로 스스로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자신의 만사를 지어 비명을 짓고 아들에게 훈계하였다 한다. 우암선생의 자만시는 현재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

大明天下 日先照國	대명 천하에 해 먼저 비추는 나라
男子姓洪 名忠字直	남자의 성은 홍이요 이름은 충, 자는 직이라
半生迂卒 文字之攻	반생토록 오활하여 문자에만 골몰하다가
在世州有 二年而終	세상에 난 지 서른하고 두해만에 생을 마쳤네
命何云短 意何其長	명은 어찌 그리 짧으며 뜻은 어찌 그리도 긴가
卜于古縣 茂林之鄉	옛 고을에 무덤 정하니 고향은 무림이라
雲山在上 灣碕在下	위에는 구름 산이요 아래는 물굽이라
千秋萬歲 誰過斯野	천추만세 뒤에 누가 이 들을 지나갈꼬
指點徘徊 其必有悵然者矣	손으로 가리키며 배회하면서 반드시 슬퍼할 이 있으리라.[4]

36년의 길지 않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우암 홍언충에 대해 창설재 권두경(창설재 권두경, 1654~1725)은 『우암집』 서문에서 청명한 삶의 자세와 문장에 뛰어난 '시가사걸'로 칭송된 그의 면모를 특기 하였고, 활재 이구는 건원시통본주문에

3) (1자)홍망지(洪望之) (2자)홍연지(洪憐之) (3자)홍민지(洪憫之) (1녀)정영(鄭英)의 처 (2녀)최언준(崔彦浚)의 처 (3녀)홍윤최(洪胤崔)의 처

4) 홍언충, 『寓庵稿』, 券二, 「自挽」. 이 시 역시 『속 동문선』, 제18권, 「잡서(雜書)」 부분에 실려 있다.

서 홍언충의 문장과 직도가 뛰어남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직절명신으로 평가하였다.

1665년(현종 7)년 그의 사후 157년이 지나 문경의 근암서원에 배향이 되었고 1786년(정조 10) 몰후 278년이 지나 양산서원에 경재 홍노와 부친 허백정 홍귀달과 함께 모셔져 있다.[5)]

2) 한음 이덕형

한음 이덕형(1561~1613)은 임진왜란과 여진족의 성장, 명의 쇠퇴 등으로 요약되는 16세기 말~17세기 초 대내외적 격변의 시대를 살다간 인물이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쌍송(雙松)·포옹산인(抱雍散人)이다. 조부는 증 좌찬성 이진경(李振慶),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이민성(李民聖)이며, 어머니는 현령(縣令) 유예선(柳禮善)의 딸이다. 영의정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의 사위이다.

1580년(선조 13) 약관의 나이에 별시 문과에 수석으로 급제하면서 승문원(承文院)의 관원이 되었으며, 재주 있는 신하로 선발되어 선조로부터 서적을 받았다. 조선 역사상 최연소인 31세의 나이에 대제학에 추천되었으며, 영의정을 세 차례나 역임하였고,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였다. 무엇보다 임진왜란에서 국가를 위해 명나라, 일본과 외교를 통해 국가를 구하는데 공을 쌓은 인물이다.

그렇다면 한음은 어떻게 근암서원에 배향이 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그의 가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조부 이진경은 벼슬은 지내지 못했지만 혼인을 통해 영남과 연고를 가지게 된다. 그는 상주 일대에 강력한 재지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상주김씨 김윤종의 딸과 혼인하였다. 부인 상주김씨의 묘소가 상주 내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진경은 상주에 주거 기반을 두고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과정에서 그는 처가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것을 짐작된다.

후일 한음이 조모 산소의 관리와 성묘에 정성을 다하고, 상주를 고향으로 인식한

5) 권진호, 『우암 홍천충과 목재 홍여하의 생애와 사상』, 「우암 홍언충의 삶과 시세계」,2016. 12. pp26~37.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연고는 한음이 김홍민, 김홍미 형제, 정경세, 이준 등 상주 출신의 명사들과 긴밀하게 교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634년 당시 상주목사였던 큰아들 이여규가 임소에서 『한음집(漢陰集)』을 간행한 것도 근암서원에 배향된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17세기 중반 근암서원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비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서원은 단순히 강학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림들이 독서하면서 자신을 계발하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게다가 서원은 사림들이 친목을 위해 결성한 수계(修禊)의 장소로도 적극 활용되었다. 당시는 문경이 아니라 상주 관할이다 보니 상주목사로 부임한 지방관들이 자주 내방하는 곳이었고, 인근 사림들은 산양의 근암서원에서 친목 모임을 갖기도 하고, 시회를 열기도 했다. 한음 사후 근암서원에 한음을 배향하자는 의론은 당시 이지역 사림들의 이런 사림들의 분위기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활재 이구(1613~1654)와 목재 홍여하(1620~1674)이다. 두 사람은 각각 영순면과 산양면 출신으로서 17세기 상주지역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근암서원의 향현사를 건립하여 우암 홍언충을 배향한 지 5년 후 1669년에 다시 향현사에 한음의 봉안을 추진하는 발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봉한음선생통본주문 奉漢陰先生通本州文>이 작성되어 사림에 가부를 묻는 첫 번째 통유(通諭)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도내통문>에서는 사당을 건립하여 제사를 드릴 일자 선정을 도내에 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목재 홍여하의 역할이 주목된다.

목재가 한음을 근암서원에 배향하는 일은 허목(허목, 1595~1682)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 전말을 유추할 수 있다.

> 상주 산양현 근암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 그곳에 영천 신응거가 상주목자로 재임할 때 서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당을 건축하여 우암 홍선생을 향사했으며, 근래에 근암서원이라 불렸습니다. 우암은 바로 저의 고숙조입니다. 이에 상주의 유사들이 '한음 이선생 또한 우리 고향 사람이다. 고을의 제로들과 이 선생의 동방들은 모두 제사를 모시는 곳이 있지만, 유독 이선생만 없다. 이는 유림들의 유감스러운 일이니, 우암과 근암서원에 나란히 향사함이 마땅하다.'라 하면서 의

론이 합치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상순 정사에 향사례를 거행하고, 의식에 필요한 글을 집사에게 부탁하여 짓게 한 뒤에야 여러 선비들의 마음에 흡족하였기 때문에 저는 감히 재배하고 청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집사께서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좋은 문장을 지어 사문의 성대한 거동을 빛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정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용문을 통해, 첫째 근암서당이 사당을 건립한 뒤에 1660년경에 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둘째 사당에 우암 홍언충이 먼저 배향되었으며 한음을 같이 배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홍언충은 이 지역 출신이자 홍귀달의 넷째 아들로서 갑자사화에 같이 변을 당한 인물이다. 당시 명망을 보았을 때 근암서원에 배향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이한 것은 당시 유림들이 한음을 '우리 고향 사람' 으로 인식 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게다가 당시 상주 지역에 한음을 향사하는 사당이 없어 근암서원에 같이 배향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음이 상주 지역 유림들에게 차지하는 위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암서원에 한음이 배향된 가장 큰 이유는 남인들 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세력을 더욱 공고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근암서원에 배향된 홍언충은 선초 인물이므로 당파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한음 이후에 배향된 홍여하, 이구 등은 모두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다. 게다가 홍여하는 송시열 일파와의 알력으로 벼슬에서 쫓겨났으며, 이구는 율곡의 성리설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상주의 유림들이 한음을 배향하려고 한 데에는 이덕형–홍여하–이구–김홍민 등 지역 출신 선배들을 봉향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와 세력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므로 한음의 근암서원 배향은 당시 상주 출신 유림들에게 한음이 지니는 정신적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6)]

3) 사담 김홍민

김홍민(金弘敏, 1540~1594))의 본관은 상산이며 자는 중원(重遠)인데 후일 임보(任

6) 오용원, 『한음 이덕형과 사담 김홍민의 생애와 사상』, 「한음 이덕형에 대한 후인의 기억과 기록」,2017.12. pp102~103.

甫)로 고쳤다. 호는 사담(沙潭)이다. 모친 창녕 조씨는 계공랑 조한신의 따님이시다.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부친인 후계 김범은 사담이 기운이 약하고 나이가 어리다며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사담은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하고, 지니고 있던 물건을 주고 동년배 중의 선학자에게 구걸하여 배우기까지 하였다. 결국 부친인 후계 선생으로부터 시와 예를 배워 가학을 계승하였다.

1566년 부친이 사망한 후 삼년상을 마친 사담은 1569년 과거의 초시에 응시하여 1등한후 이듬해 회시에도 일등한 후 전시에서 병과 3등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1570년 성균관 학유를 시작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어 성주 교수, 예문관 검열, 예조좌랑, 홍문관 수찬, 병조좌랑, 1583년에는 병조좌랑, 1588년인 49세에는 사간원 사간과 홍문관 응교를 제수 받았다. 50세가 되던 1589년에는 청주목사 겸 춘추관 편수관을 맡았다.

1579년 40세때 예조좌랑을 역임하고 그해 여름에 제천 현감에 나간 적이 있었다. 사담은 제천 현감으로 재직시 지역의 대표적인 사족인 진주 강씨 출신의 강천민(姜天民, 1560~1640)과 협력하여 선조 13년인 1580년에 퇴계 이황을 주향으로 모신 남당서원을 세워 지역에서 문풍을 일으켰다. 남당이라는 명칭은 남당(南塘)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의 가르침에서 따온 것인데, 생도들에게 이것으로 가르침을 삼고자 한 것이다. 공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자 고을 사람들이 선정비를 세워 칭송하였다 한다.

1592년 봄 병으로 체직(遞職)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임진왜란을 만났다. 임진왜란 때에는 상주의 서북 지대와 속리산에 근거를 둔 충보군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였다. 1593년 5월 모친상을 당하여 의병대장으로서의 직임은 내려놓고 보은에 영전을 마련하여 봉헌하다가 이듬해인 1594년 6월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후일 근암서원에 봉안하면서 집안에서는 효를 다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업적을 상징하는 말로 효충을 내걸고 있으며 그 업적으로 서원에 배향이 되었다.

가휴 조익은 사담이 의병대장이 되었을 때 간단하게 인물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미칠바가 아니라고 했다.

내가 일찍부터 아는 분으로 평소에 기개와 절의가 있었다. 말이 강개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뜻이 있었다. 반드시 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어 보통 사람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7]

사담이 돌아가자 사람들은 선인이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창의군의 군량유사를 지낸 곽수지는 사담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누가 어진 사람은 장수를 누린다고 했던가"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동생인 성극당 김홍미[8]가 쓴 행장에도 공에 대해 선인이라고 한다면 공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평하였다.

같이 교유한 이들은 모두 일세의 명류였는데 그 사람됨을 애모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공이 사망한 후에 공에 대해 말할 때마다 안타까워마지 않았다. 비록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공에 대해서는 감히 흉보지 않았으며, 모두가 '아무개 같은 이가 바로 선인善人이다'고 말하였다. 아! 이에서 더욱 공이 지켜온 바를 알 수 있다.[9]

4) 활재 이구

이구(李榘, 1613~1654)는 자가 대방(大方)이고 호는 활재(活齋), 산양처사(山陽處士)이다. 17세기 전반기에 평생을 순수 처사로 살았던 인물이다. 본관은 전주이며 종실인 효령대군의 8세손이다.

이구는 공조정랑을 지낸 아버지 이광흡(李光洽, 1583~1652)과 어머니 장수황씨 사이에서 1613년(광해군 5) 2월 11일 충청북도 괴산의 중원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7) 『가휴집』, 「진사일기」, 1592. 8. 16.

8) 김홍미(金弘微, 1557년 ~ 1605년)는 조선 중기의 문신, 관료, 성리학자이다. 자(字)는 창원(昌遠)으로, 호는 성극당(省克堂), 성극(省克)이고, 본관은 상주(尙州)이다. 향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나 바로 대과를 보지 않고,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했으며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이후 홍문관과 예문관에서 근무하였으며 형제가 옥당에 근무하여 사대부들의 부러움을 샀다. 정여립의 난 관련자로 누명을 쓰고 기축옥사 때 불이익을 받았다. 당색으로는 동인이었다가, 뒤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질 때 남인이 되었다. 남명 조식(曺植), 서애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이며, 류성룡의 조카사위이고 류운룡의 사위이다. 역사와 제자백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경연에서 반드시 옛 사례를 인용하여 당시의 일을 정정함으로써 왕의 찬탄을 받았다. 선박 제조 기술이 있어서 선조는 그에게 판옥선 설계 제조와 거북선 설계 제조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9) 『검간선생문집』, 「임난일기」, 1592.5. 17

때는 외가인 산북 대도촌에 살았다가 또다시 서울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이미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단정한 면모를 보였다. 성장하면서 설선[10](薛瑄, 1389~1464)의 글을 읽다가 '유자가 도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문장은 단지 지푸라기와 같을 뿐이다.'라는 대목에서 깨우치는 바가 있어 주자서와 퇴계집을 가지고 단서를 구하고 힘쓰는 바탕으로 삼았다.

병자호란(1636년) 이후 가족들을 이끌고 외가인 상주 산양으로 이주하여 세상의 명리를 버리고 성리학에 전심하였다. 그는 항상 "이기(理氣)라는 것은 성정의 큰 본원이요, 학문의 큰 두뇌이다. 만일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폐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역상(易象)·예가(禮家)·천문(天文)·주수(籌數)·율력(律曆)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매우 박학다식 하였다.

청주 경씨 선공감역 유후의 딸과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으나 먼저 사망하여 임천 조씨 병절교위 인보의 딸과 다시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젊은 나이에 산양에 옮겨 오면서 세상의 영리에는 힘쓰지 않고 주자의 가르침에 따라 천덕과 왕도의 실현을 위한 방책을 자세히 살피는데 힘썼다. 이 시기에 활재 이구의 주요저술이 마련되었다.

채헌징[11]은 활재집 발문에서 그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공이 일찍이 이르기를 "도술(道術)의 없어지고 찢어짐

10) 명나라의 철학자. 자는 덕온(德溫), 호는 경헌(敬軒). 산서 지방의 하진(河津) 출생. 정주학(程朱學)을 바탕으로 하여, 복성(復性)으로써 으뜸을 삼았음. 하동학파(河東學派)의 창시자로 일찍이 주희의 백록동서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여 설부자(薛夫子)라고 불렀다. 그는 이(理)는 마음속에 구비되어 있고, 성(性)은 곧 이(理)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진사 출신으로 일찍이 대리시정경(大理寺正卿), 예부시랑(禮部侍郎),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등을 지냈다. 시호는 문청(文淸). 저서 ≪독서록(讀書錄)≫, ≪설문청집(薛文淸集)≫ 등(等)이 있음.

11) 채헌징(蔡獻徵, 1648(인조 26)~1726(영조 2)).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문수(文叟). 호는 우헌(愚軒)·여물헌(與物軒). 용궁(龍宮) 출생. 채천계(蔡天啓)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채이복(蔡以復)이고, 아버지는 채기종(蔡起宗)이며, 어머니는 순천김씨(順天金氏)로 김경장(金慶長)의 딸이다. 재종숙 채지수(蔡之洙)에게 입양되었으며, 홍여하(洪汝河)·이현일(李玄逸)의 문인이다. 1675년(숙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1678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조·병조의 낭관(郎官)을 거쳐 사간원의 정언·헌납, 사헌부지평, 시강원필선 등을 역임하였고, 외직으로는 진주목사·인동현감·영해부사 등을 지냈다. 영해부사로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문풍(文風)을 고취시켰다. 저서로는 『우헌문집(愚軒文集)』 3책이 있다.

이 지금처럼 심한 적이 없는데 바로 그 이유는 실로 이기(理氣)를 간파하여 밝히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하시고서는 드디어 회암(晦庵)이 발휘하신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근본으로 하면서 후론에 이르기까지 더욱 더하고 미루어 밝히었다. 그리고 일세의 여러 현인들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논의한 것이 성명(性命)의 본원을 밝히고 체용(體用)의 분수를 궁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편 기를 리와 같은 종으로 여기는 것이 육상산에서 나왔음을 아시고 폐단이 후대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였다. 간사잉어(看史剩語)는 손수 수시로 차기를 적어 자신의 설을 적은 것으로, 대개 이치를 깨닫고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이었다. 느끼고 분개함에 쉬지 않는 뜻이 실로 그 가운데에 붙여져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언제 일찍이 이런 의론이 있었으며 또한 언제 이런 식견이 있었는가. 경인년의 한 소장으로 말한다면 인의와 군친에 대한 말은 바로 정수리 자리에서 상하로 한 침을 놓은 것이니 지금까지 상소문[12] 중에 가장 명언이 되었다.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공론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이르지 않았음을 알게 하였으니 우리 유학계의 행은 대개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13]

활재의 남긴 글중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경인년 상소의 사상사적 의미에 대하여 김용헌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효종 즉위년, 즉 병인년에 있었던 영남 유생들의 연명 상소는 통상적인 상소와는 달리 참여 인원이 9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집단적 정치 행위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이이의 학문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상소는 행적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의 것 보다 훨씬 진전된 비판의 논리를 보여주었다는 사상사적 의미가 있다. 그가 이 글에서 특히 역점을 둔 것은 이이의 학문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행적의 문제는 거칠고 사소한 것이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의 폐단이라고 했다.[14]

---

12) 경인년은 1650년(효종 1)으로서 영남유림에서 율곡의 승무(陞廡, 문묘(文廟)의 양무에 위(位)를 모시던 일)운동에 대하여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영남유림에서는 율곡의 승무운동에 대응하여 1649년 12월 유직을 소수로 한 <영남유생논우계율곡불합종사소(嶺南儒生論牛溪栗谷不合從祀疏)>를 950여명의 연명으로 작성하여 2월에 봉정하였다. 활재는 이 반대 유소를 주도적으로 집필하였으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후일 금고 되기도 하였다.

13) 『活齋集』 , 「活齋先生文集跋(蔡獻徵)」. 활재집은 7권 4책.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권두경(權斗經)·이만부(李萬敷)의 서문이, 권말에 채헌징(蔡獻徵)의 발문이 있다.

14) 김용헌, 「활재 이구의 철학이론과 그 사상」,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2018. p.70.

식산 이만부는 호라재의 한평생을 말하기를, "만난 세상이 불행하였고, 뜻과 학업은 방대했으나 수명이 짧았으며, 나아가서는 세상에 쓰이지 못했으며 물러나서는 후대에게 전수해 줄 수 없었던 매우 불행한 삶"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그의 짧았던 삶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던 식산의 절실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또 청대 권상일은 활재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에서 그가 옛날 거처했던 도촌을 지나면서 활재 집터에 고목 한그루만 남아 있어 그곳에 말을 매어두고 당시의 일을 고목에게 물어본다. 청대는 활재를 한유와 노중련에 비유하였다. 한유는 불교와 도교 등 이단의 세력을 온 몸으로 막고 유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은 인물이며, 노중련은 진나라가 예를 버리고 공을 숭상하자 동해로 들어가 빠져 죽겠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볼 때 활재는 상당한 기개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15)]

이구는 1644년(인조 22) 명이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역을 쓰지 않고 자신이명의 절기에 따를 절기서를 지어 이에 따랐다. 존명의리는 활재 이구의 사상을 지배하는 개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52년(효종 3)에 부친상과 다음해에 모친상을 연이어 당하면서 상사에 몰두하다가 1654년(효종 5) 8월 25일 42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두달뒤인 10월 괴산 연풍의 장풍산에 안장되었다. 활재 이구의 학문과 정신은 청대 권상일등 후대 많은 존숭의 대상이 되어 사후 130여년이 지난 1786년(정조 10) 근암서원에 배향되었다.

5) 식산 이만부

이만부(李萬敷, 1664~1732)는 이조판서를 지내고 판중추부사에 오른 근곡 이관징의 손자요, 이조참판과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박천 이옥의 둘째 아들로서 현종 5년 12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자는 중서요, 호는 식산(息山)이며 본관은 연안이다. 그의 가계는 근기남인의 명문이었으며 지봉 이수광의 외손이기도 하다.

---

15) 전성건, 「활재 선생의 시와 철학」,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2018. pp. 56~57.

식산이 경상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의 나이 34세때 상주의 외답 노곡리 식산의 아래에 터를 잡고 이거하였다. 그의 고조부인 이창정(李昌廷, 1573~1625)은 광해군의 난정을 피해 문경 농암의 청화산에 은거하여 화음무구옹(華陰無求翁)이라 자호했고, 인조반정이후 다시 출사하여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때부터 영남 북부지역과 깊은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식산의 호는 이 지명을 딴 것이다. 식산은 당파싸움으로 인한 아버지의 유배과정을 지켜보면서 치열한 당쟁으로 지친 조선 후기 사회를 염두에 두고 쉰다(息)는 이미지를 가지로 호를 삼았다. 그리고 유현의 아름다운 풍속이 있는 영남을 좋아하여 이곳에 거주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실상은 1697년 조부의 상을 치루며 닥친 극심한 가난으로 한양의 족한정을 떠나 둘째 부인 풍산류씨 고향인 영남 상주부로 이주한다. 이때 부친 이옥도 함께 이거하지만 이듬해에 사망하고 만다. 1710년부터 3년간은 고조부가 계셨던 문경 화음(지금의 농암면 화산리)으로 이주했다가 이후 여러 곳을 이주하면서 원림을 경영하고 독서와 강학에 매진하며 시문과 서술을 창작하였다.[16)]

식산의 증조부인 이심(李禑, 1597~1648)은 청절의 선비로 칭송이 자자했던 분으로서 학행이 뛰어난 유일지사를 천거하는 유일천거제(遺逸薦擧制)로 천거되어 대군의 사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문경현에 은거하여 자제들을 훈육했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문경 가은에 있는 소양서원에 배향되었다.

주희와 이황은 이주하는 곳마다 암자와 정사를 경영하며 다양한 시문을 창작하였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식산역시 3~4번 주거지를 옮겨 은거하면서 다양한 시문과 예술작품을 창작하였다.

퇴계학파의 종장 이현일을 예방하여평소 주장해오던 성리설인 '천도유경설(天道有敬說)'[17)]에 대하여 이현일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근암서원에 배향된 대부분의 인물

---

16) 김주부, 「식산 이만부의 원림경영과 누항록에 구현된 문학세계」,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2018. pp. 180~181.

17) 이은호,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의 천도유경설(天道有敬說) 연구(硏究)」, 『동양철학연구, 56』, 동양철학연구회,
2008, pp.75-96
"息山은 天道有敬說에서 天道와 人道가 제각각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誠과 敬 또한 서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라는 주장을 펼친다. 더 나아가 올바른 敬의 면목을 알기위해서는 다시 程朱學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의

이 노론과 그 인물들을 비판하는데 식산 역시도 『만동사의(萬東祠議)』[18]를 지어 만동묘에 명나라 신종황제와 제후국의 신하 송시열을 함께 배향하는 것을 성토함으로서 노론계 학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인다. 1708년에는 조선의 성리학 저술을 분류하여 편집한 『도동편[19]』을 완성한다. 여기에서는 당색을 초월하여 공정한 마음으로 이이, 김장생 등 서인계 학자들의 성리설도 수용하였다.

식산이 도동편을 완성하고 나서 오치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만부는 일 일에 문인 다수가 참여했지만 다른 사람의 비평을 듣지 못했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 내가 겪은 죽고 사는 것이 갈라지는 2개의 큰사건(1707년에 두 자녀를 잃은 사건)은 봄을 맞으니 더욱 심하게 느껴져 말로 할 수가 없다. 지난 해 11월초에 리숙에 거처하면서 도동편을 수정하였는데 함께 일한 사람이 수 명이고, 왕래하며 이 일에 동참한 사람도 많았다. 12월 중순께는 도남서원 회의를 참석하였는데 가까운 곳의 사우와 더불어 교정하였다.(중략) 오직 초고를 베끼는 일은 겨우 마쳐서 권수로는 20권인데, 책은 십문으로 분류하여 제법 가지런하고 정돈된 것이 참고하여 살피는 데는 편리하나, 다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론하지 못하니 고루한 병폐를 면하지 못할까 한스럽다.[20]

식산은 일생을 학문에 몰두한 남인의 산림학자이다. 서울과 상주, 인근 문경과 영주등지를 넘나들며 학문에 몰두함으로써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이루었다. 그의 학문은 외가인 이수광의 영향, 처가에서 유래한 이황, 유성룡의 영향을 받으며, 성리학, 예학 뿐만이 아니라 문학과 서예 등에 걸쳐 다방면에 깊이 있는 성과를 남겼다. 그

혼란스럽고 분열된 시대상황과 결부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비록 그의 주장이 독창적이거나 정주학이나 퇴율의 성리학을 뛰어넘는 차원의 입론이 아니고 또한 龍頭蛇尾격의 마무리로 끝을 맺고 있지만 당시 조선의 사회가 程朱의 종지를 벗어나 공리사변으로 치닫고,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온갖 모순을 양산해내는 상황에 맞서 성리학 본연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한 유학자의 성찰적 태도는 분명히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18) 권상하(權尙夏)가 1703년 괴산군 화양동에 만동묘(萬東廟)를 세워 명나라 신종황제와 송시열(1607~1689)을 함께 배향하려 할 때 이만부는 목숨을 걸고 만동사의(萬東祠議)를 지어 비례(非禮)라고 성토한 문장이다. 이글은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내용이므로 식산집에는 실리지 못하고 『식산집보유(息山集補遺)』로 간행되어 식산전서 2책. 269~271쪽에 수록되었다.

19) 성리학 전반을 정리, 편찬했던 저술. 십문(十門)의 유형별로 성리학을 집대성해낸 책.

20) <『息山集』 卷7, (答吳致重 3서)>

의 삶과 학문을 살펴보면 이만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학문과 영남의 학문을 잇거나 종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 성리학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조선의 현실은 학문적,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태도는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21)]

6) 목재 홍여하

홍여하(洪汝河, 1620~1674)는 자는 백원, 호는 산택재, 혹은 목재, 본관은 부림이며, 아버지 대사간 홍호(洪鎬, 호 無住)와 어머니 장흥고씨(고경명의 손녀이자 고종후의 따님)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비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부친을 따라 서울에 있을 때 우복 정경세(1563~ 1633)를 만난 적이 있었다. 정경세가 『중용』 첫 장의 뜻을 묻자 "'기가 형체를 이루어서 이도 부여되었다(氣以成形而理亦賦)'라고 한다면 기가 앞이고 이가 뒤인 것만 같습니다. '亦賦'자 대신 '本具'字를 쓰면 뜻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라 하니, 정경세가 앞으로 큰 선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1654년(효종 5, 35세)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시강원 설서·성균관 전적·사헌부 감찰·사간원 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657년(효종 8) 외직으로 고산도 찰방이 되어 민폐를 제거하기도 하였고, 1659년에는 경성 판관이 되어 어진 정사를 펼쳤다. 병마절도사 권우의 모함을 받고 파면되어 충청도 황간으로 떠나가니, 고을 백성들이 서로 길을 막고 울면서 중국의 조주를 다스렸던 한유의 치적에 비유하였다. 41세가 되던 1660년 유배에서 풀려나자 문경으로 돌아와서 산택재(山澤齋)를 짓고, 학문을 강마하는 한편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였다. 이후 사간원 사간에 제수되었지만 그해 겨울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 55세였다.

목재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의 문집 『목재집』에는 257제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홍여하는 평상시 내면의 수양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

21) 정재훈, 「식산 이만부의 학문과 도동편」,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2018. pp. 257.

시는 1661년 41세때 충청도 황간에 정배되었다가 고향 문경 율리로 돌아온 일을 읊은 시이다.

還鄉倦客自長沙	지친 객 장사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니
病眼依俙舊物華	병든 눈엔 옛 물화 희미하게 보이네
芳草空洲六七里	빈물가 육칠 리에 꽃다운 풀 자라나고
杏花疏雨兩三家	가랑비 내리는 두세 집에 살구꽃 피었네
候門童僕悲兼喜	문에서 기다리던 아이는 울다가 기뻐하고
滿架書籤整復斜	서가 가득한 책은 정리했다 다시 펴보네
把酒東隣來釣伴	이웃 사람 술 가지고 와서 함께 낚시하며
共嗔何事到天涯	무슨 일로 귀양을 갔냐며 함께 성을 내네[22]

마치 지금의 모습을 보는 듯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유배에서 풀려난 자유로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반겨주는 고향산천과 사람들에게 푸근한 마음을 가진듯하다. 마음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는 것은 삶과 학문에 있어서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홍여하는 20세때 휘찬여사(彙纂麗史[23]) 범례를 짓고서 편찬을 시작하였다. 27세때

22) 홍여하, 『목재집』 권1, 「詠懷」 참조.

23) 목재 홍여하가 고려시대에 관해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로서 『목재가숙휘찬여사(木齋家塾彙纂麗史)』라고도 한다. 전4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6은 세가(世家)로서, 고려 태조에서 공양왕까지 32명의 역대 왕들의 행적을 적고 있다. 우왕과 창왕에 관한 것을 세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고려사』와 같다. 하지만 이 내용을 『고려사』에서는 반역전(叛逆傳)에 수록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책에서는 신서인전(辛庶人傳)을 따로 설정·수록하고 있다. 권7~19는 지(志)로, 천문지(天文志)·오행지(五行志)·지리지(地理志)·예지(禮志)·악지(樂志)·여복지(輿服志)·선거지(選擧志)·백관지(百官志)·식화지(食貨志)·병지(兵志)·형법지(刑法志) 등 11개 분야로 되어 있다. 권20~46은 열전(列傳)으로, 왕후(王后)·제원비전(諸院妃傳)·종실전(宗室傳)·신서인전·명신전(名臣傳)·의열전(義烈傳)·유학전(儒學傳)·탁행전(卓行傳)·행인전(行人傳)·양리전(良吏傳)·문원전(文苑傳)·방기전(方技傳)·환자전(宦者傳)·혹리전(酷吏傳)·폐행전(嬖幸傳)·간신전(姦臣傳)·반역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권47은 외이부록(外夷附錄)으로, 거란전(契丹傳)·여진전(女眞傳)·일본전(日本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구성을 통해 이 책은 기전체(紀傳體)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자기의 안목으로 『고려사』를 간략하게 줄여서 이 책을 편찬하였다. 저자가 고려사를 휘찬하면서, 세계의 중심임을 자처하던 중국의 역사 서술방법을 적용해 외이부록을 따로 구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사서발범구결(四書發凡口訣)을 지었고, 경성판관 시절에 천군(天君)과 팔잠(八箴)을 지었다. 유배에서 풀려나 율곡으로 돌아온 뒤에는 명명덕찬(明明德贊) 존성재기(尊性齋記) 등을 지었고, 53세때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산절하여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 일명 동사제강의 범례를 만들고 편찬을 시작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해동성원(海東姓苑)도 편찬하였다.

홍여하는 17세기 후반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역사가로서 더욱 유명하다. 동국통감제강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휘찬여사』는 고려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는 당시 학자들이 중국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제대로 된 역사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가 젊은 날부터 가졌던 이상이며 『휘찬여사』와 『동국통감제강』을 짓게 된 까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홍여하는 이황과 류성룡의 찬, 장흥효의 묘갈, 류진과 이휘일의 행장 등을 지었고 이현일은 그를 적극 높였다. 또 정경세는 홍여하의 『휘찬여사』를 교정하고 서문을 지었으며, 뒷날 유주목은 홍여하의 묘갈을 지었다. 이렇게 볼 때, 홍여하는 17세기 전반에서 후반 갈암 이현일로 이어지는 퇴계 학통의 중심적 위치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홍여하의 대표적인 철학 관련 저술로는 독서차기(讀書箚記)와 명명덕찬(明明德贊) 존성재기(尊性齋記), 제양명집주자만년정론후(題陽明集朱子晩年定論後)등을 들 수 있다.

당시 남인의 영수였던 허목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을 지었다. 이후 그는 영남 남인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다. 숙종 5년 대사간 권유는 홍여하의 증직을 요구했지만 영의정 허적 등이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대사헌 이현일은 그에 대해 경학을 공부하고 행동이 단정하여 사림의 영수가 되었으며, 역사에 능하여 조경이 일찍이 칭찬하였다고 하여서 추증을 청하므로 마침내 부제학으로 추증되었다.

7) 청대 권상일

권상일(權相一)은 본관은 안동이요, 자는 태중(台仲), 호는 청대(淸臺)이다. 1679년

(숙종 5) 산북면 서중리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근암서원에 배향된 일곱 분 중 유일하게 서원이 위치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증이조판서 심(深)이며, 어머니는 경주이씨로 부사 달의(達意)의 딸이다. 학문을 일찍 깨우쳐 20세에 옛사람들의 독서하는 법과 수신하는 방법을 모아 『학지록(學知錄)』을 저술하였다. 이른나이에 이렇게 저술을 할 수 있는 힘은 이미 7살부터 학업을 시작했고, 한 해 동안 『史略』 7권을 독파할 만큼 천부적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8세에 어머니를 따라 영주 외가로 가서 외조부 이달의(李達意)로부터 한유의 시를 배울 때는 재능을 보여 어른들로부터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19세 때에는 선성김씨 진사 김가주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으며[24] 이듬해인 20세부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쓴 일기를 죽기 전인 81세까지 쉬지 않고 62년간을 쉼 없이 썼다. 이것이 곧 『청대일기』이다.

1705년 2월에는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외조부의 상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동년 8월에는 한성시에 합격하는 영광도 따랐다. 그러나 1706년 3월에는 혼인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아내 선성김씨와 사별하게 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여주이씨 이만영의 딸을 재취로 맞으면서 개인과 집안의 안녕을 찾을 수 있었고 다음해에는 향시에 입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후 학문에 더욱 매진하여 1710년 32살의 나이에 득남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6월 문과에 합격하는 큰 경사를 맛보았다.

1710년(숙종 36)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가 되었으며, 1715년 저작·전적·직강 등을 역임하였고, 1720년 예조좌랑을 지냈다. 1722년(경종 2)에 병조좌랑을 지냈고, 1727년(영조 3)에는 만경현령이 되어 이듬해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사전에 탐지하여 영문에 보고하였고, 난을 토벌하여 공을 세웠다. 1731년 영암군수와 사헌부장령을 지냈고,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을 교열하여 간행하였다. 이듬해 상소하여 민폐 근절책과 관기숙정 방안을 건의하였다. 홍문관의 계청에 의하여 경연에 참석하여 소신을 진술하였다. 그해 울산부사가 되어 춘추관편수관을 겸임하고, 구강서원(鷗江書院)을 창립하여 학문을 진흥시켰으며, 공씨에게 군

24) 장인 김가주는 문과 중시 출신으로 이조판서를 지낸 김담(金淡)의 8세손이다. 권상일의 처가는 영주지역을 대표하는 양반 가문으로 처고조 김우익(金友益)은 문과를 거쳐 서윤을 지냈고, 처고조 김종호(金宗灝)는 진사였다.

역을 면제하는 등의 선치를 하였다.

1741년 시강원필선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745년 봉상시정, 이듬해 사헌부헌납, 사간원사성, 사헌부집의,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을 역임하였고, 1748년 우부승지로 물러났다.

뒤에 대사간, 판결사, 홍문관부제학, 한성좌윤, 지중추부사,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이황을 사숙하여 「사칠설(四七說)」을 지어 이(理)와 기(氣)를 둘로 분리하고, 이는 본연의 성이며 기는 기질의 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청대집』 18권, 『초학지남 (初學指南)』, 『관서근사록집해(觀書近思錄集解)』, 『소대비고(昭代備考)』, 『가범(家範)』, 『역대사초상목(歷代史抄常目)』과 『일기(日記)』 30여 권이 있다. 시호는 희정(僖靖)이다. 죽림정사, 근암서원에 배향되었다.

그의 학문은 곧 위기(爲己)의 학문으로 이학(理學)의 규명에 투철한 것이었다. 그는 이(理)를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實體)라 여겨 이(理)에 근거하여 기(氣)가 화생(化生)한다는 이생기(理生氣) 내지는 먼저 이(理)가 존재한 이후에 기(氣)가 생성될 수 있다는 이선기후(理先氣後)를 근본으로 하는 이기생성론(理氣生成論)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상정(李象靖)이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면서 이의 주재성(主宰性)과 제약성(制約性)만 강조하는 데 대하여 그는 이단(異端)의 설에 가깝다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또한 이황이 수정하기 전의 사칠설(四七說)을 조술하여 이와 기를 완전히 이물(二物)로 분리하고, 이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이 되고, 기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이 된다고 하였다.

또 성(性)은 그 자체에 지각이 있어 본연의 성은 기와의 교섭(交涉) 없이 자체의 지각에 의하여 자체의 발동에 따르고, 기질의 성은 또한 이와의 교섭 없이 자성(自性)의 지각에 의하여 자체의 발동을 바로 따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情)을 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본연의 성이 따라서 성립된 정(情)은 곧 이발(理發)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 기질의 성에 따라 성립된 정은 기발(氣發)이 되는 것으로, 두 개의 정은 그 성질에서 서로 다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이와 기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그리하여 사단(四端)은 이의 발(發)이고, 칠정(七情)은 기의 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영남 주리파(主理波)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

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치우친 만큼 그의 생활도한 이의 원리를 좇는 엄격함을 고수하였다. 글을 읽을 때에도 외우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힘썼으며, 문장에도 수식보다는 이치와 논리가 바로 서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 과거제도에 대해서도 심술을 괴롭힌다 하여 매우 회의적이어서, 서당에 있을 때에는 경서만을 일관되게 강론하였다.

4. 근암서원의 운영과 활용 프로그램

사당 영역을 제외하곤 근암서원의 건물과 부지는 문경시 소유다. 전국적으로 서원이 지자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은 드문 것으로 안다. 다만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 곳은 몇 곳이 있다.[25] 현실적으로 지자체 재산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현재 문경시의 경우 각 문중과 개인 중에는 정자와 종가 등을 이미 기부를 했거나 향후 기부채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사실 복설 당시 유림과 서원관련 문중에서는 운영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향과 향사에 관심이 더 많았다. 시에서 조건을 내세우기를 활용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운영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써 줄 것을 오랫동안 건의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했다. 결국 유림들의 서원 복원의 본래 목적은 제향공간의 확장과 지역의 위상세우기에 관심이 더 많았다.

문경시에서도 처음부터 운영을 맡을 계획은 없었다. 복원 전부터 계획으로는 유림에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준공시점이 다가오면서 유림들의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유림들과의 의견마찰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운영은 문경시에서 맡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근암서원

25)

주체별	유림	문중	지자체	사단법인	학교법인	개인	알수 없음	총계
서원수	377	255	11	5	5	20	2	675

운영위원회"라는 단체를 발족시킨 것이다.

서원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문경시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과 기념관은 모두 6곳이다. 문경새재에 있는 옛길박물관을 위시하여 자연생태박물관, 석탄박물관, 도자기박물관, 운강이강년기념관, 박열의사기념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평균 3~4명 정도이고 연간 소요 예산이 건물별 3억을 상회한다. 2021년 근암서원의 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계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근암서원 선비문화체험교실	문경 한자왕 선발대회	
20,990	17,100	1,000	22,000	30,000	10,000	101,090

(단위:천원)

이외에 근암서원 건물 유지비와 보수, 관련 사업을 모두 합하면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지자체에서 서원 운영에 자체예산을 1억 이상 편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국내에 산재하는 서원중 상당수는 제향에 따른 제수비용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다. 반면에 활용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서원에 대한 지원은 고을 수령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근암서원 강당에 강좌 등 수업 등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안(書案) 60개는 한국서원연합회의 도움으로 마련하게 되었고, 좌식의자도 구입하여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근암서원에서는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5월 준공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3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혼례, 공연, 특별강좌 등의 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 단체의 회의와 대학원생 논문 발표, 학회 세미나, 청소년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문화단체의 문화행사 등 연간 다양한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중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문학 아카데미

본 강좌는 지역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인문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들의 배움의 장이다. 그간 지역 내에서 펼쳐진 인문학 강좌는 초청강연과 박물관 대학, 시민 명륜강좌 정도였다. 한 장소에서 몇 달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없었으며 주부대학, 여성대학, 농협대학 등의 단체에서 회원들을 위한 친목도모 형식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강좌였다.

복설이 이루어진 첫해인 2011년에는 '서원이란 무엇인가?', '사서삼경이란 무엇인가', '주역이란 무엇인가', 등 기본적인 소양을 위주의 과목을 위주로 시작했다. 이후 근암서원에 배향된 인물을 중심으로 매년 한 두분씩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면 지난 2018년의 경우 배향인물 중 활재 이구선생과 식산 이만부 선생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매주 한 강좌씩 개설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활재 이구에 대하여는
8월 27일 금오공대 박인호 교수의 "활재이구의 시대인식과 사회활동"
8월 30일 안동대 전성건교수의 "활재선생의 시와 철학"
9월 3일 한양대 김용헌교수의 "활재 이구의 철학사상"
9월 6일 점촌중학교 권용헌 교사의 "활재이구의 생애와 문학세계"

식산 이만부에 대하여는
9월 10일 안동대 신두환교수의 "식산 이만부의 삶과 문학"
9월 13일 한국국학진흥원 김주부연구원의 "식산의 문학"
9월 17일 경북대 정재훈교수의 "식산 이만부의 학문과 도동편"
9월 20일 성균관대 대동문화원 함영대 연구원의 "식산 이만부의 학술정신과 경학"[26]

26)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8강좌에서 10강좌를 진행해 왔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해 책 발간만 하기로 함.

이렇게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지역에서 살다간 학자들의 삶에 대한 자세와 학문에 대한 열정 등을 배우게 되었다.

근암서원의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로서 강당의 규모로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강당 마루에는 성인 남성 30~35명 정도가 들어가면 될 정도이다. 주로 강좌를 하게 되면 적게는 50명 정도에서 많으면 100여명 정도가 강좌에 참여하는데 많이 참석할 때는 강당 밖의 툇마루와 왼편 방까지 개방하기도 한다.

근암서원 강좌 준비는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해당강좌의 강사는 직접 섭외를 한다. 아마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강좌가 개설되면 대부분 공모형식을 통해 대행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다. 예산 22,000천원 중 12,000천원은 강사비와 교재제작비, 기타 강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10,000천원은 강좌 후 근암서원연구총서 시리즈[27]로 발간하고 있다.

2022년 위드코로나가 되면 앞으로의 강좌는 지역 인물들을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특히 문경지역에 있는 서원에 모셔진 인물들을 먼저 알아볼 것이다. 이 외에도 정자와 관련된 인물과 정자 건립에 대한 과정 등을 배워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2) 출사동이 선비문화 체험교실

출사동이는 문경시의 캐릭터로서 과거에 급제한 후 임금님이 내려준 어사화를 꽂고 환하게 웃는 선비의 모습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여 기쁜 소식을 듣는 고장, 희망에 찬 문경의 모습을 상징한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지역의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출사동이처럼 밝은 선비의 자세로 자라기를 희망하는 뜻으로 교육청에서 문경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이다.

2011년 처음 시작할 때의 체험과정은 사자소학과 한자 등을 배우는 옛글 교육, 선비의 생활태도를 배워보는 선비체험, 예절, 관례, 다례를 체험하는 예절교육, 투

27) 근암서원연구총서 시리즈. 1집, 『청대 권상일의 생애와 사상』, 2015, 2집, 『우암 홍언충과 목재 홍여하의 생애와 사상』, 2016. 3집, 『한음 이덕형과 사담 김홍민의 생애와 사상』, 2017, 4집,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2018, 5집, 『문경의 구곡과 근암서원』, 6집, 『근암서원의 배출인물』, 2021년 근간예정.

호, 제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 만큼 널리 알리고 성공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160명이 참가해 '부모와 함께하는 출사동이 문화체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매년 시행착오를 거쳐 프로그램을 조금씩 개선해 나갔으며 교재 제작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했다. 2014년 프로그램을 보면 '전통복장 입기', '선비의 생활태도 및 예법 체험', '예절-관례-다례를 체험하는 예절교육', '투호-제기차기-널뛰기 등 민속놀이', '문경아리랑 유래 알고 배우기'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전통복장을 입고 서원을 둘러보고 배례를 익힌 후 선현에 대한 배향을 한 후 선비의 생활 및 태도, 예법, 자세들을 익혀 자신을 낮추는 방법도 배운다. 이 외에도 지역 문화를 알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부분을 하루 동안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사동이 선비문화 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진행해 줄 선생님이 필요했다. 유림 중에서 선발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유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법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가 가장 제격이다. 2011년부터 프로그램 운영은 교장 선생님을 훈장으로 모셔서 진행을 했다.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10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하기에 매우 힘

이 든다. 초등출신 교장선생님들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왔기 때문에 훈장으로 모신 것은 가장 적임자라고 본다.

프로그램 교재는 교육청과 근암서원 훈장들이 함께 만들었으며 내용은 1장에서 예절을 통해 한국 전통의 예의문화를 소개하고 남자와 여자의 절하기 등 기본예절을 주로 다루었고, 2장에서는 내 고장 바로알기를 통해 문경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배려를 하였다. 3장에서는 학교 교육과 서원의 역할을 소개했고, 4장에서는 시대에 맞는 선비정신을 5장에서는 사자소학을 직접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6장에서는 원본소학집주를 7장에서는 선현들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190페이지의 분

량으로 교재를 만들었고 이 교재만 보더라도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3) 한자왕 선발대회

수능에서 가장 성적을 올리기 힘든 과목이 국어과목이라고 한다. 예전 같으면 수학이나 영어가 제일 힘든 과목이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시험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결과라고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기록에 적혀 있는 문자 중에는 상당수가 한자어이다. 즉 한자어의 뜻을 모르면 명확한 뜻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한자를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업 이해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빠르며 생각도 깊어 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

서원의 기본과목들이 모두 한자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곳에서 한자와 관련된 수업과 행사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주요 신문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에서 한자의 입력과 세로쓰기 인쇄가 불편해졌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세로쓰기·국한문혼용체 인쇄에서 가로쓰기·한글전용으로 바뀌어나가며 본격적으로 한자가 보조문자로 격하되었다.

이후 한국어 표기에서 한자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급기야는 한자병기로서 한글 옆에 괄호(括弧)를 쳐서 그 안에 한자(漢字)를 표기(表記)하는 방식(方式)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가운데 52%가 정규 교육과정(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통해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7%는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아침자습, 방과 후 학교 학습)을 통해 한자 교육을 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마련한 초등학교 한문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600자'가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

과서 부재로 인하여 전국의 학생들마다 한자를 배우는 수준이 상이하다고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한문'이라는 과목이 정식으로 존재하며, 한자 교육은 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문' 과목은 중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한문·제2외국어 과목으로서 존재한다. 한문 시간에 가르치는 한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가 기준이 되며, 중학교용 한자 900자, 고등학교용 한자 900자가 배정되어 있다. 수능에서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선택 과목으로 존재한다. 이렇듯 한글 상용화가 되어가기는 하나 아직까지 한자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연유로 근암서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자왕 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문경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이 예선을 거쳐 참가했다. 문제는 처음에는 한자자격수준 5급 상당으로 치러졌으나 학생들의 관심을 가지기 위해 교육지원청 배정 한자 500자, 근암서원에서 배우는'예의와 학문'교재 가운데 사자소학편 등에서 출제됐다. 이는 근암서원 선비체험 교실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전통 선비복을 입고서 경건한 자세로 시험에 응했다.

첫회는 2011년 10월에 개최하였는데, 먼저 각 학교별로 예선을 치룬 후 학교별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출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시험 후 채점을 시작해 당일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학교 대표로 출전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학생들 대다수가 수업 이해도가 좋다고 한다.

근암서원에서 한자왕 선발대회를 개최한 후 전국 지자체 몇 곳에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문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조금은 아쉽게도 현재는 문경시와 구미시에서만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4) 기타

근암서원은 인문학 아카데미와 출사동이 선비문화체험교실, 한자왕 선발대회 외에도 연간 다양한 행사를 개최 또는 활용을 하고 있다.

서원 운영 주체가 지자체이다 보니 모든 시민에게 개방을 하도록 조례를 정했으며, 문경시민이 아니라도 목적에만 부합되면 조건 없이 임대를 하도록 했다.

먼저 회의 공간으로서의 활용이다. 문경시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와 각 학교별 개최되는 소규모 회의를 위해 문을 열어 주었다. 가장 먼저 회의 장소를 선택한 단체는 서원이 속한 산북면의 이장단 회의였다. 이동의 문제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회의공간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두 번째는 세미나 공간으로서의 활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용이 많지 않았지만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과정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세미나 또는 논문지도 등의 활용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는 전통혼례식장으로서의 활용이다. 요즘 특별한 공간에서 결혼하기를 좋아하는 커플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원과 같은 전통공간도 예식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강당이 있는 마당에서는 혼례식을 치루고, 폐백은 강당 내에서 이루어졌다. 예식을 마친 후에는 하객들에게 주차장에 출장 뷔페를 시켜놓고 예식장 식당을 대신했다.

네 번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서의 활용이다. 지역 내 놀이문화를 주도하는 주부모임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휴대폰 없이도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과 1박 2일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이외에도 동아리 또는 다양한 단체에서 학술활동과 수련활동을 개최해 왔다. 앞으로도 근암서원은 30명~50명 정도규모가 진행하는 행사 또는 단체 활동에 언제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5. 진정성 있는 서원의 활용은 무엇인가?

이제는 활용과 관련되어 고민할 차례이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다. 어쩌면 이미 서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문화재청에서도 서원과 향교에 대한 활용사업으로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지자체에서 서원과 향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활용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

다. 더군다나 충남 최초의 사액서원인 충현서원[28]은 선비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부터 서원문화제를 해 오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서울 도봉서원[29]에서도 문화제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서원에서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청은 내년(2022)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으로 「생생문화재」 165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07건, 「문화재야행」 45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3건, 「고택·종갓집 활용」 45건 등 총 405건을 선정하였다. 작년에는 생생문화재 160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16건, 문화재야행 42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2건, 고택·종갓집 활용 40건 등 총 400건을 선정하였다. 작년에 비해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이 좀 줄긴 했지만 문화재가 있는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본다.

활용과 관련한 논문도 여러 편 나와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활용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호는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원 활용 방안 제언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30]하였다.

첫 번째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서원, 두 번째는 교육공간으로서의 서원, 세 번째는

28) 조선시대의 학자인 서기(1523~1591)가 중국의 주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 서기는 서경덕, 이지함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지리산과 계룡산에서 후진 양성에 전념한 분이다. 처음에는 '박약재'라는 이름으로 세우고 이존오·이목·성제원 등을 추가로 모셨는데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광해군 2년(1610)에 복원하고 조헌을 추가로 모셨으며 인조 3년(1625)에 나라에서 인정한 사액서원으로 '충현'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 뒤 김장생·송준길·송시열 등의 위패를 추가로 모시고 지방 유생들을 교육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해 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8년(1871)에 폐쇄되었다. 지금 있는 건물은 1976년 새로 복원한 것이다.

29) 도봉서원은 서울에 소재한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으로 도봉산 입구 등산길에 오르면 우측 옛 영국사 터에 위치 해 있다. 남언경이 양주목사로 부임하여 1573년(선조6) 지방유림의 공의로 조광조(趙光祖)의 학문적 사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고 위패를 모셨다. 창건과 동시에 '도봉(道峰)'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송시열(宋時烈)을 추가 배향하였다. 1775년(영조 51) 어필사액을 다시 받아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400여 년간 양주, 파주, 포천, 서울지역에 있는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 훼철되었으며 위패는 땅에 묻었다. 1903년 지방유림에 의해 단을 설치하여 봄, 가을에 향사를 지내 오다가 6.25전쟁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1970년 도봉서원재건위원회가 구성되어 1971년 복원 매년 음력 3월10일(춘향제), 9월10일(추향제)에 전국 유림 및 지역유지가 모여 전통향사를 지내고 있다.

30) 이상호,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원 활용 방안 제언」, 『유학연구』 제3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2016. pp444~457.

문화 체험공간으로서의 서원을 정리하였다.

먼저 관광자원으로서의 서원은 무엇보다 경관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서원이 산을 뒤로하고 물을 보는 위치에 건립되는데 이는 경관적 요소를 충분하게 만족시킨다고 보았다. 이를 퇴계선생의 서원의 입지적 요소를 강조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리 산천경개가 수려하고 한적한 곳에 있어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만큼 교육적 성과가 크다“

서원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려 했던 근본 입장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경관적 요소는 산사들과 더불어 현대 관광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힐링의 대상지로 활용될 수 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라고 보았다. 서원은 배향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고, 이 인물들은 그 지역과 어떠한 형식으로든 관계되어 있다. 역사 인물에 의해 서원의 가치가 부각되기도 하고, 서원을 통해 역사 인물의 스토리가 재구성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서원은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미되고, 서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이 배치되면,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았다.

두 번째로 교육공간으로서의 서원이다. 서원의 강학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방법이다. 사회교육이나 유교 및 전통 기반 체험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흥재, 장미진의 「우리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서 서원을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일례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들 수가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 정신문화를 이을 수 있는 가치로서 ‘선비정신’을 설정하고 이러한 선비정신을 현실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교에서 말하는 ‘교양을 갖춘 양심’과 ‘본분을 지키는 지성’, 그리고 ‘도덕을 지키는 시민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초등학생도 맞춤형으로 대학생과 성인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 경기도 이천의 설봉서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주민,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된 서원의 활용이 히우 일반인들을 위한 무료 교육이나 다양한 종류의 예절교육, 그리고 학생 체험 교육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세 번째로는 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서원이다. 정정숙의 연구에 따르면 서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31] 공간이라고 했다. 서원은 그 지역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리얼리티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리얼리티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지역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고가 있는 인물이 배향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학문적 정체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독특한 문화 체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은 유교문화와 전통문화 체험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며 서원 자체의 공간을 활용해 실경뮤지컬 등으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할 활용의 방법이다. 이외에 불교의 템플스테이처럼 서원 스테이도 좋은 활용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음은 진성수가 제안한 서원의 활용방안[32]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진성수는 '서원문화유산 활용 및 활성화위원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았다. 구성인력은 민,관,학의 협조 하에 서원, 유학사상, 문화콘텐츠 전문가 5~10명을 선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여기에서 서원관련 '전북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최대한 검토, 활용하여 전북지역 서원의 현황과 대내외적 조건을 검토한 후 자료를 통합하여 DB화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북지역 서원 현황에 대

31) 정정숙,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63.
32) 진성수, 「전북지역 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0집, 2016.

한 문화재청과 서원연합회 간의 통계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조속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지역 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다섯 가지 제안한다.

첫 번째 오감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되, 1회성 축제형태 진행은 가능한 지양한다.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충효 예절교육과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와 관련한 내용으로 국한되었었다.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전통과 현대를 매개하거나 교차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기획도 생각해 볼만하고 얘기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교의 음악과 미술, 서예와 다도 등에서 착안하여 오감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한다고 했다. 이에 조선 선비들이 즐겨하던 시,서,화에 다도와 음악까지 융합한 신선한 기획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지역 서원문화박물관으로 활용하되, 교육과 해설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문제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현황 파악과 기초자료 보존 및 활용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자산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중의 하나이다. 결국 지자체의 행, 재정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귀중한 자료들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불교계는 지역 마다 중심 사찰별로 자료관이나 성보박물관 등이 건립되어 있다. 만약 서원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당장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지역 내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박물관이나 자료관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으로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형 차별화된 서원문화유산 브랜드의 개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의 중심은 사람이다. 지역주민과 지자체담당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지역발전을 통한 사회 공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잇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함께 문화체험형 기업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기억한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새로운 잠재적 문화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서원문화유산을 지역 향토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지역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창출한다면, 장기적으로 문화관광자원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안정적 계승을 위해 후속세대 발굴,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보존, 관리, 새로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실시 등이 중요하다.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적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후속세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이 현대적 활용을 위해 3가지 조건 즉 1) 서원의 보존. 관리 및 시설지원을 하드웨어 2)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창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3)현대적 문화계승과 전달자인 후속세대로서 인적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 문화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리, 복원, 관리 등 보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 주차장, 교육, 휴식 공간, 숙박 등 편의시설 신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원의 경관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원의 역사와 문화 유산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현대의 변화된 문화 트렌드를 반영하여 관람객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킬만한 프로그램을 접목한다면 서원의 현대적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이상호의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원활용 방안 제언」과 진성수의 「전북지역 서원이 현대적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두 연구자의 내용만 잘 검토하고 실현한다면 서원의 올바른 활용은 잘 이루어질 듯하다.

이 장에서는 상기 검토된 다양한 활용관련 논의 외에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서원 관련 행정을 하면서 느낀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1) 서원 매입! 이제는 고민할 때

국내 대부분의 서원은 배향된 인물과 제자들의 후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소유와 관리자 또한 관련 문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서원을 출입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고령자이다. 신규회원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향사때 마다 느끼는 것은 작년에 오셨던 분이 올해는 더 이상 오시질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가 막을 내린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유교의 맥과 제향의식은 식을 줄을 모르는 것 같다. 한가지 아쉬움은 향교와 서원에 젊은 층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정도의 시간 뒤에 과연 제향공간에 의식을 치룰 사람이 몇이나 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유교적 제사 의식은 일반 가정에서도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이런 분위기에 서원의 추가 건립이나 제향의식의 확대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한다.

몇 해 전부터 고택 문화재를 소유한 개인이나 정자, 재사 등을 가지고 있는 문중에서 기부의사를 종종 밝혀오고 있다.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이다. 자식이 있어도 더 이상 고향과 종택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다시 귀향할 일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문중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중에서 소유한 재산을 이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맡아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원도 앞서의 예처럼 더 이상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서원이 소재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기부체납을 받든지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물이 더 퇴락되기 전에 지자체에서는 서원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제향공간은 예전처럼 제를 올릴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고 강당영역은 활용하면 된다.

물론 매입 후에 어떻게 활용과 운영을 할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운영관련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다.

근암서원의 경우 모든 건물과 강당영역을 포함한 관리사, 주차장의 토지는 문경시 소유로 되어 있다. 다만 제향공간의 토지는 관련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다. 몇 년 내에 모두 기부체납 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수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현재 봄, 가을 두 번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제수비용은 연간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사정은 모두 다르겠지만 소유자가 다르면 지원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건물 보수시에 소유자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축시에는 보조를 하는 지자체 재산으로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

다.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운영도 가능해진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서원은 적어도 수 백년간 그 지역의 정체성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곳이며, 배향된 인물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지역민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기에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할 명분은 충분히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서원 운영시에 관한 수령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힘들었다고 봐야한다. 물론 서원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서원은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 되어야한 지속을 할수 있다. 이 핵심적인 두 가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갈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북까페로 변화를 주면 어떨까!

서원은 책과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요즘 고택을 활용해 북까페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젊은 청년들이 지방으로,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 같기도 하다. 생각의 전환이 가져다준 일이라고 본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서원이나 고택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낡고 오래된 건물과, 을씨년스러운 주변 경관, 곳곳에 보이는 거미줄, 삐걱 거리는 문짝들, 차량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길 등은 이곳에 정을 붙이기에 쉽지 않은 풍경들이다.

그러나 이곳은 백 여 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면 살던 곳이다. 글 읽는 소리가 조석으로 들렸으며 아궁이에서는 하루 세 번 연기가 올랐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는 가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변했기 때문이다. 향수를 자극하는 것도 좋지만 그 향수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문화의 전승이 한세대 만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억이라는 것이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험한 것은 다르게 마련이다.

특이한 것은 고택에서 북까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젊은 층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공간의 기억은 무엇일까? 과연 이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삶을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전통이란 그대로 답습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라고 본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계승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에 가면 안동권씨 노동재사[33]에 북까페가 들어서 있다. 서점 이름은 가일서가(佳日書家)이다. 이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색다름에 놀랄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오던 고택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개조하거나 원형을 훼손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간 활용을 북까페라는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툇마루에서 책을 읽어 본 기억이 있는가? 기억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고, 기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된다.

현재 전국에서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소양고택의 한옥스테이와 북까페, 인천시 중구에 있는 싸리재고택 북까페, 일두고택이 있는 함양 개평마을 지인공간 북까페, 안동 가일마을 책방겸 북까페인 가일서가 등이 있다.

이 중 안동에 있는 가일서가는 안동시 풍산면에 위치하며 가일마을은 전통마을 원형이 잘 보존된 마을가운데 한 곳으로 수곡고택, 남천고택 등 600여년의 역사가 전해지는 안동 권씨일가 세거지에 위치한다. ‘ㅁ’자형 건물로서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기단 높은 마루가 보인다. 마루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좌측에 있는 방에는 판매하는 책들이 전시되어 있다. 판매하는 책들은 책방 주인이 직접 골라서 가져왔다고 한다. 공간이 좁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관심있는 책만을 전시하고, 책 표지에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을 고르기에 쉽도록 해 두었다. 마굿간은 까페 주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문을 하면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수 있도

33) 고려 개국공신인 권행(權幸)의 후손 가운데 한 갈래인 안동권씨 복야공파가 살고 있는 집성촌으로 특히 ‘가일권씨’라 불릴 만큼 안동권씨 중에서도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온 곳이다. 이곳에 있는 노동재사는 안동시 문화유산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 1770년(영조 46) 방숙 권구의 덕을 기려 지방 주민이 창건했으며 강당 정면 5칸 측면 2칸의 T자형 집으로 정문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소슬 3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고택과 책이 어우러진 공간인 이유로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잘 꾸며져 있다. 이 집 주인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여기에 비해 서원을 살펴보면 강당이라는 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동재와 서재는 각각 방이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각은 쉴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까페로 활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현재 서원을 북까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없다. 다만 현대식 건축물에 이름을 서원을 넣어서 운영하는 곳은 여럿 있다.

3) 서원스테이

향교와 서원을 합하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수와 비슷하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은 모두 968개소이다. 서원은 675개소, 향교는 234개소로서 909개소가 된다. 숫자면 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활용면 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이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푸른 자연이 살아있는 맑고 고요한 산사 그 곳에는 우리 민족이 피워낸 소박한 문화와 쌀 한 톨, 한 방울의 물에서 지혜를 찾은 깨달음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템플스테이를 찾은 방문객은 내외국인을 합쳐 2558명(내국인 1299명, 외국인 1259명)이었다. 그 후 10년만에 템플스테이는 100만명 시대를 맞았다. 엄청난 발전이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조금 주춤한 상태이지만 명상 등 관광의 새로운 패턴변화와 종교에 대한 시각적 변화 등으로 인해 템플스테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광상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서원을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서원 스테이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다. 지난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8년 1월 31일까지 1,548명이 참여하여, 서원이 고택 스테이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적이 있다.[34] 하지만 여전히 종교적 체험을 중심으로 사찰 스테이와는 달리 이용자의 감수성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유교를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지역정체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높은 기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서원 스테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근암서원에서도 지금까지 10여년간을 운영해 오면서 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보았다. 결과는 사용자 모두가 만족을 했다는 것이다. 향후 시설에 대한 보완을 조금만 한다면 스테이 공간으로서는 제격인 공간이다. 동재와 서재 공간에서 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한다. 근암서원 동재와 서재의 방은 전기 판넬로 되어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한 공간에 배치하였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는 많은데 화장실과 샤워실이 각각 한 곳이다 보니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처음 서원을 복원할 때 서원관계자 및 유림들은 동서재 내에 화장실과 샤워실 설치를 반대하였다. 전통적인 공간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몇 차례의 회의와 설득과정을 거쳐 시설을 넣기로 했는데 건립후에 유림들이 더 만족해 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서원 중 동재와 서재에서 실제 잠을 잘 수 있도록 정비 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위해 사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적이 있었다. 서원스테이도 정책적으로 결정만 된다면 시설 정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제도권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틀만 잡힌다면 비지정 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도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원 스테이를 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4)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MOU체결

34) 정정숙, 위의연구, p.30.

관내 교육청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육청 부속시설 또는 체험공간 활용장소로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래 서원이란 전통시대의 교육기관이다. 제향공간은 유림에서 활용을 하고, 강학공간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본다. 물론 건물의 보수와 유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맡아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학교를 관장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서원은 새로운 교육의 실험장소로도 적격이고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문경시에서는 서원 복설과정에서 미리 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2년여의 시간을 두고 서원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지도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공간이 절실했으며 당시 근암서원의 복설은 교육청으로 보아서도 좋은 기회였다.

당시 또 한가지의 고민은 운영을 하되 학생들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 문제는 퇴직 선생님 중 자원봉사 또는 전통교육에 대한 소양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맡아 주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다. 요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선에서 오랜 가르침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 문경 근암서원의 학생들 인성프로그램은 퇴직 교장선생님들께서 맡고 있다. 그리고 학교와 인원 배정은 교육청에서 일괄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지역에 서원이 없다면 향교 공간을 활용해도 된다.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되는 유림들과의 적절한 소통과 협의, 해당 지역의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는 서원과 향교의 활용부분에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되리라 본다.

결국 서원 활용시 가장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층은 초등학생과 청소년 들일 것이다. 근암서원의 예만 보더라도 출사동이 선비문화체험에 참여하는 학생은 대부분 초등학교 재학생들로서 교육청에서 관내 각급 학교에 협조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서원 활용사업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각 지역별 교육청임을 명심해야 한다.

6. 맺음말

근암서원은 다른 대부분의 서원처럼 대원군 시절 훼철 후 1970년대 후반 사당과 강당 등 1차 복원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에 완전한 모습을 갖춘 서원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지역 유림들의 오랜 염원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나 아쉽게도 유림들에 의한 활용과 운영에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제향만 맡게 되었다. 결국 근암서원의 활용과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부분은 문경시에서 맡게 되었다.

문경시에서는 자체행사로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했고,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관내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출사동이 선비문화 체험교실, 한자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전통혼례, 각종 세미나, 회의, 연수 등 다양하게 서원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복원된 서원이 근암서원처럼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 서원 관계자인 지역의 유림들은 선현제향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원을 항시 개방하여 사람들을 맞이할 계획은 없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점도 분명 있다. 서원 건축물 자체가 현대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사람들을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젊은 인재의 부재, 예산의 뒷받침, 상시관리 인력의 부재, 접근성의 불편함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올해 8월 18일 김형동 국회의원이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함을 목표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거쳐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서원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가 있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 핵심은 세가지이다. 전통서원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전통서원발전위원회의 설치, 전통서원의 지정 및 등록이다. 이 법률안은 현재 전통사찰 보존법과 비슷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이 통과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서원에 대한 보조를 할 수가 있다.

앞으로 서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모든 서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서원 활용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한정[35]되어 있고, 장소성에 있어 접근이 불편하거나 사우만 남은 곳, 해당 지자체의 관심 밖인 곳은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면 각 서원마다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서원은 더 이상의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각 지역마다 정체성이 되어 왔고 그 지역의 대표 인물들이 모셔진 공간이다. 우리가 보존해야할 우리의 정신과 공간이라면 새로운 방향으로의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35) 서원의 문화재 지정여부

유형별	비지정	문화재 자료	유형 문화재	기념물	향토유적	사적	민속자료	총계
서원수	405	144	51	42	21	10	2	675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경 근암서원 복원정비 기본계획』, 학술조사보고 제126책, 2009.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청대 권상일의 생애와 사상』,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2015.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우암 홍언충과 목재 홍여하의 생애와 사상』, 2016.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한음 이덕형과 사담 김홍민의 생애와 사상』, 2017.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활재 이구와 식산 이만부의 생애와 사상』, 2018.
문경시·근암서원운영위원회, 『문경의 구곡과 근암서원』, 2019.
이병훈,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과 운영- 조선후기 서원전승의 한사례」,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9.
이병훈,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운영 실태」, 『영남학』 73권, 2020.
이상호,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원 활용 방안 제언」, 『유학연구』 제3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2016.
이주형, 장석하,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2권 제3호 2006.03.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4. 7.
정하성, 「청소년 육성을 위한 종교시설의 활용방안」, 『한국청소년연구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8호, 1992.03.
진성수, 「전북지역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방안」, 전북대학교 철학과, 2016.
한국서원학회, 『한국서원학보』, 제8호, 2019. 6. pp129~141.

※ 참고자료 <청대일기에 나타난 근암서원 관련 기록>

연번	년도	월일	주요내용
1	壬午(1702, 肅宗 28)	2월 26일	서원에 홍목재와 김사담의 배향일을 논의함
2		4월 7일	근암서원의 봉안 제문을 대제학 권유에게 요청일
3	戊子(1708, 肅宗 34)	11월 3일	가친께서 근암서원을 사퇴하는 일로 향중에 단자
4	己丑(1709, 肅宗 35)	1월 4일	가친을 모시고 서원 재사에 감. 오늘이 알묘회임
5		1월 5일	용궁 권인중 어른과 권계가 서원에 왔기에 얘기를 나눔
6	辛丑(1721, 景宗 1)	1월 5일	근암서원에 모여 사당에 참배. 아픈몸을 이끌고 다녀옴
7		1월 20일	소청을 도남서원에서 근암서원으로 옮김. 소수가 권장
8	癸卯(1723, 景宗 3)	8월 9일	재임 통문을 써서 신태수에게 보내고, 한 재임은 도남서원에 가는 지정하여서 뽑기로 함
9		9월 8일	밤에 근암서원에 가서 회원들을 만나 보고 돌아왔다.
10		10월 20일	밤에 근암서원에 가서 황속에게 재임 통문을 써 보냈다.
11	甲辰(1724, 景宗 4)	윤4월17일	섬계 권장이 함창 채 첨지 집에서 근암서원에 오셨다
12		5월 20일	치증을 데리고 근암서원에 가서 문루에 앉아 연구를 지었다.
13		6월 27일	국범이 근암서원에 공부하러 오는 길에 홍씨 어른의 편지를 받음
14		10월 2일	근암서원 사람이 와서 지중의 짧은 편지를 전하였음
15		10월 20일	식산 어른이 근암서원에 오셨기에 찾아뵈었다.
16		10월 21일	식산 어른이 서원 편액을 새겨 거는 일로 김룡사에 가고자 나에게 같일 갈 것을 요청함
17		10월 22일	근암서원의 편액 새기는 일을 시작했다.
18		11월 29일	밤에 근암서원에 가서 재임의 통문을 써서 김세체에게 보냄
19		12월 15일	한밤중에 세수를 하고 제복을 입은 다음 명륜당 앞에 자리를 마련하고 북쪽을 향하여 곡하며 슬픔을 다한 뒤 사배를 마치고 파함
20	乙巳(1725, 英祖 1)	1월 2일	근암서원 인편을 통하여 식산 어른 및 치중 형제에게 편지를 써 부침
21		2월 1일	식산 어른 편지에 내일 근암서원에 왔다가 그 참에 우리 집 관례를 볼 것이라고 함
22		3월 13일	이 상사 아저씨가 지난번 근암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단연코 원장의 임무를 행할 뜻이 없어서 여러 차례 사임 단자를 내어 체임되었다.
23		4월 2일	저녁에 도연 이씨 아저씨 형제가 근암서원에 왔다기에 가서 뵈었다.
24	乙巳(1725, 英祖 1)	5월 1일	들으니 근암서원의 수석을 권점하여 해남 현감을 지낸 이천여를 선출하였다고 한다.
25	丁未(1727, 英祖 3)	1월 4일	밤에, 근암서원에 갔는데, 모인 인원은 30인이었다.
26		3월 7일	근암서원의 수석을 오늘 권점하여 상사 이경옥 어른을 선출하였다고 한다. 서원의 일이 정돈되고 수습될 수 있을 것이니, 다행이다.

27		윤3월14일	근암서원 원장이 자리에 나와서 가 뵙고 밤에 돌아왔다. 진사 이기룡도 와서 그의 백씨 어른의 편지를 받아 보았는데, 20일 도문연에 와서 만나 보기를 청하는 것이다. 답장을 썼다.
28		4월 1일	율리 이 진사, 소은천 권 원장 및 고서오가 도롱이를 쓰고 곧장 근암서원에 와 모였다. 들으니, 줄포 이씨 어른은 뜻 밖에도 장천에 사는 그의 외손주 상을 당하여 걸음을 멈추었다고 한다.
29	癸丑(1733, 英祖 9)	10월28일	근암서원이 이달 15일에 거재하기로 정하였으나, 여러 선비가 모두 사정이 있어서 일전에 비로소 왔다고 한다.
30	丙辰(1736, 英祖 12)	11월30일	서울과 지나온 길에 천연두가 크게 번져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암서원 근처에 머물렀다.
31	乙丑(1745, 英祖 21)	6월 7일	예천 김예이 상사와 이삼로 종숙이 지난달 북계서당에 와 머무르다가 그 참에 다른 곳을 둘러서 근암서원에 오셨다.
32		7월 15일	근암서원 원장이 왔다.
33		8월 1일	근암서원에 가서 원장을 만나보았는데 고순약도 왔다.
34		9월 4일	저녁밥은 먹은 뒤에 들으니, 지평 정도중이 나를 찾아서 우리 마을에 와 지금 근암서원에 머물러 잔다고 하여 가보고 싶지만 빌려 타고 갈 말을 구할 수 없고 또 날도 어두워져서 한탄스럽다.
35		11월24일	계부를 모시고 근암서원에서 기다렸는데 원장도 왔다.
36	丙寅(1746, 英祖 22)	윤3월24일	지인 이화국이 찾아 왔는데, 막 근암서원 원장이 되어 개좌에 나가는 것이다. 밤에 서원의 재사에 잠깐 나가 화국을 만나 보고 왔다
37		7월 12일	사촌 황재화가 근암서원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서로 만나서 조용하게 정담을 나누고 싶어 자고 가도록 만류했다.
38		9월 1일	근암서원의 원장이 보러 왔는데 도남서원의 향사가 이달 4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길을 나선 것이다.
39	丁卯(1747, 英祖 23)	6월 1일	배경과 자순이 보러 왔는데 서당의 순강을 고사하는 일 때문에 지금 근암서원에 머무르고 있다.
40		7월 12일	안맹호가 찾아왔는데 원장도 왔다. 어제밤에 □□ 조숙과 함께 근암서원에서 잤다고 한다.
41	戊辰(1748, 英祖 24)	5월 26일	유전 삼로 종숙께서 지나다가 들렀는데, 어제 북계에서 근암서원에 와 자고 지금 도곡으로 향하였다.
42		10월 6일	수계소의 경로회에 갔다. 이일은 지난번 대승사의 접회 모임에서 여능이 앞장서 주장한 것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좋다고 하여, 1년에 근암서원 별소와 영빈서당 별소에서 나는 곡식 열섬씩을 각각 덜어내어서 봄 가을로 두 번 모임을 갖기로 한 것이다. 회원은 예순 살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규례를 정하고 수좌는 용휴 노형이며, 모두 14인이다. 해여와 광국을 판공 유사로 삼았다.
43		11월 13일	근암서원 원장이 류여문과 함께 찾아왔다가 갔는데 곧바로 사람과 말을 보내 왔기에 근암서원 재사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인 사람은 십여 인 남짓이다.
44	己巳(1749, 英祖 25)	2월 2일	반계서당에서 일찍 길을 나서 돌아오다가 막곡 앞에 이르러 길에서 외남 곽사종을 만났다. 그의 9대조 진사공의 묘갈문을 청하려고 그저께 근암서원에 왔다가 비를 만나 하루를 머무르고 지금 막 반계서당을 향하여 떠난 것이라고 한다.

45	己巳(1749, 英祖 25)	8월 2일	아침에 근암서원에 가서 헌관에게 통문을 써서 보냈다.
46	己巳(1749, 英祖 25)	11월 23일	저문 뒤에 풍산 이□진□ 군이 찾아와서 어제 근암서원에서 잤다고 말하였다. 들으니 김룡사에서 공부하던 모든 사람들이 절에서 걸어 내려왔다고 한다. 이는 백화사의 중 두 명이 병으로 죽어서 마음속으로 놀랐기 때문이다.
47	辛未(1751, 英祖 27)	윤5월 1일	들으니 오늘 훈장이 면 안의 순제를 근암서원에 모여 고사한다고 한다.
48	壬申(1752, 英祖 28)	6월 15일	참봉 이자순이 근암서원에 들러서 분향을 하고 보러 왔다.
49	壬申(1752, 英祖 28)	7월 16일	들으니 서당 거접은 근암서원을 빌려서 오늘 옮겨 들어 갔는데 서당 마을이 전염병으로 불안해서이다.
50	癸酉(1753, 英祖 29)	2월 16일	근암서원 임원도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위로하고, 도남서원 재임도 와서 어쩔 수 없어서 밤에 서원 재사에 가 재임 한 사람을 선출하고 또 헌관에게 통문을 쓰고 곧바로 돌아왔다.
51	癸酉(1753, 英祖 29)	3월 8일	근암서원 향례가 임박해서 원장과 재원이 연이어 보러 왔다.
52	癸酉(1753, 英祖 29)	8월 2일	고재임이 오고, 근암서원 원장도 왔다. 오전에 나아가니 모인 인원이 10여인이다.
53	甲戌(1754, 英祖 30)	윤4월27일	상주 목사가 근암서원에 체문을 내렸다.
54	甲戌(1754, 英祖 30)	5월 2일	근암서원 원임이 모두 모여 관아에서 내린 체문에 따라 유생이 소재한 면의 서당에 통문을 발송하고, 똑 각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강회 날짜는 이달 17일로 정하였다.
55	乙亥(1755, 英祖 31)	1월 4일	새배 손님과 근암서원 알현으로 아주 복잡하고 소란스러워서 조용히 조섭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56	乙亥(1755, 英祖 31)	8월 13일	근암서원 원장이 보러왔다. 도남서원에서는 근래 풍파가 일어나 수임과 부임이 다 패지를 보내어 스스로 물러났다.
57	丙子(1756, 英祖 32)	6월 28일	존도서와에 설사와 이질이 돌고 있어 근암서원 재사로 옮겨 머무른다. 다음 달 초1일 서원내 별도의 장소로 들어와 모여 거접한다고 한다.
58	丙子(1756, 英祖 32)	11월 9일	근암서원 경로회를 열었다. 문징. 여능 등 여러사람이 보러 왔다. 아홉 노인이 왔다고 한다.
59	丁丑(1757, 英祖 33)	2월 22일	오후에 예방 아전의 고목을 받아 보니 감영의 관문이 당도하였다고 한다. 곧바로 근암서원으로 가서 명륜당 앞뜰에서 거행하였다. 원장 원장 상시가 오고 모인 인원도 10여인이다. 그 길로 재사 방에 머물렀다.
60	丁丑(1757, 英祖 33)	3월 20일	나라에 큰 경사가 있는 데다 큰 슬픔이 있으니 글을 올려 진술하는 것은 분수와 의리에 있어 그만 둘 수 없다. 그러므로 근암서원에 갔는데 원장도 왔다.
61	丁丑(1757, 英祖 33)	4월 1일	이번 성복은 당연히 전패 앞 곡반하는 곳에서 해야 하나. 근력이 부축하여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근암서원에 가 할 계획이다.
62	丁丑(1757, 英祖 33)	12월 9일	인근 지역의 여러 사람이 근암서원에 모여 곡반을 행하였다.
63	戊寅(1758, 英祖 34)	6월 2일	비경과 용여가 근암서원에 모여 면 안의 순제를 채점하였다.
64	己卯(1759, 英祖 35)	5월 1일	오늘 국담(인현왕후 김씨의 담제)를 지내고 근암서원에서 조촐하게 곡반을 행하는데, 병으로 가서 참석하지 못하니 너무나 황송하다.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 토론문

김 제 근
(달성군청 학예사)

엄선생님의 발표문은 금암서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특히 지역 유림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근암서원을 복원하고 나아가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까지의 과정은 서원의 전통적 가치와 경쟁력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서원의 진정성 있는 활용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의 관계자와 지자체가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엄선생님의 연구는 향후 9개 서원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요긴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자 또한 발표문에 제시된 내용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개인적으로 생소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많은 공부가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다만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에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토론보다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진정성 있는 서원의 활용을 위해 앞으로 고민해야 할 방향을 간단히 밝히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서원 운영의 모범사례 : 근암서원

근암서원은 드물게 지자체가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된 경우이다. 문경시에서 서원의 복원과 보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통적 서원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과 외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은 다양

한 내용의 지역문화 알리기 사업을 진행해왔다.

여기서 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우선, 인문학 아카데미, 한자왕 선발대회, 선비문화 체험교실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요인이 지자체가 직접 서원을 운영한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정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도 알고 싶다.

다음으로는 홍보에 관한 것이다. 근암서원의 활용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했을 것이다. 잘 차려진 밥상이 준비되어 있어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토론자는 서원의 활용에 있어 운영도 중요하지만 홍보 또한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경시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방법이나 전략을 사용했는지 궁금하다.

[표1] 근암서원의 활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기	운 영 내 용
서원 스테이	연중 상설	– 목적: 전통문화체험, 전통보존 및 민족성 고취, 서원기능 회복 – 방법: 전통예절, 심신수양, 경전읽기,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일일체험,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 제공
서원 아카데미	상시 운영	– 목적: 연령과 유형별, 이용단위별로 인성교육과 심성도야 목표 – 방법: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초급한문, 명심보감, 소학 등), 성인들의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수련, 체험 프로그램
한자왕 선발대회	매년 1회	– 목적: 전통교육에 대한 이해도모와 지역의 학생들의 한자 교육 – 방법: 매년 9~10월경 관내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추진, 향후 행사규모를 확대하여 운영 계획
사회단체 행사개최	연중 개최	– 목적: 관내 각 사회유림단체에서 추진하는 전통행사, 정기총회 등의 서원에서의 개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서원 활용
예술공연 개최	연중 개최	– 목적: 각종 음악회 및 예술 공연을 년 중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자는 취지
출사동이 선비문화	연중 운영	– 목적: 지역 초중학생들에게 선비들의 생활과 정신을 체험 제공 – 방법: 선비복장입기 체험, 선현뵙기, 인성교육, 전통놀이체험

2. 서원 활용의 중요성

서원은 조선시대 400여년간 학문의 중심지이자 향촌의 문화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장소이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은 오랜 역사와 전통, 제향의식, 배향인물의 사상과 철학, 인적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뛰어난 경관과 공간적 입지(배치), 건축의 우수성, 다양한 기록유산의 보존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정신문화 및 인문학적 소양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인 서원의 가치와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서원의 전통적 가치는 현대에도 계승되고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서 충분한 가치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서원 활용의 당면 과제

기존 서원 활용과 관련한 용역보고서나 연구자들의 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활용 시설의 확보, 전문 인력 확충,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적절한 홍보 방안 마련, 관련 예산 확보,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3-1.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일반인은 서원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곳이고, 유교는 봉건시대의 잔재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서원의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 서원에서 배출된 인물들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충실했던 당대의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인격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대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선비'였다. 근자에 들어 선비들이 추구했던 인격 수양과 청렴함을 '선비정신'의 요체로 규정하고, 이를 도덕적 해이와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적인 병폐를 해소하는 돌파구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

다. 어느 외국인 학자는 "선비는 현대사회의 이상적인 지식인상이며, 한국인뿐 아니라 전 인류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선비정신에 녹아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서원 활용과 유교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국민 정서에 맞추어 유교의 폐쇄적이고 권위적 모습을 해소하고, 이미지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역 내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작은 사회적 기여나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3-2. 활용 시설 및 인적 자원의 확보

서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 즉 화장실, 세면장, 숙박시설, 식당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서원 건축과 조화를 이루며 신축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에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면밀한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향에 필요한 인력은 유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교육과 체험 등의 활동에 필요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서원의 운영주체가 연로한 문중이나 유림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원관리단에서 수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서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은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강사로 초빙한 문경 근암서원의 사례는 지역의 교육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인 경우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어느 문화재 활용분야 전문가의 말처럼 전문가와 청년이 빠진 활용사업은 지속성, 자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4. 서원 활용의 다양성 모색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유산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해도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해 발길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 가치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세계유산에 걸맞는 서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원에 담긴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 시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속에 서원의 이야기를 담고

그 의미와 가치가 전달될 수 있게 만들어야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찾게 만들 수 있다.

4-1. 배향 인물, 이야기의 콘텐츠화

서원에 배향된 인물과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공모전 등을 통해 각 서원의 배향 인물, 서원의 역사나 사건 등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한다면 서원의 홍보와 활용에 있어 다양성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최근에 도동서원에 배향된 한훤당의 이야기를 창작연극으로 만든 「소학동자 김굉필」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연극은 다소 산만한 성격의 초등학생이 도동서원을 찾아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데, '소학은 모든 학문의 입문이며 기초인 동시에 인간교육의 절대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을 역설하며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칭했던 한훤당과 만나게 되고 '소학'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소학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은 수용 대상에 따라 동화책, 만화책,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향 인물의 사상, 서원의 이야기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영상, 이미지 등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유소년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흥미와 교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4-2. 첨단 문화기술(CT) 기반 콘텐츠 구축

현재 서원 활용사업은 체험형 콘텐츠가 대부분이다. 현재 9개 서원의 활용사업을 살펴보더라도, 초·중·고 및 대학생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3,40여명의 참여자를 미리 신청받아 예절과 다례, 사자소학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또 서원의 풍류를 이어가기 위한 인문학 강연과 전통문화 프로그램, 문화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지만, 시각적인 콘텐츠 발굴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그 해결책으로 첨단 문화기술(CT:Culture Technology)을 적용하여 현대적 맥락에

맞게 서원의 가치 및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서원 환경에 최적화된 서원 앱(App)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서원 관련 정보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원의 내·외부 3D스캔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이버 공간 내에 서원 뮤지엄을 만들 수도 있다. 각종 디지털 자료를 가상의 공간 내 위치한 건축물의 내·외부에 전시하여 이용자가 가상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시물을 관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전시(Digital exhibition)는 이미 몇몇 문화재나 박물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 활용에 있어 중요한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 2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관광

영감의 공간으로서의 서원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

노 수 경[1)]

들어가며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만 3년이 지났다.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 인류가 보다 소중하게 아끼고 지켜야 할 유산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제 「한국의 서원」이 우리만이 숨겨둔 보물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유산으로서 서원을 보존하고 그 정신을 기리며 더 많은 노력으로 이 곳을 알려야 할 숙제를 얻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을 지닌 국가와 도시들은 세계유산 지정이 갖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보존, 활용, 교육, 관광은 세계유산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논점이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한계에 당면한다. 보존과 활용은 간수와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양날의 검'으로 문화재계의 화두가 되어왔고, 교육과 관광은 지식과 기술, 인성 등 사람을 기르는 깊이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반면 관광은 여가의 일부로서 좀 더 가벼운 흥미요소로 다뤄진다. 때문에 문화재, 문화유산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더 보수적인 차원에서 접근되는 보존과 교육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과 관광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에 유네스코가 발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부연구위원. nhosk@kcti.re.kr

(UNESCO World Heritage Sustainable Tourism Toolkit)』에서는 총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 있다. ▲목적지 관광의 이해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효과적인 거버넌스 개발 ▲지역사회 및 기업 참여 ▲방문객과 소통 ▲관광 인프라 개발 관리 ▲상품, 경험 및 서비스를 통한 가치 부가 ▲방문객 행동 관리 ▲자금 및 투자 확보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공 모니터링이 바로 그 것이다. 즉,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발전 기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만, 유산의 가치와 훼손, 지역 주민의 삶 침해(overtourism)를 우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은 이제 모든 방면에서 시작점에 놓여 있다. 때문에 목표와 방향성을 갖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본고에서는 서원이 갖는 현대적인 의미와 가능성을 짚고 산재한 과제를 돌아본다.

'누가'의 핵심, 거버넌스

「한국의 서원」은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이다. 초기에 사립학교였던 중국 서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관학'이 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 서원은 처음부터 줄곧 '사립'이었다. 중국 서원이 관료 양성에 뜻을 모았다면, 한국의 서원은 선현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학문을 배우고 인격을 닦았다. 한국의 서원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제향'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으로 제자나 후손들은 그 학문과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원에 남아있는 고서적, 고문서, 목판 등에서 그 지적 활동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제향 물품과 기록문서에는 옛 생활문화가 녹아있다. 특히 책을 펴내거나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서원은 현대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서원」에는 바르게 다듬어진 지성과 성숙한 정신문화가 서려 있다. 선비들은 자연을 통해 사색하고 깨달음을 얻고 둘러앉아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책을 펴내고 문화예술을 꽃피웠다. 또한 의병이 모여 격문을 짓고, 임금에게

올리는 차갑고 대쪽 같은 '연명상소'를 위해 당당하게 붓을 들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의 서원」에는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자연,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역사, 교육, 제향, 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담긴 것이다.[2)]

「한국의 서원」은 사림이라는 향촌 지식인 잡단에 의해 운영되고, 이 사림은 지방사회를 주도하는 계층으로서 도덕성, 청렴함, 사회모범적인 태도로 사회 지배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한 세력이다. 서원을 구성하는 재정도 이러한 사림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마련했다. 조선시대 조정은 일부 서원에 대해 특별히 편액을 하사하여 합법화 한 사액 서원과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서원을 구분하는 정책을 시도했는데, 「한국의 서원」은 모두 사액서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갖는 서원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사액서원은 서적, 토지, 노비의 제공이 이뤄졌는데 이러한 지원이 서원의 운영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았다. 즉, 사액서원은 정부의 '팔길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엄격한 거버넌스를 갖춘 조직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국의 서원」의 역사적 배경과 세계유산으로서의 독보성을 짚어보았을 때, 서원을 구성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아닌, 민간이었으며 특히 지역주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들은 앞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자체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었던 것이다.

'거버넌스'는 일방적·계층적 통치를 의미하는 '정부'와 달리 종래의 계층제(관료제나 전통적 형태의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 등 확장된 여러 유형의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관계양식에 토대하는 국가운용방식이다.[3)] 거버넌스는 현대적인 용어이지만, 계층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서원은 일방적 통치가 아닌 시민사회의 의지로 구성되는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원은 세운 이,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 존경받고 기려지는 대표 인물, 그리고 노동력까지 모든 것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적인 방향성도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서원의 1차적인 고객은 지역사회다. 이 곳에서 어떠한 이

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참조 및 재구성(http://k-seowon.or.kr/)
3) 정정길 외(2020), 『정책학원론』, 260쪽 발췌

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시행 주체와 방문자, 재원조달까지 모든 첫 걸음은 지역에서의 관심과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 에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대해 이렇게 제시한다.

"관리 구조에 대한 청사진이란 없다.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들은 무엇이 좋은 관리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조직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들을 목적지 규모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한편, 「한국의 서원」 은 등재 신청 당시 역할 분담과 구성을 아래 <표 1>과 같이 제출했다.

<표 1>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역할 분담 및 구성

구분	이행 기관	역할	구성
총괄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세계유산 관리 총괄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세계유산팀, 보존 정책과
통합관리	이사회	•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전반에 대한 의결 –세계유산 권고사항 이행 –통합관리계획 자문	광역, 기초, 서원, 학술전문가
	사무국 (서원관리단)	• 위원회 운영 및 통합관리 실무 주체 –서원OUV 보호 및 유산 모니터링 관리 –유산 전시, 교육, 홍보	사무국
현장관리	광역자치단체	• 신청유산의 현장 관리 –현장에서 서원관리 직접 수행 –서원 관리단 행정 및 재정 지원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관리단 포함)	• 신청유산의 현장 관리 –현장에서 서원관리 직접 수행	달성군, 논산시, 정읍시, 장성군,

		–서원관리단 행정 및 재정 지원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함양군
	서원 운영자	• 서원 운영 –서원 운영위원회 개최 –제향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9개 서원

*출처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2018),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47쪽 발췌

그리고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결정문의 권고사항에는 a.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 완료, b.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서 통합하기 위한 해설 개발이 있다. 통합관리계획 상의 역할 및 업무에는 문화재청이 총괄을 하며, 통합관리를 이사회와 사무국(서원관리단)이 수행하며, 현장관리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서원운영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 돼 있다. 여기서 통합관리주체인 서원관리단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서원 운영자 협의회 및 주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서원」은 총 6개 광역자치단체, 8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다. 서원이 포함된 지역사회는 좀 더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의견 수렴과 주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선조들이 서원을 운영하는데 활용했던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톺아보는 것은 「한국의 서원」이 가진 고유한 무형 콘텐츠를 기억함과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관광 자원으로서의 기반을 닦는 것이다. 때문에 '거버넌스의 구축'을 서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제안한다. 이 거버넌스 안에는 교통, 인프라 등 재원을 포함하여 공동의 목표, 상호 간의 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즉, 「한국의 서원」의 비전을 공유하는 가장 기초 단계인 것이다.

자료의 축적과 큐레이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가장 선행한 것은 기존 자료의 수집과 정리다.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서원이 가진 가치와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자료이자 분야의 확장, 더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한

국의 서원」 도 현재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자료의 축적 방식과 수요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큐레이션'과 자료의 디지털화는 그러한 의미에서 짚어봐야 할 이슈다.

큐레이션(curation)은 여러 정보를 수집, 선별하고 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큐레이터(curator)는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큐레이션과 디지털의 합성어로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데이터 큐레이션과 디지털 보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2001년 런던에서 개최된 'Digital Curation : Digital Archives, Libraries and e-Science' 세미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4] 큐레이션은 단순 정보 수집을 넘어 개인 선별을 하여 공급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문화재청도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디지털기반 전환'을 목표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과학적 보존관리체계 구축, ▲문화유산 데이터 댐 구축 및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대에 발맞춘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면, 「한국의 서원」 은 이러한 기술력을 수용할 수 있는 배경을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 특히 문화재청은 원형기록 DB구축과 문화유산 지식정보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양날의 검을 모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자 눈높이와 상황에 따라 지능형으로 안내하는 문화재 안내봇(가칭 Dr.Heritage)의 개발과 한양도성이나 경주 등 역사도시에 과거 역사 속 문화재와 인물, 사건 등을 시공을 초월하여 경험하는 '메타버스 타임머신' 시스템 등의 도입 준비는 「한국의 서원」 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충실한 자료의 축적과 많은 주체들이 포함된 의견 수렴, 지속적인 서원 중심의 역사 연구 그리고 고증에 근거한 볼거리, 먹거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데이터화하고 필요에 맞게끔 큐레이션 할 수 있도록 자료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2D방식의 도면과 지도를 4D로 구현하거나 한자로 된 자료를 국문과 영문 등으로 변환하는 작업 등이 가장

4) 노수경(2015), '디지털 큐레이션의 현황 및 금오서원 적용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 연구」, 제5호 발췌

기본적인 추진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표 2> 문화재청 디지털기반 자료활용 관련 사업 요약

주요과제	실행과제	세부 내용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디지털 기반 전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과학적 보존관리체계 구축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 –차세대 정보시스템 전환(GIS) •문화유산 데이터 댐 구축 및 서비스 –문화유산 원형기록 –문화유산 지식정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보급 –시대별 4차원 공간 조성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	•코로나 시대 국민의 쉼이 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활용 힐링콘텐츠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유산 안심 향유 –궁궐 활용프로그램의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개발 –비대면 입장시스템 확배 –로봇 해설사 도입

*출처 : 문화재청(2021). '2021주요업무계획' 발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목적지 관광의 이해'에서 다루는데, "주요 데이터 및 증거를 한 곳에 모아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누가 데이터/정보 격차를 메울수 있는가?'에 대한 자답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내고 연계시키고 연결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해야하는 장기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자료의 축적과 큐레이션이 가능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셈이다. 수요자의 필요를 찾는데에서 관광은 시작하는데, 어떠한 목적의 관광객이 방문해도 맞춤형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술적인 면모 외에도 「한국의 서원」이 자체적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방문 목적, 기대 효과, 만족도, 역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등 현재의 서원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한다. 큐레이션의 핵심은 다양성과 맞춤형이다. 서원의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교육과 관광의 사이에서, 메타버스 스토리텔링

서원의 가치는 민족의 정신적인 뿌리와 함께한다. 때문에 서원의 전통교육 프로그램은 선비정신, 인성함양, 사군자, 예절, 한옥체험 등을 주제로 추진되어 온 것이 돋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서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문화재청의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내년도 2022년 사업까지 선정하였다. 향교·서원 문화재와 배향인물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인데, 2021년 선정된 사업을 일부 검토한 결과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다양성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보였다.

<표 3> 2021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중 서원 프로그램

광역	기초	대상문화재		사업명
시도	시군구	국가지정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국가민속,등록)	시도지정	
대구	달성군	달성도동서원중정당·사당·담장(보물제350호) 달성도동서원(사적제488호)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

경기	용인시	심곡서원 (국가사적530호)	충렬서원 (경기도유형문화제 제9호) 양지향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3호)	조선의선비정신, 용인에서꽃피우다
충북	괴산군	화양서원 (사적417호) 화양구곡 (명승110호)		화양서원 1박2일 선비체험
충남	논산시	돈암서원(사적 제383호)		돈암서원 예 힐링캠프
전북	정읍시	무성서원 (사적166호)		최치원의사상과 현가루의풍류를 찾아서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 (사적제242호/유네스코세계유산	장성향교(전남도문화재제105호)/고산서원(전남도기념물제63호) (시기념물9호)	청렴,절의,의기찾아떠나는 선비문화체험여행
경북	경주시	옥산서원 (사적154호)	서악서원 (경상북도기념물19호)	서원(書院)에서 배우는 21C 문화리더쉽
경북	김천시		김산향교(도 유형463호), 지례향교 대성전(문화재자료118호), 개령향교 대성전(문화재자료119호)	오얏꽃향기 향교를 꽃피우다
경북	안동시	도산서원 (사적170호)		2021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도산서원과함께하는선비의삶-
경북	안동시	병산서원 (사적260호)		2021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묵계서원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19호)	꼬마도령의 놀이터 묵계서원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사적 제55호)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스테이 프로그램
경남	함양군	남계서원 (사적제499호) 일두고택 (국가민속문화재제186호)		백세청풍(百世淸風)을 탐닉하다

*출처 : 문화재청, '2021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선정목록' 중 일부 발췌

이밖에도 서원은 지자체와 함께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서원을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로 본연의 교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현장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되었는데, 일부 프로그램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비대면 활용 실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코로나 발생 이후의 시기인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야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였고, 학교수업조차 비대면이 익숙해진 세대들을 겨냥한 교육 방식의 변화는 서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비대면으로 서원의 공간을 향유하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세계인들을 온라인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디지털 박물관, 온라인 박물관을 구현할 때 2010년대까지의 이슈는 AR, VR의 구현, 인터렉티브 맵(쌍방향 지도, 사용자에 의해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실감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기반은 디지털화의 기반이 되었고 자원을 친숙하게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초자료로 역할을 했다.

[그림 1]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제공하는 인터렉티브 지도 “서원의 하루”

즉, 현대적인 친숙한 방식으로 가장 전통적인 공간을 선보임으로 인해 심적인 거리감을 좁히는 데 기여한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의 서원」을 선보이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

2021년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는 메타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타버스는 Meta(초월)과 Universe(우주)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하는 플랫폼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우 크래쉬』(1992)에서 용어와 초기 개념이 제시된 이후 현재에는 다양한 산업과 사회분야로 확장하며 소비와 생산이 서로 선순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로 통용된다.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개념으로는 가상공간에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을 ‘맵’으로 구현하고 이 곳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사의 ‘제페토’가 대표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3D 오픈월드를 기반으로 10대 이상 어린이, 청소년

층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게임으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로블록스는 2분기 월 이용자가 약 2억 6백만 명이고 마인크래프트는 1분기 기준 약 1억 4천만 명, 포트나이트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약 8010만 명이 이용한다.5)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2020년 청와대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마인크래프트에 청와대 맵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가상공간에서 청와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도 2020년에 언택트 어린이 박물관 마인크래프트 게임 서버를 오픈해 게임과 역사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상 공간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림 2] 마인크래프트에 구현된 청와대

*출처 : 청와대 유튜브 직접 갈무리 (https://youtu.be/Lk92k_k1HMA)

[그림 3]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하는 어린이박물관 마인크래프트 맵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직접 갈무리 (https://youtu.be/PLaVgd_j-9Y)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의 구현이 기존의 게임과의 접목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고증에 의한 정확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물론 기존의 게임 콘텐츠도 역사적 고증에 의한 사례가 많았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한 구현은 더 정밀하고, 가상세계에

5) 이원용, "'일일 이용자 4800만' 로블록스, 게임을 넘어 '진정한 메타버스'로", 글로벌이코노믹, 2021년 10월 13일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1013174217577c5fa75ef86_1&md=20211013180257_R)

실제 자신의 존재를 심어 현실공간의 모방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접근하고 있다.

문화재청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문화재청은 2022년부터 디지털 뉴딜 정책기조에 동참하고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접목한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메타버스 타고 월봉유랑하자'(향교·서원 문화재, 메타버스) 등의 사업 지원이 예정 돼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서원」이 준비해야 할 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해 앞선 '스토리텔링'이다. 건축과 경관은 현실에 근거하여 가상현실세계에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 공간이 추구하는 의미성은 스토리텔링에서만 얻을 수 있다.

> "필암서원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육 공간 안에 있는 '경장각(經藏閣)'이다. 이곳 귀공포 상부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두(龍頭)를 꽂아 매우 화려하게 치장했다. 전통 목조건축에서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 데 짜 맞추어 댄 나무 부재를 공포(栱包)라 한다. 이 곳에 용두를 의장적(意匠的) 표현으로서 장식한 것은 왕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 인종이 내린 묵죽도(墨竹圖)가 보관되어 있기에 이곳을 용머리와 국화문으로 조각한 것이다."[6]

서원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얽힌 스토리는 아직까지 무궁무진하다. 서순복이 짚어낸 필암서원의 스토리텔링의 사례처럼 이용자의 이해 수준에 맞는 언어로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을 발굴한다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다양한 매체에 대응한 문화유산의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나가며

아름다운 경관을 기반으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은 「한국의 서원」이 단지

6) 서순복(2021), 『한국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475쪽 발췌

스쳐가는 정원이 아니라 다양한 영감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길 바란다. 본고에서는 서원이 지향해야하는 가치를 '영감의 공간'으로 정의한다. 이 공간성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로부터 출발해야하며, 특히 서원과 밀접한 지역사회가 이러한 가치를 수용하고 공감하여 '서원 문화'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관광이 시작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피력한다. 그리고 동시에 서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 축적을 통해 큐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메타버스와 같은 확장된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육과 관광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한국의 서원」 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들과 서원의 가치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노력 끝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이 곳을 찾는 1차 관광객은 지역주민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원은 문화기반시설로서, 공동체의 정신문화를 공유하던 문화의 장으로서 기능한 곳이다. 서원의 역사성과 깊이 있는 의미에 공감하는 이들이 서원이 더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아마 이 곳이 현대의 우리가 체감하는 것 보다 더 사람 친화적이고 북적이는, 많은 문화를 담은 복합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현대적으로, 가상공간에서 구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방향성에는 기술적인 접근에 앞서 서원의 정신을 담은 스토리텔링 발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고남(古南)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금오서원(金烏書院) 앞의 못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서원의 묘우와 여러 재에 들어가 보니 한결같이 옛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퇴락한 모습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니 그저 탄식이 일어날 뿐이었다.
>
> – 노상추일기, 1768년(영조44) 4월 10일[7]

7) 이수환(2018), '『노상추 일기로 본 선산지역의 서원』, 2018 지역문화유산과 선비정신 학술포럼 자료집 발췌

모든 문화유산은 위기를 견뎌왔고 기회를 가졌다. 조선의 무관 노상추는 영조 44년에 삶터 인근 서원의 퇴락을 우려하였지만 2021년 현대의 우리는 여전히 서원과 함께 존재한다. 서원은 한결같이 이 곳에 있으니, 다시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한국의 서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일 것이다.

참고문헌

노수경(2015), '디지털 큐레이션의 현황과 금오서원 적용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 연구」, 제5호

이수환(2018), '『노상추 일기로 본 선산지역의 서원』, 2018 지역문화유산과 선비정신 학술포럼 자료집 발췌

문화재청(202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서순복(2020), 『한국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박영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20),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

정정길 외(202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참고사이트

이원용, "'일일 이용자 4800만' 로블록스, 게임을 넘어 '진정한 메타버스'로", 글로벌이코노믹, 2021년 10월 13일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1013174217577c5fa75ef86_1&md=20211013180257_R)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http://k-seowon.or.kr/

문화재청 http://cha.go.kr/

<영감의 공간으로서 서원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에 대한 토론문

정 수 희
(덕성여자대학교)

먼저, '한국의 서원' 관련 저명한 연구자들의 고견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대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수환 교수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수경 선생의 <영감의 공감으로서 서원 –관광문화와 서원 콘텐츠–>는 한국의 서원을 새로운 시대의 문화흐름과 연결하여 통찰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정과 함께 그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서원'을 활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문화흐름과 정책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원의 운영방식과 특징을 현대의 문화정책 전문가의 시각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의 원형으로 해석하고 접근한 부분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 현대의 서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가 여전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공감할 만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문화유산으로서 서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존과 활용, 활용의 방법으로서 교육과 관광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교육과 관광의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이 가진 특징과 가능성, 그리고 확장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재청에서는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을 운영하며 서원이 가진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와 같이 전문 연구자 들 역시 서원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의미들을 학술적으로 탐구하려는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적 맥락에서의 서원의 가치 발

굴과 공유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서원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광은 이러한 서원의 가치를 좀 더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도구입니다. 앞서 교육적 의미로서의 서원활용사업들이 서원의 역사성과 가치, 정보전달의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면, 관광은 서원이 가진 장소성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수경 선생의 연구는 이런 서원의 장소성을 온라인, 더 나아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으로의 확장으로 연결합니다. 서원의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놀이적 요소로서 서원을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원에게의 영감뿐만 아니라, 토론자인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제공해주신 본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은 드리며 연구자의 고견을 좀 더 듣고자 합니다.

1. 우선, 선생님께서는 서원 관광화의 기본 단계로서 자료의 축적과 큐레이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콘텐츠의 개발에 있어 선제되어야 할 중요한 기초 작업임에는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료의 축적만으로 관광이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료를 기반으로 매력적인 콘텐츠로서의 해석이 오히려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지요.

최근의 관광을 접근하는 시각이 다양화되며,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양한 관광수요자들의 특성에 맞는 서원을 방문할 만한 동기부여, 서원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한 노력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관광콘텐츠로서의 서원관광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의 관점에서 서원을 대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매력적인 소비의 대상으로 서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문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서의 서원관광콘텐츠의 차별성은 과연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지요. 기존의 서원활용프로그램, 답사형 문화유산관광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콘텐츠로서의 서원관광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두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 선생님의 의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원의 공간적 확장과 가능성의 발견의 측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원관광을 메타버스와 연결하여 제안하신 부분은 최근의 정책이슈와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소개해주신 대로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 및 기관 등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적용이 서원을 공간성을 확장하고 다양한 시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원은 실재하고 이어져온 공간으로서 갖는 의미가 가치를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기에 메타버스로 치환되기 어려운 현장성 또한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와 문화유산의 결합이 기술 중심의 체험형 결합에 치중되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새로움과 재미 요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봅니다.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메타버스의 공간이 기존의 게임적 공간과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 공간의 사실성에 근간을 둔 치밀한 고증과 재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현된 공간과 실재의 공간을 연결하는 다차원적인 공간활용의 측면에서 서원을 활용한다면 서원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다양한 대상에게 전달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기대해봅니다.

3. 세 번째는 다시 관광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접근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관광과 교육의 차이점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교육이 크게 교수자와 교육대상자라는 이분화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관광은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성됩니다. 특히, 지역과의 관계성이 관광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의 경우, 역사적 정체성에 있어 지역과의 긴밀한 관계성이 돋보입니다.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서원콘텐츠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요. 관광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지속성의 관점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부족한 식견에 다소 두서없는 질문을 드립니다. 유익한 연구와 고견, 감사합니다.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국내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

방 미 영
(서경대학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교수)

목차

1. 머리말
2.. 향교. 서원 관광체험 프로그램 현황
3. 향교. 서원 관광체험 활성화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의 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었다. 한국은 1950년 6월 14일 자로 55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고, 2021년 가입한 지 71주년이 되었다. 세계유산에 대한 근거는 1972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두고 있다. 한국은 ‘한국의 갯벌(2021)’, ‘한국의 서원(2019)’,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남한산성(2014)’,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조선왕릉(2009)’,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2002)’, ‘경주역사유

적지구(2000)', '수원화성(1997)', '창덕궁(1997)', '석굴암과 불국사(1995)', '종묘(1995)', '해인사장경판전(1995)' 등 15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1)]

세계유산은 모든 인류가 함께 보호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가치 있고 중요한 유산이다. 세계유산의 등록은 5천 년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세계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특히 '한국의 서원'은 중국과 동아시아권에서 공유하고 있는 성리학 사상을 유무형으로 발전시켜 역사적 건축물과 무형의 문화자원을 현대에까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2)] 특히 향교와 서원이 전통문화에 근간을 두고 있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문화의 원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문화 계승에서도 유산적 가치를 더한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개의 서원이다. 그러나 전국에 남아 있는 234개의 향교와 500여 개의 서원은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젊은 층에 매력적인 전통문화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고령화되어가는 향교와 서원이 지역문화의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인들로부터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게 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갖고자 한다.

2. 향교·서원 관광체험 프로그램 현황

'한국의 서원'을 필두로 향교와 서원이 지역의 문화유적 명소로 관광 수요층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2018년 국민여가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화유적 방문율이 33%

1)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hl=ko&mid=1OyJ4knFa4JZB-V4O2CoaUHAz65vORMdP&ll=36.91135586140775%2C127.23306113735725&z=9 (2021.10.5.)

2) 이상해,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서원학보 제9호.

를 차지한 점에 근거를 둔다.[3]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지원사업을 통해 향교와 서원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도 관광 수요층 확대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문화재청이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목적은 '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 정립', '정신 문화재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 '향교·서원 문화재를 지역 사회의 대표 문화재 활용 자원으로 육성', '자립적·지속적·체계적 활용체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다. 문화재청의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은 '문화재 향유에 이바지하는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가?'의 목표를 위해 인성교육(인문학 강좌)과 예절교육(전통의례), 음악회(국악, 클래식), 민속공연(무용, 연극) 등 4개의 영역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된다. 이를 위해 향교와 서원은 '문화재와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 등 내재적 가치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문화재의 특색을 살려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으로 구성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연중 지속해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4]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교문화활성화사업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은 '향교·서원의 공간을 문화체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도모하며,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도록 함', '향교·서원 전문가(청년유사)를 양성하여 관광문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계승세대 육성', '향교·서원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 및 전통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유교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5] 이를 위해 '지향 척도 : 프로그램의 주제와 특성을 잘 드러내는가?', '흥미 척도 :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재를 활용하는가?', '구성 척도 : 프로그램의 짜임새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지식 척도 : 효과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활동 척도 : 체험활동 등이

3) http://kosis.kr/search/search.do (2019.01.02.)
4) 문화재청,"2022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계획(안), 보도자료", 2021.
5) 성균관유교활성화사업단,"2018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2019.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의 영역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된다.[6] 이를 위해 향교와 서원은 '해당 향교·서원이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주변의 문화, 역사, 자연자원 등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안) 기획'. '주변 지역의 향교 또는 서원 2개소를 코스에 포함한 권역 단위로 제안', '세부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 : 향교·서원의 유래와 역사, 인물 등을 강사가 소개하고 설명하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 향교·서원의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탐방 프로그램 : 지역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야 한다.[7]

프로그램 설계시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은 향교·서원의 공간이 현대적 공감대를 구축한 체험관광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이다. 세계유산의 가치 보전을 위해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참여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도를 살펴본다.

문화재청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도

문화재청의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참여자 설문조사에서 <표 1>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의 목적은 교육 및 학습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20.3%,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가 16%, 단체프로그램이어서가 13.6%, 여행나들이가 8.9%, 기타가 2.3%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표 2>와 같이 진행요원의 응대가 4.41%, 프로그램 안내 및 해설이 4.40%, 프로그램 이해와 재미가 각각 4.34%, 관람 동선 안내가 4.29%, 문화재특성 반영이 4.28% 순으로 나타났다.[8]

<표 1> 프로그램 참여의 목적

6) 방미영, "2021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자문보고서", 2021.
7)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21 유교문화활성화사업 향교•서원 선정 공모", 2021
8) 문화재청, "2018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2018.

(질문 : 귀하께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자 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교육 및 학습	여행 · 나들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단체 프로그램이어서	기타
전체		4,538	20.3%	38.8%	8.9%	16.0%	13.6%	2.3%
성별	남	1,758	23.5%	38.1%	9.3%	13.0%	13.1%	3.0%
	여	2,780	18.2%	39.3%	8.6%	17.9%	14.0%	1.9%
연령	20세 미만	1,169	6.9%	48.1%	5.2%	9.2%	27.8%	2.7%
	20~29세	285	10.9%	42.1%	12.3%	15.4%	17.2%	2.1%
	30~39세	513	12.3%	44.8%	12.5%	18.5%	9.0%	2.9%
	40~49세	953	16.2%	41.8%	12.3%	19.9%	7.2%	2.6%
	50~59세	646	27.7%	29.7%	9.4%	23.1%	9.1%	0.9%
	60~69세	472	44.5%	24.6%	5.5%	16.1%	7.0%	2.3%
	70세 이상	324	49.7%	25.3%	5.9%	12.7%	5.6%	0.9%

<표 2> 프로그램 항목별 만족도

(질문 : 귀하께서 참여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수준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구분		응답자 수	사전 홍보	교통 편/ 접근 성	참신 성	재미	프로 그램 이해	문화 재 특성 반영	편의 시설	운영 시설	관람 동선 안내	진행 요원 응대	프로 그램 안내 및 해설	전반 적 만족 도
전체		4,584	4.17	4.14	4.32	4.34	4.34	4.28	4.10	4.21	4.29	4.41	4.40	4.37
성별	남	1,778	4.18	4.16	4.31	4.32	4.31	4.27	4.10	4.21	4.29	4.39	4.38	4.35
	여	2,806	4.16	4.13	4.32	4.36	4.35	4.30	4.11	4.22	4.29	4.42	4.41	4.39
연령	20세 미만	1,182	4.12	4.14	4.28	4.29	4.27	4.25	4.04	4.18	4.26	4.31	4.33	4.35
	20~29세	286	4.15	4.12	4.30	4.37	4.36	4.36	4.17	4.31	4.35	4.47	4.46	4.35
	30~39세	516	4.10	4.12	4.40	4.44	4.44	4.32	4.17	4.29	4.39	4.53	4.49	4.43
	40~49세	955	4.28	4.22	4.42	4.46	4.46	4.37	4.18	4.28	4.37	4.53	4.50	4.45
	50~59세	651	4.27	4.17	4.36	4.40	4.39	4.34	4.12	4.26	4.32	4.45	4.44	4.45
	60~69세	477	4.20	4.17	4.26	4.30	4.28	4.24	4.16	4.17	4.24	4.37	4.38	4.34
	70세 이상	331	3.81	3.83	3.98	3.94	4.01	3.97	3.84	3.89	3.92	4.06	4.07	4.07

문화재청이 운영한 2018년 향교·서원 문화관광콘텐츠 참여율을 살펴보면 <표3>

과 같이 나타났다. 10대의 참여율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40대로 21.7%, 50대가 14.8%, 30대가 11.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참여율은 20대가 6.5%이며, 70대가 7.5%로 나타났다.[9]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사업 참여자 설문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의 목적이 '교육 및 학습'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 3>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콘텐츠 참여 연령층 분포도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원수	4398	1,182	286	516	955	651	477	331
비율	100	26.9	6.5	11.7	21.7	14.8	10.8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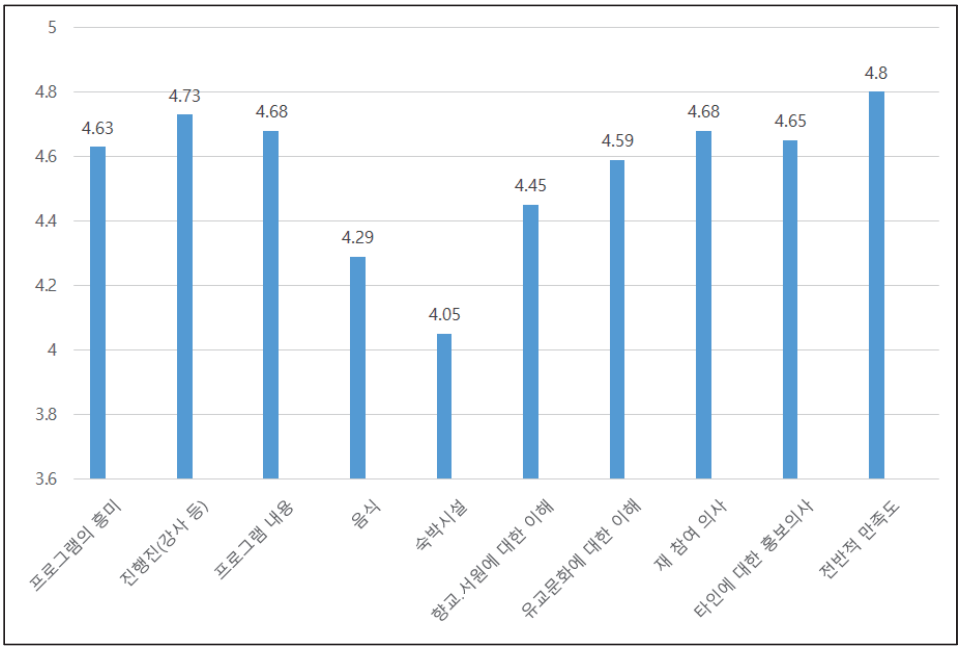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도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는 프로그램 항목별 만족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콘텐츠의 흥미에 대한 만족도는 4.63, 강사 등 운행진에 대한 만족도는 4.73, 콘텐츠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4.68,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4.29,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05 순이다. 또한, 향교·서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기회였다는 응답은 4.45,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기회였다는 응답은 4.59, 재참여 의사는 4.68, 타인에 대한 홍보의사는 4.65, 전반적인 만족도는 4.8이다.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 참여자의 분포도를 <표 4>와 같다. 2017년에는 10대의 비율이 24.07%로 가장 높았고, 2018년에는 60대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연령대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20대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18년도 참여 연령층의 증감은 10대가 20.87%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60대가 18.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참여 연령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은 체험프로그램의 구성이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연령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호불호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한다.[10]

9) 문화재청, "2018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2018.

[그림 1] 프로그램 항목별 만족도



<표 4> 향교·서원 문화관광콘텐츠 2017년, 2018년 참여 연령별 증감 분포도

구분	합계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비율	100	2017	24.07	5.62	8.64	13.10	14.4	18.3	15.8
	100	2018	3.2	1.1	2.7	8.0	22.2	37.2	25.6
증감	100	2018 대비 2017	▽ 20.87	▽4.52	▽5.94	▽5.1	△ 7.8	△ 18.9	△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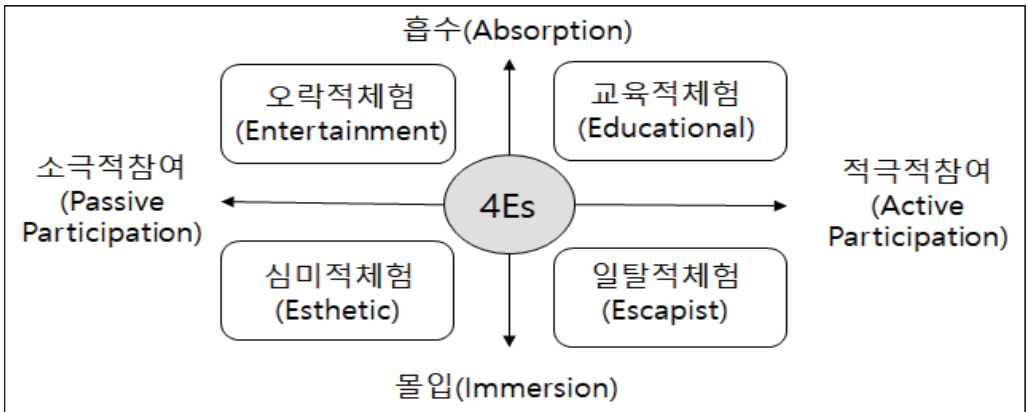
* 출처: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17년 종합보고서 및 2018년 종합보고서」에서 재구성.

10) 한교남, "유교전통과 문화관광 콘텐츠의 전망과 개선점",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회」(2018): pp.110~111.

3. 향교·서원 관광체험 활성화 방안

향교. 서원 관광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점 논의가 필요하다. 관광체험 요소에 대해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파인과 길모어(Pine & Gilmore)가 제시하는 4가지 요소가 관광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 파인과 길모어는 기존의 산업기반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분리하여 경제의 확장을 일으켰듯이 서비스에서 체험을 분리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파인과 길모어의 체험경제이론은 교육적 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 일탈적체험의 4가지 요소로 추출되며, 유형의 제조상품과 무형의 서비스상품과는 달리 구매자들이 가치있는 상품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이끌림이 담겨있다.[11]

[그림 2] Pine & Gilmore(1999)의 체험경제이론 요소



B. Joseph Pine II and James H. Gilmore,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1998 p.102
그림 발췌 및 재가공(The Four Realms of an Experience)

11) 방미영, "향교·서원 문화콘텐츠의 브랜드개성이 관광체험과 체험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 대학원, 2020), pp.44~45.

1) 관광체험 프로그램 분석

파인과 길모어(Pine &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근거로 관광만족과 추천의도를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적 체험요소는 향교·서원이 전통문화에서 경험한 선비문화가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관광만족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적 체험요소는 현대인들이 워라벨과 소확행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관광만족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요소는 심미적 체험이 내적 감성을 공유하는 개인적인 체험이므로 관광만족에 영향을 미쳤지만 추천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탈적 체험요소는 관광만족과 추천의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교·서원 체험관광객들은 일탈적 체험 요소에 크게 구해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브랜드가 되는 전통성 요소가 관광체험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일탈적 체험 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체험의 일탈적 체험요소가 미흡한 것은 향교·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전통적 교육 체험공간으로 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향교·서원이 전통성 요소에서 일탈적 체험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통 의복을 입고 선비문화를 제대로 익히는 프로그램의 상시운영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브랜드가 되는 역동성 요소가 관광체험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심미적 체험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체험의 심미적 체험요소가 미흡한 것은 심미적 체험은 개인적이며, 내적인 감성에 따라 공감되는 부분이 공유되기 때문에 외적인 역동성 체험요소에서는 공유되지 않기에 내면의 흥을 일으킬 수 있는 심미성을 체험요소에 첨가한다면 역동성 요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

문화콘텐츠 브랜드가 되는 혁신성 요소가 관광체험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일탈적 체험요소에는 영향을 미쳤다. 교육적 체험은 전통문화를 문화원형으로 계승하고 있었어 혁신성 요소에서 체험되

지 않았다. 오락적 체험은 문화관광객들이 체험한 콘텐츠가 특별히 재미있거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 또한 독특한 매력을 통해 감성을 자극받는 체험콘텐츠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 요소가 일탈적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 체험놀이 등 시간적인 이동을 통해 일상의 탈출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2) 관광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방향

세계유산은 문화관광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관광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집객적 효과를 들 수 있다.[13] 문화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문화관광이 타 분야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문화관광상품이 대표적 예이다. 지역축제가 열리는 동안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증대되기에 지역마다 크고 작은 축제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문화관광의 문화적 효과는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갖게 한다. 향교·서원이 문화관광으로 확대되어 문화적 효과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의 집객적 효과는 방문 동기와 방문 목표를 통해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게 한다.

향교·서원이 문화관광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향교·서원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 체험은 참가객들이 전통문화를 학습하고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콘텐츠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오락적 체험은 참가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탈적 체험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게 해 일상 환경과는 다른 체험을 하게 하는 콘텐츠다.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체험요소 중 가장 미흡한 점이 바로 일탈적 체험요소이다. 즉, 관념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축제의 장처럼 느껴질 수 있는

12) 방미영, "향교·서원 문화콘텐츠의 브랜드개성이 관광체험과 체험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 대학원, 2020), pp.172~173
13) 방미영, "향교·서원 문화콘텐츠의 브랜드개성이 관광체험과 체험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 대학원, 2020), pp.37~44.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심미적 체험은 단순히 미학적 체험이 아니라 미적 대상을 오감을 통해 흡수될 수 있게 하는 콘텐츠다. 향교·서원은 뛰어난 건축물로 심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변 경관 조성 및 관리 소홀로 오감을 통해 내면으로 끌어들이기에 부족함이 많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심미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하다.

3)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향교·서원의 가치가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관광객 유입이 줄어든 것은 한시적 현상이지만 언텍트 시대에 대비한 관광체험 프로그램의 디지털 콘텐츠화가 필요하다. 향교. 서원의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향교·서원의 교육적 체험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어갈 후대들을 위해 VR/AR, 전자출판, 게임 등 소셜미디어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와 영상콘텐츠가 필요하다.

둘째,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콘텐츠는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과 민속놀이를 재해석하여 현대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향교·서원의 교육과 배례의 엄숙한 공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오락적 관광체험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웃고 떠드는 오락적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체험의 신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향교·서원의 건축물은 아름다움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주변 경관과 둘레길 조성을 통해 심미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교·서원의 일탈적 체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의상을 입고 관광체험을 하는 것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교·서원의 건축물이 여름과 겨울에 취약한 구조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냉방시설을 설치하여 4계절 관광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뉴미디어 시대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층과 연계하여 홍보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MZ세대가 홍보방안을 수립

하면서 자연스럽게 향교·서원의 관광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덟째, 전국의 향교·서원이 순례 코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교·서원순례길(가칭)'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14]

4. 맺음말

세계유산 관광체험은 논어(論語)의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면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 니라' 즉 '옛것을 익숙하게 알고서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는 공자의 말[15]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인지시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서원이 관광체험 콘텐츠는 현대인들에게 옛것을 익숙하게 알게 하는 데 있다.

문화의 습성상 향유하지 않으면 시대가 지나면서 망각의 문화로 기억되지 않는다.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콘텐츠는 전통문화를 망각하지 않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향교·서원이 후손들에게 생활 속 문화의 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려고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콘텐츠를 창출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MZ세대들에게 옛것을 옛것 그대로 전달한다면 소통의 부재를 겪을 수 있기에 향교·서원의 관광체험에는 트렌드 반영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 시 전통과 역사적 관점에 머무르지 말고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구축이 필요하다. MZ세대는 유튜브, 넷플릭스, 메타버스가 놀이터이며 콘텐츠다. 이를 위해 지역의 청소년 및 청년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전국 단위의 청년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교·서원 유림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유림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체험 콘텐츠 기획 강좌를 개설하여 관광 트렌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 개설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유사'제도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

14) 방미영, "향교·서원 문화콘텐츠의 브랜드개성이 관광체험과 체험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 대학원, 2020), pp.174~175.
15) 성균관, '사서(四書)', 2021. pp.44.

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외에도 관광체험 및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콘텐츠에 대해 상시자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협력체계를 통해 향교·서원의 지역적 특화 문화예술 공연 및 콘텐츠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도심권에서 떨어져 있는 세계유산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볼만한 가치, 체험할만한 가치가 공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교·서원에 대한 홍보와 함께 차별화된 관광체험 콘텐츠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향교·서원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자원의 보고(寶庫)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상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과 활용방안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교·서원이 내 고장의 자랑거리여야 관광체험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세계유산에 대해 지역주민들 스스로 스토리텔링할 수가 있다.

참고문헌

고동우. "여가동기, 여가체험 행동: 이추동모형과 이통로 여가체험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3(2) (2002): pp.1~23.

문화재청. 「2018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201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관광인프라시설 개발방안 수립 및 조사연구」, 2018.

방미영, "2021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자문보고서", 2021.

방미영, "향교·서원 문화콘텐츠의 브랜드개성이 관광체험과 체험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추계예술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성균관, 「사서(四書)」, 2021.

성균관유교활성화사업단,"2018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2019.

이광표, 「근대생활문화유산과 기억의 방식」, 『민속학연구』(41), 2017.

이상해 ,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서원학보 제9호.

장지순, 「지속가능발전시대의 문화유산 ODA 활용 연구」, 『문화정책논총』 34(2), 2020.

한교남, "유교전통과 문화관광 콘텐츠의 전망과 개선점",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회」(2018): pp.110~111.

홍민호, 「문화유산의 정보 제공의 현황과 정보의 '연결' 방안 모색」, 『인문콘텐츠』(54), 2019,

Aaker, J. L. "Dimensions of Brand Personali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4(3) (1997): pp.347~356.

B. Joseph pineⅡ and James H. Gilmore. 「체험의 경제학」. 김미옥 역. 서울: 21세기북스출판사, 2010.

<보도자료>

문화재청,“2022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계획(안)”, 2021.

<인터넷>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hl=ko&mid=1OyJ4knFa4JZB-V4O2CoaUHAz65vORM dP&ll=36.91135586140775%2C127.23306113735725&z=9 (2021.10.5.)

http://kosis.kr/search/search.do (2019.01.02.)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토론문

이 건 웅
(콘텐츠문화학회 회장)

향교와 서원은 유교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조선 시대에 인재양성은 중앙에는 성균관을 설치하고, 지방 군현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였다. 향교가 국립 교육기관으로 관리 등용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였다면 서원은 사립 교육기관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원은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고려 멸망 후 건국된 조선왕조가 중시한 것은 새로운 제도로 건국의 기틀을 잡기 위한 교화와 교육이었다. 향교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육성되었으나 관리들의 기강해이로 과거제도의 폐단이 발생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신진세력인 사림에 의해 쇠퇴기를 맞는다. 성리학에 바탕을 둔 정치를 지향하는 사림세력은 중종반정(1506년)을 주도하면서 문란해진 과거제도를 대신할 교학 진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진세력인 사림은 조선건국의 공신들인 훈구파와의 대립으로 발생한 기묘사화(1519년)로 교학 진흥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숙청되지만, 사림의 교학 진흥을 위하여 서원으로 이어진다.

한국 최초의 서원은 1542년(중종37)에 경상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다. 백운동서원은 관학인 향교와는 달리 사설 교육기관으로 고려 말의 학자 안향을 배향하고, 후진을 교육하였다. 이후 퇴계 이황은 풍기군수로 와서 백운동서원에 국가에서 현판과 토지를 하사하도록 건의함에 따라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고 친필로 쓴 현판을 하사받으며 발전하였다. 소수서원은 나라에서 책과 토지 그리고 노비 등을 하사받아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액서원이다. 그러나 국가

적 지원과 혜택을 받은 서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다른 특혜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서원이 특혜와 권력으로 붕당정치의 뿌리로 전락하면서 1871년(고종8) 흥선대원군은 서원에 대한 일체의 특혜를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나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47개소의 사액서원을 제외한 전국의 대다수 서원이 문을 닫게 된다.

서원철폐 후 상당수의 서원은 문중서원 위주로 존립하게 된다. 후학을 위한 교육이 주가 되었던 서원의 주요 기능이 상실되면서 물질적 지원 또한 중단되는 상황에서 서원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 폐단으로 전가되었다. 서원은 서원철폐와 물질적 지원이 중단된 이후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이 급속하게 축소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서원이 남아 있다. 근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유교문화는 서원의 맥을 이어갈 후학들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림사회의 고령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한국 서원의 등재는 현대사회에서 서원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서원 콘텐츠는 2017년부터 진행되어 현대사회 속에서 서원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점화되었다. 논점은 서원의 유교문화의 공간이 현대적 공감대를 구축한 청렴 및 인성교육과 문화관광 체험콘텐츠로 자원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유교문화의 문화관광 자원화는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의 독창성을 꾀하는데 의미가 있다. 관광산업과 유교문화의 연계는 유교문화를 형이상학적 이념과 사상의 논쟁에 머물지 않고 대중문화로서 현대인들과의 공감을 밀착시켜야 한다.

서원의 유교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을 주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서원 문화콘텐츠를 지역문화와의 연계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령화된 유림사회가 대중문화 속으로 나가기 위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와 이를 통해 유교문화가 현대사회에 조명되어야 할 키워드를 찾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지원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

향교와 서원이 과거의 유물이나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남는 것은 옳지 않다. 젊은

세대에 공감대와 미래 세대에게 향교와 서원의 긍정적인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는 작업은 매우 가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교 서원의 관광체험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이나 참여 의사 등은 대체로 40~50대가 선호도가 높고, 20~30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관광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진행한다면 젊은 층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보면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림 1]에서 프로그램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온 점이나 '프로그램의 흥미'가 높은 지수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나 '음식'이나 '숙박시설'의 지수가 낮게 나온 점은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향교와 서원이 위치한 곳이 단순히 지방의 외진 곳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초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제 3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교육

서원의 교육환경

–세계유산 등재 이전과 이후 문화재청 정책과 9개 서원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 자 운
(공주대학교)

목차

1. 서론
2.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성격
3.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청 및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업
4. 문화재청 및 통합보존관리단 사업의 성과와 과제
5. 9개 서원의 교육 프로그램
6. 9개 서원 교육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1. 서론

얼마 전 사범대 수강생들에게 ‘서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 조사해보았다. 많은 학생들이 ‘훈구파와 사림파, 조광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권력 유지를 위한 양반들의 세력 근거지, 세금 세탁하는 곳, 계파 싸움, 당쟁의 온상, 조선이 망한 이유’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예상은 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생각보다 훨씬 압도적이었고, ‘세금 세탁’ 같은 표현은 좀 충격적이었다. 그 중 10%도 채 되지 않는 소수의 학생들이 ‘사학, 훈장, 시골 명문학교, 국제학교 같은

고급스런 학교'가 떠오른다고 하였다. 씁쓸함과 동시에 서원 전공자이자 교육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뜨끔하였다.

그러나 2년 전, 한국의 서원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서원의 이미지와 위상이 차츰 달라지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향교, 서원 등 전통문화재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은 이미 2013년 박근혜 정권의 국정 과제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 정부는 2013년 7월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문화재청 주최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을 각 지자체에 공모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국 38개소 향교·서원에 총 1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작하여 단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120개소에 지원을 확대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1]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이 사업은 문화재청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문화산업에서 소외되었던 향교와 서원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광산업 육성 방안의 혜택을 입게 된 것은 한편, 문화재청이 사적으로 지정한 9개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2013년 당시 잠정 목록으로 선정된 9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대비하여 각 서원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이 사업의 현실적 추진 배경 중 하나였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이 사업은 더욱 활성화, 내실화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2019년 9월 세계유산 등재 이후 향후 5개년간 '한국의 서원' 중장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과 맥을 같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향교·서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교 아카데미' 사업 및 '인문정신과 전통문화콘텐츠'[2]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교 아카

1) 「2015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4년 6월.

2) 문체부는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학 연구기관 및 각종 작가협회, 영화감독조합 등과 연합하여 2016년 10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시아의 이야기로 전하는 감동'이라는 주제로 2016 인문정신과 전통창작소재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콘퍼런스에서는 '장자의 소요유를 활용한 판타지 애니매이션' 등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콘텐츠와 현대 인문

데미'는 대학, 전문기관 및 향교, 서원의 유교 전공자들이 인문학 강좌(아카데미), 독서 토론(콜로키움), 청소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교·서원을 현대적 교육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계유산 등재 이전, 정부의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들은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전통 유교문화의 가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잠들어 있던 전통 자원을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각종 유관 기관들의 지원과 노력에 더하여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그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오랫동안 대중들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향교·서원이 마침내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들 역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제 각 지역의 향교·서원은 예절교실·한자교실·충효교실·서예교실 등 지역을 막론하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만 기계적으로 답습해오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독자적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유교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적용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이자 현대적 교육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같은 지원과 노력으로 전통문화재가 대중화, 개방화, 활성화되는 데에 일정부분 성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성과가 과연 '전통문화의 가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좀 더 면밀히 따져볼 문제이다. 특히,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국 서원의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핵심은 첫째, 조선왕조의 성리학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9개 서원이라는 점, 둘째, 몸과 마음의 전인적 수양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산수 근처에 위치), 셋째, 중국에서 발원한 성리학을 한국의 교육적, 사회적 관행으로 토착, 발전시킨 문화적 전통의 우수한 증거라는 점, 넷째, 그 정신적 가치의 많은 부분이 계승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보존상태가 우수하다는 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한국 서원의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교육과 활용을 위해서는 유네스코가 지적한 바와

정신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같이, '대중성' 뿐 아니라 '정신적 가치'의 계승과 재해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신적 가치'와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원의 교육환경과 컨텐츠를 현대적으로 활용, 계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방향이 과연 무엇일까.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글에서는 첫째, 지난 정부 때부터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최근 전국 향교·서원의 활성화와 교육콘텐츠 개발을 주도해온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및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청이 발표한 2019년 '한국의 서원 중장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정책의 목적과 성격을 검토하고, 둘째, 세계유산 등재 이후 시행해온 문화재청 및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사업, 9개 서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2021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사업의 내용을 9개 서원 중심으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2.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성격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113-1-2)의 하나인 '향교·서원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2013년 7월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2013년 첫 번째 사업 공모 계획안을 발표, 선정하여 2014년부터 문화재청 주최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을 시행했다. 2014년에는 전국에서 38개소를 선정하여 총 12억, 2015년에는 71개소를 선정하여 약 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77개소, 2017년 87개소, 2018년 95개소, 2022년 107개소(예정)에서 시행하였다.[3)]

<2014·2015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지원 경과(단위 : 건, 백만원)>[4)]

3) 「2015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 공모 계획(안)」(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4년 6월);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5년 6월); 「2017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87선」(문화재청);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유산 유유자적」,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95선'(문화재청); 「2022년도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목록」(문화재청). 2022년도 선정 목록에는 현재 세계유산 9개 서원이 모두 빠져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

연도	구분	향 교			서 원			합 계		
		국가	시도	계	국가	시도	계	국가	시도	합 계
2014	건수	1	23	24	8	6	14	9	29	38
	지원	60	569	629	343	228	571	403	797	1,200
2015	건수	2	49	51	6	14	20	8	63	71
	지원	70	1,335	1,405	272	443	715	342	1,778	2,120

문화재청은 이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첫째, '문화재 가치 활용 및 산업화, 문화재 활용 콘텐츠 다각화, 지역문화재 생생 활용'을 핵심 과제로 하는 문화재 5개년(2012~2016) 기본계획의 이행, 둘째, '향교·서원문화재 관광자원화 및 전국 확대 실시 기반 구축'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목표 달성, 셋째,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9개 서원의 활용 기반 구축, 넷째, 대내외적으로 문화재를 이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욕구 증대를 들고 있다.[5)]

이 같은 배경 하에 이 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 정립, 둘째, 정신 문화재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 셋째, 향교·서원문화재를 지역 사회의 대표 문화재 활용자원으로 육성, 넷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의 균등화 실현의 네 가지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향교·서원의 전통적 기능을 되살려 현대적인 교육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특화된 콘텐츠와 개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향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역사문화 체험 공간 및 우리문화 배움 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자는 전략을 제시하였다.[6)] 이 같은 목적과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최소 1 향교·서원 문화재 사업을, 장기적으로는 향교·서원 1개소마다 1개의 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 응모 대상자 심사에서 선정에 유리한 기준과 우대 조건, 제외 요건과

4)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5년 6월, 6쪽.
5)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5년 6월, 4쪽.
6) 같은 문서, 6~8쪽.

감점 사항 중 핵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7]

<선정에 유리한 조건 및 우대 조건>

- ㅇ 향교·서원의 본래적 기능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향교·서원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 ㅇ 다양한 문화유산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ㅇ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역문화재 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
- ㅇ 향교·서원과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를 활용하는 사업
- ㅇ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중장년층 등 각 수요계층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 ㅇ 향교·서원 특색을 살려 인문학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사업
- ㅇ 다문화가정, 보육원 아동 등의 문화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사업 선정의 제외 요건 및 감점 사항>

- ㅇ 향교·서원의 내재적 가치 발굴·활용과 관계없는 관광위주의 축제 사업
- ㅇ 향교·서원문화재의 단순 공개 사업
- ㅇ 단순 경서강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통 유교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

이 중 상술한 사업 목적과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면 주목되는 부분이 '다양한 문화유산의 융·복합적 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활용 사업', '다양한 수요계층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 '인문학',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또한 '관광위주의 축제 사업', '단순 경서 강독'이나 '전통 유교교육에 한정된 프로그램'을 감점 사항에 적시한 것을 통해 이 사업의 성격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나 유교문화에 한정된 지식의 단순 습득과 일방적 전달보다는, 전통가치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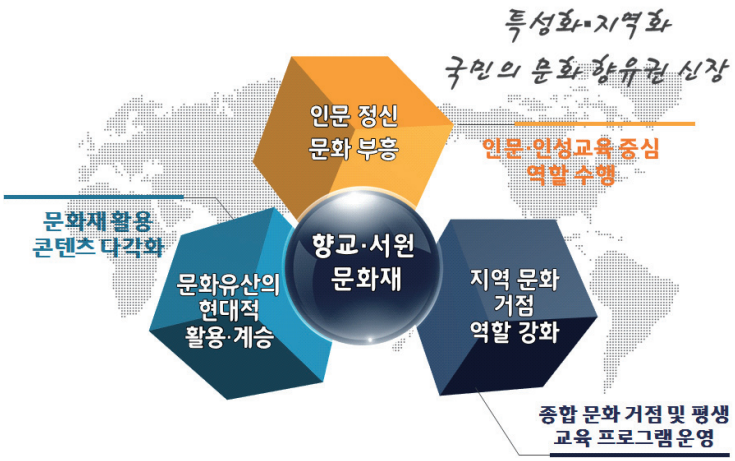
7) 같은 문서, 11쪽.

2016년의 정책 목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5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정책 목표>[8)]

제향문화 중심의 엄격하고 지루한 향교·서원	▶	본질적인 가치를 계승하고 다양한 문화거점으로 살아나는 향교·서원
잠기고 텅 빈 향교·서원	▶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여 생기가 넘치는 향교·서원
어디든 유사한 활용 프로그램	▶	특화된 콘텐츠 발굴 및 개성 있는 프로그램 보급·운영
찾아가기 힘든 향교·서원	▶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문화동산
불편한 향교·서원	▶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 놀이터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정책 목표>[9)]



8)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4년 6월, 8쪽.
9)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5년 6월, 8쪽.

2015년과 2016년의 정책 목표를 비교해보면, 다양한 문화거점으로의 기능, 대중성과 활용성, 유사한 프로그램의 지양과 특화된 콘텐츠의 강조 등 몇 가지 공통점도 있으나, 2016년에는 그 외에 지역성과 특수성, 현대적 활용, 인문정신,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성 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향교·서원의 관광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정책적 측면, 둘째, 전통 유교문화의 가치 계승과 현대적 해석이라는 내용적 측면이다. 관광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통 가치의 계승과 현대적 해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목적은 산업의 차원 뿐 아니라 인문학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 산업 육성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통 가치의 현대적 계승에 진정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를 위한 인문학적 자원의 발굴, 연구, 가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물론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청 및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업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청은 2020년 12월, 편당 약 15분짜리 총 6편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배경 웹드라마 <300살, 20학번>을 제작, 방영하였다. 1720년 병산서원 장기 거접에 참여하여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유생 3인방이 성적 미달로 서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원장실에 들어가 다음 제술 시험문제를 훔치기로 한다. 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시험지를 훔쳐 달아나려고 외삼문(복례문)을 연 순간, 300년 뒤 2020년의 병산서원 외삼문으로 떨어지며 시작되는 좌충우돌 성장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웹드라마라는 형식의 미디어를 통해 서원에 대한 국내외 미래

세대의 관심을 촉진하고, 인지도를 높인다는 의도로 기획, 높은 시청률과 호응에 힘입어 국내외 한국문화 홍보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자막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현재 유튜브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그리스어 등 자막 제공).

2021년 2월에는 약 1년여의 기간을 들여 다큐멘터리를 제작,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자연을 품은 정신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KBS에서 방영하였다.

이에 앞서 2019년 9월, 문화재청은 '예학의 공간, 세계유산 서원의 가치 제고'라는 비전 아래 '세계유산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증진', '서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을 위한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10)]

첫째,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2019) 안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시행령을 마련해 5년 단위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문화재청)과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 9개 서원을 통합 관리할 주체와 홍보·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관리체계를 2020년까지 마련하고, 안내판과 누리집, 홍보영상물, 해설사 양성 등도 통합 추진한다.

둘째로, 서원의 진정성·역사성을 높이기 위해 서원 주변의 경관 저해 시설을 옮기고, 둘레길과 진입로 조성, 전시·교육편의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종합정비계획을 2023년까지 수립한다. 특히 서원 수리에는 전통단청, 전통기와 등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히, 기와·전돌(벽돌) 등 품질기준이 이미 마련된 재료는 2021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셋째로, 서원이 소장한 기록유산을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서원

10) "문화재청,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중장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울문화IN 2019년 9월 11일자 기사).

이 소장한 기록유산들을 목록화해 2023년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문화유산포털에 공개하며, 2024년에는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로, 안전관리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원격 전기안전 감시시스템,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및 안전경비원 확충, 돌봄사업 활동 강화, 정기적 합동점검 등을 추진해 효과적인 재난대응과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한국의 서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의 서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역에서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프로그램'을 예절교육 중심에서 탈피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하고(2019년 6.2억원→ 2023년 25억원), 2021년부터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초·중·고교에 교육 콘텐츠로 제공한다.

여섯째, 서원의 세계적 위상강화를 위해서 중국 취푸의 공자 유적, 베트남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등 해외의 유사한 유산(유학, 교육유산 등) 관리주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심포지엄 개최, 유학시설 교류전 등을 통해 서원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개성 숭양서원, 평양 용곡서원 등 북한 서원에 대한 공동조사,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 서원을 통한 남북문화재 교류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저조했던 서원 인지도와 방문객 수를 향후 5년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원 방문객 현황과 목표>

(단위 : 명)

문화재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4년 목표
			7월까지	12월까지 목표		
소수서원	250,529	254,261	211,834	300,000	373,000	457,000
남계서원	42,332	42,851	39,686	80,000	90,000	100,000
옥산서원	23,200	24,000	13,450	45,000	50,000	70,000
도산서원	254,519	227,303	144,776	250,000	272,000	360,000
필암서원	9,477	15,343	6,311	20000	23,000	25,000
도동서원	26,937	24,713	15,286	20,000	37,000	40,000
병산서원	260,842	304,802	173,189	350,000	375,000	413,000
무성서원	12,424	13,234	8,265	25,000	30,000	35,000
돈암서원	78,519	78,500	45,321	110,000	150,000	200,000
총계	958,779	985,007	658,118	1,200,000	1,400,000	1,700,000

<2021년 서원 방문객 현황>[11]

구분	7월	8월	9월	합	2018년 누적
소수	17,035	20,662	21,299	58,996명	254,261
도산	9,520	13,708	17,386	40,614명	227,303
옥산	12,209	9,868	6,011	28,088명	24,000
병산	6,556	10,774	9,988	27,318명	304,802
도동	2,109	2,688	5,213	10,010명	24,713
돈암	2,102	2,743	2,374	7,219명	78,500
무성	2,125	2,221	2,792	7,138명	13,234
필암	1,608	2,464	2,556	6,628명	15,343
남계	766	949	1,749	3,464명	42,581

참고로, 하회마을 연평균 방문객은 2014년 105만 5천 153명, 2015년 103만 5천 760명, 2016년 102만 1천 843명, 2017년 104만 5천 493명, 2018년 100만 797명(12월 1일 기준)이다.[12] 하회마을과 비교하면 방문객이 가장 많은 소수, 도산, 병산서원은 하회마을 방문객의 1/4, 가장 적은 필암, 무성서원은 하회마을 방문객의 1/10 수준이다. 또한 소수, 도산서원의 연평균방문객 중 외국인 비율은 2012년~2016년 기준 1.21%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방문객 현황이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2021년 7월~9월 3개월간 옥산서원의 방문객 수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 전체 방문객 수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크게 '통합보존 관리 체계의 구축'과, '한국 서원의 세계화, 국제화'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서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거 예절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지원, 보급하고 국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향교, 서원의 관광산업화'에서 서원의 '국제화, 세계화'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되었다.

'통합보존 관리 체계의 구축'은 현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통합홍보사업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 등재 기념

11)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홈페이지 참조.
12) "안동 하회마을 5년 연속 관광객 100만 돌파"(경북뉴스 2018년 12월 3일자 기사)

식 및 기념행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발간, 한국의 서원 통합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합보존관리사업으로는 통합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 계획 연구 및 통합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세계유산 등재기념 표지석을 디자인하였다.

2020년에는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2020 세계유산 축전, 한국의 서원 통합교육교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안내서> 발간,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으며, KTX 홍보영상 방영,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제작하고, 한국의 서원 소식지 '서원산책' Vol. 1, Vol. 2를 발간하였다. 통합보존관리사업으로는 통합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 구축, 무인계수시스템 구축(1차, 3개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 제작,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 안내판 설치 및 9개 서원의 건축 도면집을 제작하였다.

2021년에는 국제·국내 학술포럼 개최, 한국의 서원 소식지 '서원산책' Vol. 3, Vol. 4 발간, 문화관광해설사 및 서원관계자 대상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심화교육, 청소년 한국의 서원 알리미 운영(10월 23일 청소년 지킴이 1기(70명) 발대식), 한국의 서원 가상체험 AR을 제작하고, 통합보존관리사업으로 통합 모니터링, 무인계수시스템 구축(2차, 6개서원), 세계유산 정기보고,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고정밀 정사영상 촬영, 주요 건축물 이력 데이터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1기 발대식(2021. 10. 23)>

현재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의 서원문화, 9개 서원이야기, 소통&교류, 디지털아카이브, 사무국'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조선의 서원문화'에서는 텍스트 외에 음성오디오 파일(10분 59초로 역사, 기능,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의 5개 항목으로 구성)로 서원을 소개하고, '서원의 하루'라는 제목의 AR을 탑재, <제향, 강학, 교류 및 유식공간>의 세 주제로 나누어 서원의 일상과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구성, 각 주제별로 5분씩 보여준다.

'9개 서원이야기'에서는 각 서원의 개요를 텍스트와 사진으로 소개하고, 로드투어 '서원의 어제와 오늘'에서 9개 서원의 진입로부터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각 건물의 기능과 명칭을 로드뷰와 자막으로 소개하는 3분짜리 로드투어 VR영상, 360도 항공뷰 VR영상, 8분짜리 음성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한다. 360도 VR영상에서는 서원 전경과 공간구조(교류 및 유식, 강학, 제향, 지원공간)를 항공뷰와 360도 VR로 소개, 음성 오디오 파일은 각 서원의 개요, 제향, 강학, 교류 및 유식, 문화재 및 기념물을 8분으로 소개한다.

'소통&교류'는 9개 서원의 공지사항, 행사일정, 온라인공모전 작품, 갤러리, 독자참여로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현재까지 관리단에서 발행한 모든 책을 E-book(한국의 서원 도록 1-3권, 한국의 서원 종합 안내서, 한국의 서원 사진집과 도면집, 서원 유람기, 소식지 '서원 산책' 등)으로 제공하고 9개 서원의 방문객 현황(2021년 7월부터), 정사영상 등을 제공하며, '사무국'에는 재단 소개, 추진사업, 공지사항 등이 있다.

4. 문화재청 및 통합보존관리단 사업의 성과와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청이 제시했던 '통합보존 관리 체계의 구축'과, '한국 서원의 세계화'라는 정책 목표는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축적해왔다. 무엇보다 통합보존관리단의 활동 및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9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개별 서원들의 소개, 교육, 활용, 홍보 등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되었고, 통합 홈페이지는 9개 서원과 관련된 풍부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문화재청이 제시한 6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서원의 세계적 브랜드화' 및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의 육성'을 위해 제작, 초중고에 교육 콘텐츠로 제공하겠다고 했던 '실감형 콘텐츠'[13]가 바로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에 탑재된 9개 서원의 로드투어 VR, 360도 항공뷰 VR, '서원의 하루' AR 및 8분짜리 오디오 음성파일이다.

○ 소수서원 로드투어 VR https://www.youtube.com/watch?v=jDxv7LQoxgA
○ 소수서원 360도 VR(소수서원 홈페이지)
https://www.yeongju.go.kr/vr/170620sosu/tour.html?startscene=0&startactions=lookat(-13.43,26.44,120,0,0);
○ 서원의 하루 http://k-seowon.or.kr/images/seowon/build/index.html

이 실감형 콘텐츠들은 교과서나 텍스트로 서원을 접하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 학교 교사들이나 문화유산해설사 등 전문가 외에도 어린 아이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하여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문화재청은 애초에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초중고에 교육 콘텐츠로 제공, 널리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소수, 남계, 도산, 병산, 돈암서원의 홈페이지조차 이 활용 가치가 높은 실감형 콘텐츠들을 전혀 소개하거나 링크하지 않고 있다(소수서원 홈페이지에만 별도로 제작한 VR이 사이버체험관에 탑재). 특히 도산서원 홈페이지에는 오래 전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화질이 매우 떨어지는 1분 21초짜리 '3D로 보는 도산서원' 영상만

13) '실감형 콘텐츠'란 'ICT 를 기반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유발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확장하는 기술' 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를 말한다(위키백과).

올라와 있다. 아무리 좋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홍보되고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애써 제작한 이 실감형 콘텐츠들을 개별 서원 홈페이지에 연동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9개 서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더욱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9개 서원에 대한 콘텐츠가 집약되어 있는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홍보와 활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이 제작한 웹드라마와 다큐멘터리도 '서원의 세계적 브랜드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한 컨텐츠이다. 특히, 웹드라마 <삼백살, 20학번>은 방영된지 10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한국을 넘어 베트남, 러시아, 아랍, 영미, 인도, 스페인, 독일, 터키,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최종 느낀점💚

정말 영상 보는 내내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영상을 너무 아름답게 잘 찍어주셔서 우리나라의 서원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ㅎㅎ 서원 홍보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동영상으로 사용해도 될만큼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울 때는 서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도만 간단히 배우고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다는 내용들을 더 중점적으로 배워서 사실 서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구요ㅠㅠ🖤 오늘 캡쳐한 서원 사진보고 너무 감동 받아서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ㅠㅠ 그리고 영상 하단에 문화재청이라는 로고가 아니었다면 공중파 드라마인지 착각할 정도로 웹드라마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여주분

첫 장면부터 한국의 서원이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수려함이 가득 담겨 있는 서원의 풍경은 나를 매료하기 충분했다. 차후 9곳의 서원이 나오는데 정말이지 와 라는 말이 안나 올 수 가 없었다.

또 중간 중간 서원 역활에 대한 설명 또 한 우리는 그냥 이쁜곳 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참된 가치를 알게 된 드라마였다.

300년이란 시간을 넘어 이렇게 유교적 사상이 있는 유생들과 2020년의 학생이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찐친이 되다니 드라마를 자주 보지 않는 나에겐 참으로 새로웠다.

그리고 **6화 마지막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한국의 서원 9곳의 풍경을 놓치지 말고 보기를 추천**하는 바로 마무리합니다.

'삼백살 20학번' 이세진 "웹드라마로 서원 소개, 고루함 깨고 감각적"

Felicity Dov. 9개월 전
It was a nice journey to Seowon through this drama. Can we wait for a second season, maybe? I will be here to translate it into Greek, again.

Lydia Barlow 5개월 전
Found this on tick tock and had to come watch the whole thing I loved it

Aastha 8개월 전
It was a beautiful series ❤️.. 2nd season please.. looking forward to such more contents like this ❤️ I will definitely share this with my friends .. love from India

Prabhjot Sekhon 5개월 전
Hope there is a season 2!!

Ωραία ιστορία, θα ήθελα να είχε λίγα επεισόδια ακόμη. Μου άρεσαν οι ελληνικοί υπότιτλοι, μπράβο.

Luna Rix 5개월 전
me encanta que no se esforsaron al esconderlo y aun asi segun sobrevivio

ㅇㅅㅇ 5개월 전
such a good idea to do a drama to discover these places!! i loved watching it !

<삼백살, 20학번>은 방영 2개월 만에 조회수 1만뷰를 돌파, 편당 적게는 3만뷰에서 많게는 10만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은 '서원'이라는 '장소'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시즌 2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한국인들은 '궁궐이 아닌 서원 배경 드라마는 처음이라 신선, 회차마다 어떤 서원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 서원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었나, 도산서원밖에 못 가봤는데 9개 서원 전부 가봐야겠다,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절로 생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9개 서원이 스토리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억지스럽지 않게 아름다운 배경으로 등장한 것은 좋았으나 9개 서원의 이모저모를 상세히 알 수 없어 아쉽고 궁금했다'는 비판도 있다.

비판이든 환호든, ‘엄격하고 고루한 곳, 굳게 닫힌, 찾아가기 힘든 서원’에서 ‘아름답고 수려한 곳, 가보고 싶은 곳’으로의 이미지 변신, 외국인들에게 한국 서원의 존재감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관심을 촉발시키는 데에는 적어도 확실히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서원의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교육과 활용을 위해서는 단지 ‘대중성과 흥미’를 넘어 유네스코가 인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신적 가치’의 계승과 재해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삼백살, 20학번>은 한국 서원의 아름다움이라는 장소성과 건축미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지만 9개 서원의 ‘정신적 가치’까지 담아내지는 못했다.

예로, 옥산서원은 타임슬립한 유생 3인방이 300년 전 조선에서 가져온 유물을 팔아 돈을 구하기 위해 그저 유물 감정사를 만나는 ‘약속장소’ 정도로 소모되고 있을 뿐이다. 웹드라마의 제작 목적 자체가 서원에 대한 국내외 미래 세대의 ‘관심 촉발’과 ‘인지도 상승’에 있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고,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과이다. 그러나 1단계로 홍보에 성공했다면, 이제 대중성과 흥미 뿐 아니라 ‘한국 서원의 정신적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형식의 고품격 컨텐츠들이 생산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 학제간 융합연구팀에서 3년간 연구 끝에 제작한 ‘성학십도 VR’은 전통문화의 ‘정신적 가치’와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한 컨텐츠의 좋은 예시 중 하나이다.

이 연구팀은 VR의 인문학적 가능성을 3년 전부터 탐색하고, 퇴계가 평생 탐구, 압축해 성학십도에 담아낸 조선 성리학의 개념들이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이를 현대의 VR 기술로 재구성하여 생생한 시공간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만져질 듯한 경험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다수의 퇴계 철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VR 테크 기업들과 MOU를 맺어 연구의 완성도와 엄밀함을 높였으며, '성학십도 VR'을 통해 조선 성리학이 풀어낸 생태적 세계관을 ‘K-철학’이란 이름 하에 세계에 새로운 화두로 던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 성학십도 VR https://youtu.be/dc3Xr4WQBcU
○ 성학십도 VR 제작 및 각 도 소개 https://youtu.be/1ttmjt0u6RQ

첨단 기술을 포함한 학제 간 융합연구와 '성학십도 VR'은 '한국 서원의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기반으로 미래 서원 연구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이 계획하고 있는 서원 연구를 위한 인문학적 지원은 '서원 기록유산의 DB 구축'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의 서원문화에 대한 기초 정보와 9개 서원의 공간구조를 소개하는 실감형 컨텐츠들은 이미 제작,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연구와 지원으로 완성 가능한 실감형 컨텐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학십도 VR' 수준으로 재구성이 가능한 다양하고 풍부한 원형 컨텐츠들이 서원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 기록유산의 DB 구축' 뿐 아니라 원문 자료의 번역, 가공 등 보다 장기적 연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예학의 공간, 세계유산 서원의 가치 제고'라는 문화재청이 제시한 서원 활용 계획의 비전과 '세계유산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증진' 및 '서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업이다.

5. 9개 서원의 교육 프로그램

1) 남계서원: "백세청풍을 탐닉하다"(함양군청 문화관광과, 남계서원)
○ 함양 화림동천길-함양문화재 중심의 1박 2일 인문학여행
-기간: 10월~11월 토일 총 5회
-코스: 남계서원, 함양상림숲, 화산십이곡, 화림동천, 동계고택, 모리재
-대상 : 수도권 5~60대(2회 50명씩) / 경남권 6~70대(3회 50명씩)

○ 일두 백세청풍길-영남유학자 유적지 중심의 당일 문화관광

–기간: 9월 매주 일요일 총 4회

–코스: 남계서원, 함양상림숲, 화산십이곡, 화림동천, 동계고택, 모리재, 남명 산천재, 점필재 생가

○ 남계서원 사예체험–남계서원 중심의 예악사서(禮樂射書) 체험형 프로그램

–기간: 9월 매주 토요일 총 4회

–장소: 남계서원, 청계서원, 군자의 길, 논어의 길

–대상: 경남권 30~50대(매회 100명)

–내용: 의례체험, 다례체험, 활쏘기, 캘리그라피와 함께 하는 문자도 체험, 군자의 길 산책

○ 숲길 인문학강좌

–11월~12월 매주 토요일 총 4회

–대상: 함양군 유림, 군민(매회 50명)

–내용: 군자의 길 산책하며 논어공부와 숲 체험

계획서에는 <1강–김종직의 무오사화/ 2강–정여창과 백세청풍정신/ 3강–남명 조식과 영남선비/ 4강–함양의 선비정신/ 5강–공자에게 지혜를 묻다>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논어 강독.

2) 도동서원: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달성군청 관광과, (재)달성문화재단 담당)

○ 도동서원의 하루

–기간: 5월~11월

–장소: 도동서원

–대상: 어린이

–내용: 도동서원의 건축, 풍경,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체험 교구를 통해 다각화적인 시선으로 서원 탐방하기

○ 도동 선비생활

-기간: 5월~11월

-장소: 도동서원

-대상: 청소년

-내용: 한훤당 김굉필 선생이 지은 시를 감상하며 그의 인문학적 사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선비문화 이해하기(시조, 사자소학, 목판인쇄체험)

○ 도동 문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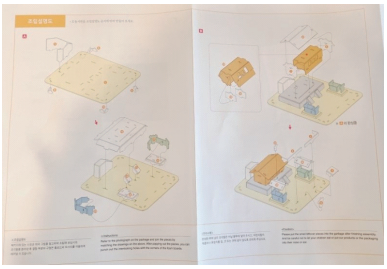
-기간: 5월~11월

-장소: 도동서원

-대상: 성인

-내용: 도동서원을 문화가 넘치는 공간이자 쉼터로 활용하며 다양한 예체능을 체험하며 일상의 여유와 즐거움을 느껴보기

○ 도동서원 모형 만들기(대구 교육박물관)



3) 도산서원

○ 도산서원 참 알기 해설 및 알묘체험 프로그램(안동시청 문화유산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기간: 1월~12월

–장소: 도산서원

–대상: 일반인

–내용: 도산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치와 퇴계선생의 선비정신 등을 서원 참알기 도우미를 통해 체득하고 서원의 고유행사인 알묘례를 직접 체험.

○ 도산서원과 함께하는 시민 인성체험 프로그램

–기간: 1월~12월

–장소: 도산서원 및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도산유적지 일대

–대상: 학부모, 성인(200~300명)

–내용: 학부모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도산서원과 함께하는 선비정신 인성교육 프로그램

○ 서원 고문서를 통한 서원문화 탐색 프로그램

–기간: 1월~12월

–장소: 도산서원

–대상: 서원 임사 및 시민 등(15명, 연인원 300명)

–내용: 서원에 전승된 고문서를 집중탐색, 서원문화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사회 고급문화로의 승화 및 제공

○ 서원스테이

–기간: 4월~10월, 매주 주말

–장소: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주변 일대

–대상: 가족(학부모, 자녀, 조부모 등), 일반인(동호인 등)

–내용: 퇴계선생과 후손, 후학들의 삶을 배우고 체험, 힐링, 사색을 위한 1박 2일 서원스테이

구분	가족		일반인(동호인)	
영역	현장 탐방 (선비의 삶 느껴보기)	체험 실습 (선비의 삶 체험하기)	현장 탐방 (선비의 삶 느껴보기)	체험 실습 (선비의 삶 체험하기)
주요내용	●도산서원 탐방 ●퇴계종택 방문 ●노송정종택 ●온계종택 ●학봉종택 ●이육사 문학관 ●퇴계시공원 산책 ●유교문화박물관 탐방 ●산림과학박물관 탐방	●도산서원 의례 (알묘례, 도산십이곡, 사자소학) ●도산서원모형만들기 ●퇴계명상길 걷기 ●예의범절 ●정심투호 ●제기차기 ●탁본체험 ●영상시청 ●청량산유산(遊山) ●부모와의 대화시간 ●가족에게 편지쓰기 ●가족 얼굴 그리기 ●가족화합 한마당 ●예안교(선성수상길)	●도산서원 탐방 ●퇴계선생 묘소 ●하계마을 탐방 ●퇴계종택 방문 ●이육사 문학관 ●퇴계시공원 산책 ●유교문화박물관 탐방 ●종가문화 탐방 -노송정종택 -온계종택 -학봉종택	●도산서원 의례 (알묘례,도산십이곡,백록동규) ●활인심방(마음과 몸 관리) ●정심투호 ●퇴계명상길 걷기 ●청량산유산(遊山) ●예안교(선성수상길) ●영상시청
비고	퇴계선생과 후손/후학들의 삶 배우기	체험, 힐링과 사색	퇴계선생과 후손/후학들의 삶 배우기	체험, 힐링과 사색

○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걷기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매일 유튜브 영상 제공)

일자	구간	주제/주요 행사	
4.15.목 (1일차) 8km	□경복궁 사정전 ■두뭇개나루터 공원	**퇴계를 배우는 길**	
		· 개막 13:20~14:00 · 도산십이곡 제창 · 귀향길 재현이 갖는 의미 - 이광호 국제퇴계학회 명예회장 · 귀향길 노정의 개관 및 특징 -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경복궁 사정전, 광화문
4.16.금 (2일차) 7km	□두뭇개나루터 공원 ■봉은사	**참 좋은 사람을 따라 걷다**	
		· 강연 ① 퇴계와 불교: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봉은사

		② 사명대사와 안동선비: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박사	(보우당)
		· 시(詩) 창수: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 사암 박순, 고봉 기대승, 고담 이순인의 전별시와 선생의 화답시	동호대교 남측 한강변
4.17.토 (3일차) 19km	□봉은사 ■미음나루	**나의 진휴(眞休)를 막지 마시오**	
		· 시 창수: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 정존재 이담에게 준 퇴계선생의 화답시	광나루 (광진교 북쪽)
		· 낭독: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 퇴계와 정존재, 광나루에서 만나다	미음나루
4.18.일 (4일차) 29km	□미음나루 ■한여울 (국수역)	**퇴계의 학맥을 이은 성호와 다산**	
		· 낭독: 이한방 영남퇴계학연구원 사무국장 – 이익의 <이자수어>, 정약용의 <도산사숙록> – 매화분을 선물한 김취려	한여울 전망대
4.19.월 (5일) 23km	□한여울 ■배개나루 (이포나루)	**사상을 초월한 퇴계의 폭넓은 우정**	
		· 낭독: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퇴계와 모재(김안국), 두 명현의 만남	이포보 인근
4.20.화 (6일차) 31km	□배개나루 ■흔바위나루 (강천섬)	**풀려나간 마음을 찾아서**	
		· 시 창수: 이갑규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 주임교수 – 치재 홍인우를 그리워하는 퇴계선생의 시 · 낭독: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진흥본부장 – 신륵사 나루에서 옛 제자 생각에 눈물짓다	신륵사 건너편 (조포나루터)
4.21.수 (7일차) 29km	□흔바위나루 ■가흥창 (가흥초등학교)	**이곳에 와보지 않은 사람은 한국사람이 아니다**	
		· 시 창수: 이갑규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 주임교수 – 충청감사 송당 유홍의 증시와 퇴계선생의 차운시 첫 번째 수 · 낭독: 김언종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퇴계사상의 핵심은 敬	가흥창 터 (가흥초등학교)
4.22.목 (8일차) 20km	□가흥창 ■충청감영 (충주관아공원)	**높은 산 우러르며 큰 길을 간다**	
		· 시 창수: 이갑규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 주임교수 – 퇴계선생의 차운시 두 번째 수 · 낭독: 이갑규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 주임교수 – 퇴계와 송당 유홍의 특별한 인연	충청감영 (충주관아공원)

4.23.금 (9일차) 5km+ 선편20km	□ 충청감영 ■ 청풍관아 (청풍문화재단지)	**한벽루에 올라 청풍호를 바라보니**	
		· 한벽루 퇴계선생 시판 제막 행사 –제막: 이상천 제천시장,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등 –시 창수: 강구율 동양대학교 교수 – 퇴계선생의 한벽루 시 · 낭독: 안병걸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 퇴계와 성암 이지번의 교유	한벽루 (청풍 문화재단지)
4.24.토 (10일차) 선편13km +9km	□ 청풍관아 ■ 단양향교	**퇴계는 뭍길로 우리는 물길로**	
		· 시 창수: 강구율 동양대학교 교수 – 단양군수 시절의 퇴계선생 시 · 낭독: 권갑현 동양대학교 명예교수 – 단양의 절경을 시에 담다	단성수몰 이주민 기념관 앞 단양향교 앞
4.25.일 (11일차) 22km	□ 단양향교 ■ 풍기관아 (풍기초등학교)	**두려운 벼슬길 정녕 넘기 어려웠네**	
		· 시 창수: 강구율 동양대학교 교수 – 퇴계선생의 촉령대운과 온계선생의 차운시 · 낭독: 강구율 동양대학교 교수 – 죽령을 넘으며 형님을 그리워하다	교남제일관 (죽령루) 풍기관아터 (풍기초등학교)
4.26.월 (12일차) 20km	□ 풍기관아 ■ 영주 두월리	**퇴계의 공감 능력과 여성 존중**	
		· 낭독: 황상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인생의 나침반이었던 할머니와 어머니 · 참배: 김해허씨(퇴계선생 초취부인) 묘소	두월1교차로 종착지 김해허씨묘소
4.27.화 (13일차) 20km	□ 영주 두월리 ■ 삽골재	**드디어 도산이다**	
		· 시 창수: 허권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 퇴계선생의 삽골재 시 · 낭독: 이치억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 도산이 멀지 않구나	삽골재 시판 앞 삽골재 넘어 종착지
4.28.수 (14일차) 1km	□ 삽골재 ■ 도산서원	**도산에서 마주한 장엄한 낙조**	
		· 폐막 10:00~12:00 · 상덕사 고유 · 도산십이곡 제창 · 시 창수: 허권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 퇴계선생의 매화 시 · 소감 나누기/ 마무리	상덕사(사당) 도산서당

4) 돈암서원: “돈암서원 禮 힐링캠프”(논산시청 문화체육과, 돈암서원)

○ 돈암만인소운동–“우리의 예절을 우리가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기간: 3월~12월

–장소: 돈암서원

–대상:

· 병아리만인소 :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유아(15회)

· 꿈길만인소 : 청소년(40회)

· 오픈만인소 : 일반인, 외국인, 관광객(15회)

–내용: 선비들의 사회참여, 실천운동이었던 만인소 소재를 현대적으로 해석, 재구성하여 도덕적 가치의 실천을 위한 전국민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기획

· 병아리만인소: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려서 배우는 올바른 예절교육으로 착한 인성을 마음에 담기

· 꿈길만인소 :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계김장생선생의 예학정신을 일깨워 인성을 함양하고, 바른 인성을 다짐하는 선언 프로그램

· 오픈만인소 : 지역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성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학정신을 알아보고 고유의 전통예절을 알리는 교육활동

○ 돈암 콜로키움

① 돈암, 동고동학(同考同學)

–기간: 3월~11월 매주 목요일 19:00~21:00

–장소: 돈암서원

–대상: 문화해설사, 문화재전문가(회당 15명, 총 240명)

–내용: “돈암, 그 기록을 살피다”–돈암서원의 원문 자료 번역, 역주 작업과 지역유림 및 문화재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고품격 포럼.

② 서원 동자(同子)

-기간: 3월~11월 매주 토요일 09:00~14:00

-장소: 돈암서원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회당 18명, 총 432명)

-내용: '서원에서 다 같이 아이를 기른다.'라는 의미로 문화재 접근이 어려운 발달장애 청소년과 성인에게 문화체험 공방, 문화 쉼터 제공

○ 돈암 예절 사관학교

① 사계의 길

-기간: 3월~11월 매주 토요일 09:30~12:30(총 20회)

-장소: 돈암서원

-대상: 학교 교사 및 관련 산업 종사자(회당 20명, 총 400명)

-내용: 예술적 조형성이 뛰어난 돈암서원의 현판과 꽃담 글씨를 직접 써보고 글씨를 쓸 때 힘의 강약과 표현의 자유로움, 추상성, 회화성, 적합성을 알아보기.

② 사계의 귀환

-기간: 4월~11월

-장소: 돈암서원

-대상: 문화재전문가, 지역민, 관광객(200명 이상)

-내용: 사계선생 서거 390주년 기념 판각 봉안 행사 및 축하 공연

③ 생활예절교실

-기간: 3월~11월(총 16회)

-장소: 충남 인터넷고

-대상: 실업계 고등학생(회당 40명, 총 640명)

-내용: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시 필요한 면접 및 직장 예절교육과 자기관리 수업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2014년부터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인성교육예절사' 자격증 수여.

○ 돈암 문화살롱

-기간: 4월~10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14:00(월 2회, 총 10회)

-장소: 돈암서원

-대상: 청소년, 지역민, 관광객(회당 50명, 총 500명)

-내용: 서원의 향촌교화 기능을 현대적으로 적용, 청소년 및 시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문학강연과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CONTENTS

생활 속 국악이야기 / 유은선
국악실내악단 다스름(DASRUM)
2021년 4월 10일

시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 공혜경
'로맨틱 앙상블'과 함께 하는 세계음악여행
2021년 4월 24일

퍼스널브랜딩이 답이다 / 지성언
더클래식 목관오중주
2021년 5월 8일

일상에서 디자인하기, 나의 이미지 만들기 / 엄주원
가야금앙상블 사계
2021년 5월 22일

아다지에토 - 광고 감독의 사적인 카메라 / 유대얼
한국가곡앙상블 아랑
2021년 6월 12일

내앞에 펼쳐진 풍경 / 안보현
색소폰콰르텟 SaxoFOUR
2021년 6월 26일

디지털변화와 디지펀아트 / 안승준
앙상블 Odeum
2021년 7월 10일

한국의 미, 한국무용에서 답을 얻다 / 이윤정
더클래식 오페라앙상블
2021년 7월 24일

예술과 기술의 특이점 : 예술과 데이터가 만났을 때 / 조충연
더클래식 현악앙상블
2021년 8월 14일

소소한 이미지 메이킹 / 박나현
프로젝트 앙상블 마치 & 바리톤 오세민
2021년 8월 28일

5) 무성서원: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루絃歌樓의 풍류를 찾아서"(정읍시청 문화예술과, 무성서원모현회, 무성서원 문화재활용사업단)

○ 풍류방에서 피어나는 풍류와 도

-기간: 3월~12월(강연 4회, 공연 1회)

-장소: 무성서원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용: 최치원과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로 알아보는 풍류와 도

○ 최치원, 정극인 관련 국내 답사

-기간: 3월~12월(총 5회), 1일 또는 1박2일

-장소: 국내관련 유적지 일원

-대상: 지역 유림 및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최치원과 정극인 관련 국내 답사

○ 무성서원 예에서 놀다

-기간: ①3월~12월(1박2일, 8회)/ ②5월 중(1회)/ ③ 월 2회(총 20회)

-장소: 무성서원

-대상: ①다문화가족, 학생, 일반인(회당 20명)/ ②③도내 중 · 고등학생, 유림

-내용: ①서원스테이 프로그램으로 1박2일 동안 선비정신과 전통문화 체험 ②상춘백일장 ③삭망분향례

○ 선비정신, 학에 기대다

-기간: 3월~12월(총 20회, 2강좌)

-장소: 무성서원, 태산선비관

-대상: 학생 및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강학당(정가, 서예)을 운영하여 고전의 지혜를 느끼고 서원 본연의 목적 기여

○ 제1회 무성서원 백일장

-기간: 2021년 8월 16일~10월 15일

-응모방법: 무성서원 이메일

-대상: 누구나(장르는 시, 산문)

-주제: ①불우헌(不憂軒) 정극인 등 무성서원 배향 인물의 삶과 사상
②정읍시 소재 문화재(유무형) ③봄(春)

-시상: 500만원(대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6) 병산서원: "서원건축의 백미 만대루"(안동시청 문화유산과, (사)하회마을보존회)

○ 세계유산 인문캠프 및 강학

-기간: 인문캠프-3월~12월 1박 2일(총 12회, 회당 20명 내요)/
강학-유교문화 관련 명사 초청 강의(14시~17시, 총 2회)

-장소: 병산서원

-대상: 중고생부터 시작, 8월부터 일반인으로 확대

-내용: ① 서원체험을 통해 옛 선조들의 공부법 및 서원교육 이해
②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잇는 유교 문화길(선비길)을 걸으면서 선비정신을 체험
③ 서원에서의 1박을 통해 서원의 예절을 배우고 경험

<세계유산 인문캠프 세부 프로그램>

세계유산 인문캠프 세부시간계획

시간계획		세부일정	장 소	비 고
1일차	15:00~15:30	서원입교	서원동재	시도기 작성 및 입교준비
	15:30~16:00	방배정 및 도복착용	입교당	숙소별 사물정리, 도복 착용
	16:00~17:00	입교식 및 묘우참배	입교당 및 존덕사	
	17:00~18:00	제1강의(백록동규)	입교당	백록동규, 서원예절, 가계도
	18:00~19:00	저녁식사	주사채	
	19:00~20:00	제2강의	입교당	서원역사 및 선현의 발자취
	20:00~21:00	부모님께 효도편지 쓰기	만대루	서원입교에 대한 소감정리
	21:00~21:30	소감문 발표 및 야화	만대루	
	21:30~22:00	세면 및 취침		
2일차	07:00~08:00	기상 및 낙동강변 걷기	서원 앞 강변	
	08:00~09:00	세면 및 아침식사	주사채	
	09:00~09:30	수료식	입교당	
	09:30~10:00	짐정리 및 퇴소		

○ 목판, 알묘 체험프로그램

-기간: 3월~12월

-장소: 병산서원

-대상: 일반인

-내용: 서애선생 묘우 참배 목판체험과 해설 지원

7) 소수서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스테이(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기간: 3월~12월(1박 2일, 총 8회)

-장소: 소수서원, 선비촌

-대상: 일반인, 신청자(회당 40명, 총 320명)

-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제향문화계승 및 체험 / 유생복 체험과 생활예절 실습 / 우리가락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 체험 / 선비촌 고택 숙박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활동

○ 소수서원 학맥계승을 위한 사마선비 양성과정(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기간: 2021년 5월~10월 매주 토요일(총 24회)

-대상: 제한없음

-내용: 조선시대 소수서원에서 실제로 배우던 유가경전과 시문 중심의 강학교육을 계승하여 그대로 시행. 생원반 수업을 통하여 실제로 소수서원 생원 학위증을 수여하여 조선시대 서원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소학, 사서, 주자서, 선진·진한·위진산문, 경재잠, 소수서원학규, 소수서원 도동곡)

○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기간: 2019년 9월 20일 ~ 2020년 5월 31일

-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특별기획전. 백운동서원의 건립부터 소수서원으로의 사액, 2019년 세계유산 등재까지의 과정을 소개.

· 1전시-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 2전시- 소수서원의 '보물'

· 3전시- 소수서원의 배향인물 및 제향

· 4전시- 소수서원의 역할과 기능

· 5전시- 소수서원의 출신인물

· 6전시- 세계문화유산 소수서원

-온라인전시관 운영(5분 11초)

○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기간: 2020년 6월 15일~7월 31일

-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2020 세계유산 축전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소수서원을 포함한 9개 서원의 풍광을 그린 '이호신' 화백의 수묵화 전시.

-온라인전시관 운영(22분 15초)

○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선비의 영원한 벗, 문방사우'

-기간: 2020년 8월 7일~2021년 9월 30일

-내용: 2020 세계유산 축전을 기념하여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문방사우 장인들의 전통문화 계승 ·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

-온라인전시관 운영(14분 42초)

○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찬란한 문화의 보고寶庫, 순흥'

-기간: 2021년 10월 15일~2022년 4월 22일

-내용: '순흥도호부'로 이름난 큰 고을이었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분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를 발전시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순흥(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

○ '문화가 있는 날' 무료 관람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관람을 무료로 운영.

○ 소수서원 사이버체험관(소수서원 홈페이지 내)

: 항공뷰와 360도 VR 영상, 각 건물 내부의 VR 영상도 제공, 소수박물관 각 전시실 VR 영상.

8) 옥산서원 "서원書院에서 배우는 21C 문화 리더쉽"(경주시청 문화재과, 신라문화원)

○ 茶향 가득한 옥산서원

기간: 4월~10월 매주 토, 일요일 11:00~17:00(월 8회, 총 58회)

대상: 청소년, 시민, 단체,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회당 80명, 총 4,640명)

장소: 옥산서원

내용: 배향인물 탐구/ 다도&생활예절/ 붓글씨/ 이언적 소개극/ 선비풍류(국악공

연)/ 옥산 구곡 탐방/ 선비향기체험(석고방향제 만들기)

○ 유유자적(悠悠自適) 선비체험(4월~10월 1, 3주 토요일)
○ 新화랑풍류체험(4월~10월 2, 5주 토요일)
○ 신라달빛기행(5월~10월 4주 토요일)

○ 옥산서원, 서악서원 사진 공모전
-기간: 10월 14일~31일
-내용: 옥산, 서악서원 사계를 촬영한 작품 공모.
총 30점 선정, 11월 23일 시상, 총상금 250만원.

○ 옥산, 서악 음악회(4월 24일부터 매 주 토요일)

9) 필암서원: "청렴·절의·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장성군청 문화관광과, 장성향교)
○ 청렴, 절의, 의기 찾아 떠나는 1박2일 선비문화체험 여행
-기간: ①1박 2일, 4월~12월(10회), ②4월~12월(8회)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25~30명)
-장소: 장성향교, 필암서원, 고산서원
-내용: ①인성교육(인문학강좌)/ 승경도 놀이/ 전통 예절 및 다례체험/ 서원 관련 탁본 체험, 캘리그라피/ 전통문화체험, 전통한지공예체험/ 주먹밥 및 탕평채 만들어 먹기(청렴 체험) / 사랑의 편지쓰기(유서쓰기) 및 세족식 / 편백비누 만들기 / 전통 천연염색체험 /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모빌 제작/ ②풍등 날리기

○ 수요문화 마실 "문화의 날 풍류여행"
-기간: 4월~12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8회)
-대상: 지역민, 관광객(회당 100명 이내)

-장소: 장성향교, 필암서원, 고산서원, 향교 등
-내용: 국악 공연(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판소리 등)

6. 9개 서원 교육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1) 성과

첫째,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으로 9개 서원의 통합관리 시스템 및 통합 교육, 홍보, 소통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한국 서원 및 9개 서원에 대한 풍부한 컨텐츠를 통합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둘째, 7~8년 전의 교육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연령(유초등, 중등, 대학생, 성인), 대상(외국인, 관광객, 유림, 학부모, 가족, 교사, 해설사 등 전문인력,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수요층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 다양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차츰 구축되고 있다. 또한 수요 대상의 다양화 뿐 아니라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예절교육, 한문, 서예, 의례체험 등 획일화된 천편일률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전통 가치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예학'을 돈암서원만의 특성화된 공통 테마로 삼되, 연령별, 수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돈암서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좋은 사례이다.

셋째, '폐쇄적, 구시대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고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차츰 변모해가고 있다. 그 예로, 최근 인문학의 트렌드와 대중적 관심사를 반영하여 현대 인문학 주제와 다양한 문화공연을 결합시킨 돈암서원의 '돈암 문화살롱'은 서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의 테마가 꼭 서원이나 전통문화일 필요는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관람, 도산서원을 무료로 개방하는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사례는 서원에 대한 보다 친숙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넷째, 자유학기제, 직업 및 진로 체험 등 공교육의 커리큘럼과 연계한 몇 몇 서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은 서원 교육과 활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2) 과제

첫째, 한국 서원의 '정신적 가치'와 '대중성' 중 대중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여전히 단편적,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에 치중된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한국 서원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중 보편성에 더 치우친 경향이 있다. '정신적 가치와 대중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 미래와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예로, 남계서원의 경우 '함양문화재 중심', '영남유학자 유적 중심'이라는 컨셉으로 기획한 당일 및 1박 2일의 인문학여행은 남계서원 뿐 아니라 인근의 역사문화유적과 인문학적, 자연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일반 관광객 및 여행객들에게 유의미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령별, 관심사별로 수요층에 따라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부족하다. 사실 화림동계곡과 선비문화탐방로는 세계유산 등재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던 곳이었다. 또한 인문학강좌도 홈페이지 상에는 남계서원 및 지역학 관련 내용으로 구상되었으나 실제 프로그램은 숲길 산책과 논어 강독으로 4회차 모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다른 서원에는 없는 남계서원의 풍부한 원형 컨텐츠를 활용, 가공하여 보편성과 더불어 특수성이 확보된 남계서원만의 고유한 교육 프로그램 계발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대중이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이 계발되었으나 대학생, 전통문화 전공자, 전문 연구자 등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믹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퇴계학 강연과 시 낭독, 걷기와 답사 체험을 결합한 도산서원의 '퇴계의 귀향길 재현 걷기'는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 외에 각 서원이 소재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교양과목이나 지역학 강좌에 서원을 주제로 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차세대 서원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에 구축된 풍부한 컨텐츠들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통합 홈페이지의 존재 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9개 서원 관련 소식이나 정보가 통합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예로, 남계서원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으나 통합 홈페이지에서는 링크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9개 서원 중 홈페이지가 개설된 소수, 남계, 도산, 병산, 돈암서원의 홈페이지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용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나 최근 게시물이 대부분 1-2년 전 것으로 아직까지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넷째, 각 서원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서원마다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데, 운영주체와 서원 등 유관기관들 사이의 연계나 협력이 미비하여 수요 대상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나 실질적인 참여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예로, '소수서원 스테이' 등 소수서원의 경우 현재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은 소수서원이 아닌 동양대학교 선비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서원 홈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한 공지나 홍보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홈페이지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옥산, 필암, 도동, 무성서원은 일반인의 경우 사전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옥산서원의 경우 신라문화원 홈페이지에 '살아있는 향교서원' 사업을 공지하고 있으며, 필암서원은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필암서원 항공 및 360도 VR, 음성 오디오, 연혁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 공지는 찾기 어렵다. 또 도동서원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마당' 중 2021년 주요사업에 「2021 지역문화재 활용사업(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4월~11월)라는 공지만 있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신청방법, 프로그램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무성서원의 경우도 정읍시청, 무성서원 모현회, 무성서원 문화재활용사업단 등에서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에 무성서원 블로그가 있다고 하나 찾기 어렵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및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 가능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서원의 교육환경 –세계유산 등재 전후 문화재청 정책과 9개 서원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순한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1. 발표자께서는 “한국 서원의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교육과 활용을 위해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국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대중성’ 뿐 아니라 ‘정신적 가치’의 계승과 재해석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서원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연령과 수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되어야”하며, 또 한국 서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함을 동시에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요 대상의 특성에 따라 ‘대중성과 정신적 가치’ 그리고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어쩌면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령, 수요층이 서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유초등생들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정신적 가치’나 ‘특수성’보다는 ‘대중성이나 흥미, 보편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수요층이 대학생 이상 혹은 전문가 수준일 경우에만 대중성보다는 ‘정신적 가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수요층이 누구냐와 무관하게 ‘대중성과 정신적 가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갖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둘 중 하나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문화재청이 서원에 대한 국내외 미래 세대의 ‘관심 촉발’과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제작한 웹드라마 <삼백살, 20학번>은 한국 서원의 아름다움이라는 장소성과 건축미를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1단계로 세계에 한국서원을 홍보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9개 서원의 ‘정신적 가치’까지 담아내지는 못한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향후 과제로 "대중성과 흥미 뿐 아니라 '한국 서원의 정신적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형식의 고품격 컨텐츠 생산이 필요하며, 그 예시로 '성학십도 VR'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웹드라마'라는 컨텐츠의 특성과 임펙트는 다른 형식의 컨텐츠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식의 고품격 컨텐츠로 웹드라마의 한계를 '대신'하기보다는 각 컨텐츠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각각 고유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삼백살, 20학번>의 '시즌 2'를 열렬히 기다리는 국내외 누리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웹드라마는 그 형식대로 계속 제작하여 국내외 미래 세대에게 한국 서원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성학십도 VR'과 같은 좀 더 수준 높은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는 별도로 제작하여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한국 서원의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문화재청이 계획하고 있는 '서원 기록유산의 DB 구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 원문자료의 번역, 가공 등 좀 더 장기적이고 폭넓은 서원 연구에 대한 인문학적 지원과 투자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과업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혹시 발표자께서 고민해보신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원의 인성교육

한재훈
(연세대 연구교수)

1. 서론

인터넷 검색창에 '서원'과 '인성교육'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영천 임고서원, '인성교육'은 영천(永川)"(2014. 3. 12. 영천타임뉴스), "돈암서원, 인성교육의 장(場)으로 거듭난다"(2015. 10. 20. 목요저널), "도동서원 인성교육 체험활동"(2018. 8. 3. 영남선비문화수련원) 등과 같은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원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들 중에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서원을 인성 및 예절, 창의성 키우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는 '옥계서원 인성사랑 캠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족 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유치원'은 율동으로 배우는 다도·예절 체험, 협동으로 즐기는 민속놀이 체험(팽이, 딱지, 비석), 오물조물 짝꿍 닮은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나들이'는 전통문양 탐험놀이(공동체놀이), 부모님께 드리는 예쁜 쿠키 만들기, 공예 클래스(가죽, 짚풀, 와이어,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추진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어떤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엄숙하고 굳게 닫힌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던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

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펼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관련 사진으로 해당 서원에서 진행한 판소리 공연 사진을 싣고 있다.

▲ 돈암서원 판소리 공연

여기에서 예로 든 서원에서 진행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이 굳이 서원이라는 공간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가', 또는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이 인성교육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과 하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물음은 여기에서 예로 든 해당 서원에 제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오늘 우리가 '서원의 인성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 사례들에 기대어 제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전시성 활동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지양하고, 조금 더 '서원'과 '인성'의 본질을 진지하게 묻고 그 위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불가능할까? 즉, '서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 서원에서 진행하는 '인성교육'만이 갖는 특별함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본 발표문은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儒學이 지향하는 '聖人'지향형 인성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 등과 '聖人' 사이에는 이질적 괴리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유학에서 '聖人'은 끊임없이 그 성격과 내용이 변화하면서 인성교육의 푯대로 제시되었다. 서원의 인성교육 역시 유학의 '聖人'지향형 인성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산을 오르다 길을 잃었다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 길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것이 얼핏 바보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聖人'이라는 지극히 원론적 접근을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2. 맹자의 성선설과 성인

孔子 이전 시기의 고전들 속에 등장하는 '聖' 또는 '聖人'은 대체로 '총명함' 또는 '총명한 사람'을 가리킨다. 顧詰剛(1893-1980)은 '聖'자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유력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聖'자는 원래 '귀[耳]'와 '입[口]'이 결합된 간략한 형태의 회의자인 '耶'였고, 나중에 여기에 '壬'자가 더해져 형성자인 '聖'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이해한다[聲入心通]' 또는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온다[入于耳而出于口]'로 설명되며, 이는 모두 '총명함'을 설명하는 것들이라고 한다.[1] 許愼(58?-147?)의 『說文解字』에서는 '聖'자를 '귀[耳]'의 뜻에 '정(呈)'의 소리가 결합된[從耳呈聲] 形聲字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일견 顧詰剛의 문자학적 설명과 유사하다. 그러나 段玉裁(1735-1815)는 『說文解字注』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聖'자의 '총명함'이 가리키는 차원이 특별한 것임을 연상케 한다.

> "'聖'자가 '耳'자를 따른 것은 '귀가 모든 소리에 거스름이 없음'[耳順]을 말한다. 『風俗通』에는 '聖은 聲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소리를 들으면 정황을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생각건대, '聲'자와 '聖'자는 옛날에 서로 가차해서 사용했을 것이다."[2]

段玉裁가 인용한 應劭(?-204)의 『風俗通』에서 언급한 '聖은 聲이다'라는 설명은 '聖'자가 단순히 똑똑하다는 의미의 '총명함' 이상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聲' 즉 '소리'는 어떤 소리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말'만을 가리키는 것일까? 혹시 인간의 말과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보통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감지해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 또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聖'이 아닐까? 『國語』「楚語」의 다음 이야기는 이러한 상상이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1) 顧詰剛, 「聖賢觀念和字意的演變」, 『中國哲學』第1輯, 三聯書店, 1979, pp.80~81쪽
2) 段玉裁, 『說文解字注』.

을 방증한다.

"그 '智'는 위와 아래를 헤아릴 수 있고, 그 '聖'은 멀리까지 빛이 퍼져 밝게 할 수 있으며, 그 '明'은 모든 것을 밝게 비출 수 있고, 그 '聰'은 모든 것을 모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밝은 신명이 강림하나니, 그가 남자이면 '覡'이라 하고 여자이면 '巫'라고 합니다."[3]

여기에서 '聖'은 신명의 강림을 받는 '巫覡'이 갖춘 능력들 중 한 가지로 언급되고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巫'를 "춤을 추어 신명을 강림하게 하는 사람"[以舞降神者]으로, '覡'을 "정돈되고 엄숙함으로 신명을 섬기는 사람"[能齊肅事神明]으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 韋昭(201-273)는 『國語』「楚語」의 위 글에 대한 주석에서 "巫와 覡은 반드시 여자와 남자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巫覡은 귀신을 보는 사람"[巫覡, 見鬼者.]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巫覡은 신명을 강림하게 하고, 신명을 섬기기도 하며, 귀신을 보기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巫覡이 갖추어야 할 능력들 중 하나로 '聖'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吳震은 "실제로 가장 이른 '聖'의 개념은 상고시대의 무격문화에서 이미 나타났다"고 하면서, "聰·明·聖·智는 무격이 평범함과는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보통사람들의 감각능력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종류의 능력을 '聰明'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4] 김종석은 "이러한 능력을 지닌 자들은 聖을 체득한 신의 대변자이며, 지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보았다.[5] 張光直은 상고시대 제왕이 하는 일이 곧 무격이 하는 일과 같다면서, 제왕은 곧 무격의 우두머리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적어도 무격문화가 정치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6] 즉, 祭·政이 분리되지 않았던 신화의 시대에 제사장(무격)이 곧 제왕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聖王이라는 개념

3) 『國語』「楚語」下.
4) 吳震, 「중국사상사에서의 성인 관념」, 『퇴계학논집』 제10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p5.
5) 김종석, 「유가사상과 신화적 사유의 상호관계성 연구」, 『한국철학논집』5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5, 261쪽.
6) 張光直(이철 옮김), 『신화 미술 제사』, 동문선, 1995, 85~86쪽.

의 원형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흔적들이 깃들어 있다.

堯는 그의 후계자인 舜에게 "아! 너 舜아, 하늘의 曆數가 너의 몸에 있으니"라는 말로 제위를 선양하였고,[7] 섭위를 받아들인 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제에게 類라는 제사를 올리고, 六宗(계절·기후·해·달·별·홍수와 가뭄을 관장하는 신들)에게 禋이라는 제사를 올리고, 산천의 신들에게 望이라는 제사를 올리고, 그밖에 여러 신들에게도 빠짐없이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다.[8] 이후에 가미된 철학적 해석의 도움을 걷어내고 오래전 기록에 등장하는 堯와 舜의 행위들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그들에게서 제사장이었던 제왕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유학을 창시한 공자에 이르면 '聖' 관념에 약간의 변화가 발견된다. 공자의 '聖' 관념에서도 제사장의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무격이 아닌 성왕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다.

> 子貢이 말했다. "만일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대중을 능히 구제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仁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孔子가 말했다. "어찌 仁에 해당하겠는가? 필시 聖일 것이다. 堯임금과 舜임금도 이 점에서 부족하다고 여기셨다."[9]

'聖王'에 담긴 공자의 '聖'관념은 명백하게 '주술의 도덕화 또는 종교의 학문화라는 인문주의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聖'은 여전히 인간의 노력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인간형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인간에게는 아직 요원한 존재이다.[11]

유학에서 '聖' 또는 '聖人'이 인간 존재를 설명하고 인간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인간관 속으로 들어온 것은 공자 이후의 일이다. 공자는 결코 그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聖人이 되기를 요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聖人이라고 칭하려

---

7) 『論語』「堯曰」.
8) 『書經』「舜典」.
9) 『論語』「雍也」.
10) 장현근, 「성인의 재탄생과 성왕 대 폭군 구조의 형성」, 『정치사상연구』, 17집 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가을, 110쪽.
11) 김종석, 「유가사상과 신화적 사유의 상호관계성 연구」, 『한국철학논집』5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5, 266쪽.

는 주변의 시선도 단호하게 거부했다.[12] 공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제왕이 아닌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聖人에 도달한 인물을 현실에서 확인한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의 제자들과 그 계승자들은 공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聖 또는 聖人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제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조건을 충족시킨 '孔子'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13]

공자 이후 변화된 성인상을 학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립한 인물은 단연 孟子이다. 그의 '聖'관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은 누구나 堯·舜이 될 수 있다"[14]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주장일 것이다. 堯·舜으로 상징되는 성인을 누구나 도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성인을 더 이상 신화 속의 신격화된 인물로서가 아니라 보통의 인간들과 同類라는 인식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맹자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선언이다.

滕文公이 아직 세자였을 당시 맹자는 세자에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性善] 이야기를 해주면서 반드시 요순을 언급했다.[15] 초나라에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찾아온 세자에게 맹자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해 다시 찾아온 것이냐"면서, 요순과 같은 성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나 의구심을 버리라고 충고한다.[16] 맹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제나라의 宣王에게 요순은 물론 殷王朝의 湯王과 周王朝의 文王·武王으로 대표되는 왕도정치의 사례들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진술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닌 그 어떤 말도 임금 앞에서 아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17]

聖과 聖人에 대해 몹시 조심스러워했던 공자와 달리, 맹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당시 군주들에게 소개하면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하라고 권유했다. 또한 공자가

12) 『論語』「述而」.
13) 『孟子』「公孫丑上」.
14) 『孟子』「公孫丑上」.
15) 『孟子』「滕文公上」.
16) 『孟子』「滕文公上」.
17) 『孟子』「公孫丑下」.

인간의 본성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데 비해, 맹자는 적극적으로 性善說을 개진하면서 당시의 군주들이 仁政을 베풀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는 논리로 활용했다. 이런 점에서 맹자는 공자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공자를 닮는 것이 소원이라면서[18] 私淑했던[19] 맹자는 공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성인을 적극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인상을 만들어갔다.

3. 주자의 성리설과 성인

> "처음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聖人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해야 하며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서 물러서거나 핑계 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20]

栗谷 李珥(1536-1584)는 1577년 황해도 해주의 은병정사에 머물면서 초학들에게 학문의 향방을 제시하기 위해 『擊蒙要訣』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율곡은 "聖人이 되겠다"는 뜻을 세워야 학문이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런데 율곡은 이보다 앞선 1575년 이미 『聖學輯要』를 저술하여 임금에게 바쳤고, 그보다 앞선 1568년 退溪 李滉(1501-1570) 역시 『聖學十圖』를 편찬하여 임금에게 올린 바 있다.[21] 이 글들의 제목에 들어간 '聖學'은 물론 帝王學을 의미하며, 그것은 聖學에서 거론하는 제왕들이 본래 성왕들이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聖學의 내용이 제왕이 아닌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맹자 이후 聖人은 모든 인간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인격이 되었다.

---

18) 『孟子』「公孫丑上」.
19) 『孟子』「離婁下」.
20) 『擊蒙要訣』「立志章第一」.
21) 참고로 中國에서 '聖學'을 書名에 넣은 저술은 한국의 『聖學十圖』나 『聖學輯要』보다 약간 늦은 17세기 초에 양명학자인 海門 周汝登(1547-1629)이 저술한 『聖學宗傳』과 念臺 劉宗周(1578-1645)가 저술한 『聖學宗要』에 처음 등장한다.(吳震, 「중국사상사에서의 성인 관념」, 『퇴계학논집』 제10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3쪽.)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聖學'이라는 말이다. '聖學'은 '聖人에 대한 學' 또는 '聖人이 되기 위한 學'으로 해석할 수 있다.[22] 어떻게 해석하든 이 말 속에는 '배움을 통해 聖人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런 이유로 어린 초학자부터 지존인 임금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궁극적 목적이 여기에 두어져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성리학은 이렇게 '聖人이란 배움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濂溪 周惇頤(1017-1073)가 "聖人은 배울 수 있다"[23]고 한 것을 이어, 伊川 程頤(1033-1107)도 "聖人은 배움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24]고 했다. 이후 이러한 생각은 성리학에서 움직일 수 없는 정론이 되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晦庵 朱熹(1130-1200)[25]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聖人의 道는 크지만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그리하면 도달할 수 있다."[26]

그렇다면 성리학에서는 성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주자에 따르면 "성인은 곧 하늘이다."[27] 이 간명하면서도 단호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 세상은 하늘의 뜻에 따라 주재되지만, 정작 하늘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늘을 대신해 그 뜻을 시행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가 바로 성인이다.[28] 성인은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다.[29]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天理만이 충만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의 행사에 드러날 뿐이다.[30] 그렇기 때문에 그의 一動一靜은 모두 하늘의 뜻에

22) '學'은 '학문' 또는 '배움'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學'이 중요한 독립적 개념으로 사용됨을 고려하여 '學'으로 사용함을 밝힌다.
23) 『通書』「聖學第二十」.
24) 『二程集』「顏子所好何學論」.
25) 이하에서는 편의상 '朱子'라고 칭한다.
26) 『孟子集註』「盡心上」.
27) 『朱子語類』68:82.
28) 『朱子語類』14:58.
29) 『朱子語類』73:116.
30) 『朱子語類』130:95.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미 없이 행해지는 것은 없다.[31] 주자가 "성인은 곧 육신으로 서있는 천리"[32]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며, 이 모든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성인은 곧 하늘이다"라는 정의이다.

성리학에서는 성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무한책임을 자각하는 인물이 또한 성인이라고 설명한다. 성인은 천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천하를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한 집안처럼 생각하는 인물이다.[33] 주자는 성인의 무한책임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聖人의 마음은 무궁하여, '세상이 아무리 지극히 잘 다스려진다 한들 온 천하에 제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과연 하나도 없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堯舜도 백성을 편안히 하는 문제에 대해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셨던 것이다. 만일 '나는 이미 충분히 잘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聖人이 아니다."[34]

문제는 보통의 일반대중들이 정말 이처럼 엄청난 성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배움[學]'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인은 초학자들이 아무리 뜻을 단단히 세운다 해도 결코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이며, 천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발분망식을 하며 기질을 교정해간다 해도 성취하기 어려울 듯하다. 성리학이 理氣와 心性에 관해 그토록 정치한 논의들을 축적하고, 수양과 공부에 대해 그처럼 방대한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그 '배움'을 통해 성인이 되었다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였을까? 주자도 그것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 적이 있다.

> "내가 십여 세 무렵 '聖人과 나는 同類'라고 하신 孟子의 말씀을 읽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면서 '聖人도 쉽게 될 수 있구나'라고 여겼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35]

---

31) 『朱子語類』116:30.
32) 『朱子語類』31:67.
33) 『論語集註』「憲問」.
34) 『論語集註』「憲問」.

그렇다고 이 모든 논의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배움'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믿었던 그들의 의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주자는 사람이 '배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될 때, 하늘은 분명 사람에게 仁義禮智라는 본성을 부여하여 君臣·父子의 윤리를 가르치고 사물의 당연한 법칙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氣質의 치우침과 物慾의 가림으로 인해 그 본성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윤리를 어지럽히고 법칙을 망가뜨리고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줄 모릅니다. 반드시 '배움'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正心과 修身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齊家와 治國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배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36]

주자는 윗글에서 그 도덕적 가능성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밝혔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움'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배움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실현하는, 그리하여 도덕을 존재하게끔 해주는 과정"[37]이 되었으며,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실천을 해나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도덕적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터 볼(Peter K. Bol)의 다음과 같은 분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덕에 대한 권위는 정치적 권위를 쥐고 있는 이들보다 도덕을 갈고 닦은 이들에게 있으며, 도덕은 정부의 훈령과 무관하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신유학자들이 사용한 어휘는 바로 '배움[學]'이다. 이때 '배움'과 정치 사이에도 역시 구분이 이루어진다. 정치는 '배움'에 의해 인도되어야만 하는데, '배움'에 대한 권위는 '배움'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아는 이들에게 있을 뿐, '배움'에 종사하고 사회변

35) 『朱子語類』104:4.
36) 『朱子全書』「行宮便殿奏箚二」.
37) Peter K. Bol(김영민 옮김), 『역사 속의 性理學』, 예문서원, 2010, 252쪽.

혁을 위해서 정치적 입지를 가질 필요는 없다."[38]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성리학적 제왕학으로서의 聖學을 떠올리게 된다. '성학'의 논리를 수용하는 순간 군주는 성리학의 자장 안에서 성리학이 제시하는 과정과 그것이 요구하는 목적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성학은 군주 스스로 '자신은 행정조직의 수반일 뿐이며, 인간적으로는 '배움'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39] 그리고 이의 연장선에서 주자의 '道統論'을 연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4. 퇴계가 지향한 서원교육

退溪 李滉(1501-1570)은 당시 영남 지역에 세워진 서원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그 숫자도 가장 많다고 남 얘기하듯 했지만,[40] 그 중심에 퇴계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서원의 확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까닭이 향교가 학문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원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 학문을 실현해보고자 했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바이다. 퇴계는 白雲洞書院에 賜額해줄 것을 청하기 위해 方伯인 沈通源에게 올린 글에서 國學과 달리 鄕校는 교육이 붕괴되었음을 지적하하면서, 교육을 다시 되살릴 희망이 書院에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직 書院에서의 교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오늘 같은 상황에서 盛興한다면 學政의 잘못된 부분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고, 학자들이 依歸할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

38) Peter K. Bol(김영민 옮김), 『역사 속의 性理學』, 예문서원, 2010, 247쪽.
39) Peter K. Bol은 "통치자에게 올린 그리고 통치자에 대해 쓴 朱子의 글에는 두 가지 거대한 테마가 있다"면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통치자도 다른 인간들과 같은 도덕적·지적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며, 마찬가지로 타락에 노출된 인간이라는 점", 둘째는 "통치자는 행정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다.(Peter K. Bol(김영민 옮김), 『역사 속의 性理學』, 예문서원, 2010, 218~220쪽.)
40) 『退溪全書』 卷42, 「易東書院記」.

선비들의 기풍도 따라서 크게 변할 것이고 習俗은 날로 아름다워져서 王化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이 聖治에 기여하는 바 작지 않습니다."[41]

이 글에서 퇴계가 향교가 아닌 서원에서 교육의 희망을 찾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을 되살려내야 하는 이유에 관한 퇴계의 생각을 읽는 것이다. 퇴계는 교육을 시행하는 근본 이유가 王化와 聖治로 표현된 이른바 '좋은 나라'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으로 '선비들의 기풍 변화'와 '아름다운 풍속'을 들고 있다. 정리하자면, 좋은 나라[國]는 결국 그것을 만들어갈 주체인 선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와 직결된다는 말이 된다.

「伊山書院記」에서 퇴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三代의 배움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후세에 성왕이 나오지 않고 옛 도가 붕괴되어 文詞와 科擧, 利祿만을 익히고 사람의 心術은 궤멸시키면서 광란의 물결 속으로 내달려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안으로 國學과 밖으로 鄕校 모두가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배움과 관련하여 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뜻있는 선비들이 긴 한숨을 내쉬며 서책을 부둥켜안고 산속이나 물가로 숨어들어 서로 배운 것을 강론하면서 도를 밝히고 이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타인을 완성시킨 이유이다. 그렇다면 후세에 書院이 등장한 것은 형편상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높이 평가할 만한 사건이었다."[42]

여기에서 퇴계는 국가가 교육의 방향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와 배우는 사람들이 배움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三代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시대에는 人倫으로 대변되는 도덕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시행되었지만, 후세로 내려오면서 國學이나 鄕校 할 것 없이 利祿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느라 科擧와 文詞를 익히는 데만 치중하고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을 망각하거나 배반했다. 그래서 학문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뜻있는 선비들이 국학이나 향

41) 『退溪全書』 卷9, 「沈方伯通源○己酉」.
42) 『退溪全書』 卷42, 「伊山書院記」.

교가 아닌 서원이라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퇴계의 이러한 진단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륜'이다. 퇴계가 말하는 '인륜'이란 단순히 부자와 군신, 장유 등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퇴계가 말하는 '인륜'은 우주자연으로 소급해서 찾아낸 인간 존재에 관한 이해와 그로부터 연역된 수많은 행위규범의 당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요로부터 시작된 학문의 목적과 방법 일체와 연관된 광범위한 것이다. 「開寧鄕校聖殿重修記」에서 퇴계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三代의 배움은 모두 人倫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인륜을 밝힌다는 것은 곧 正道를 밝히는 것이다. 덕성을 기르고 근본을 세우는 것은 『小學』에 달려 있고, 규모를 넓히고 줄기를 뻗어나가게 하는 것은 『大學』에 달려 있다. 三書(『論語』·『孟子』·『中庸』)와 五經으로 이것을 충실하게 채워나가고, 다양한 역사서와 여러 사상들을 통해 이를 폭넓게 넓혀나간다. 正學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正道가 여기에 있다. 스승이 무엇을 가르칠지, 선비가 무엇을 배울지, 鄕人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각각 그 바름을 얻게 된다."[43]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륜'이라는 개념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 고려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퇴계가 왜 교육과 학문의 목표로서 이것을 중시하였는지, 나아가 이 '인륜'을 밝히는 것에서 서원이 등장하게 된 이유까지 찾고자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퇴계는 「易東書院記」에서 서원이 세워진 본질적 의미[本意]와 서원에서 수행해야 할 실질적 역할[實事]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여깅서 그는 학문하는 주체로서 인간 존재와, 그가 배워야 하는 학문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서원이라는 학습 공동체의 유익한 점 등에 관해 훨씬 풍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왔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어서, 지혜롭다고 더 풍부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고 더 모자란 것도 아니다. 성현의 말씀은 사

43) 『退溪全書』 卷42, 「開寧鄕校聖殿重修記」.

람들을 깨우쳐주지만 책속에 펼쳐져 있는 것이어서, 그 옛날 처음 나왔으나 지금도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다.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구하기만 하면 알지 못할 이치가 없으며,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행하기만 하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도이다. 엉성하게 시작하여 정밀한 경지에 이르고, 얕은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라. 배운 것을 익히는 기쁨과 벗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스승의 가르침은 때마침 내리는 비와 같고 제자들은 쑥처럼 성장한다. 노니는 모습은 의젓하고, 이루어가는 모습은 성실하다. 평소에는 仁을 품고 義를 안더니, 벼슬에 나아가서는 임금을 높이고 백성들을 보호한다. (서원을 세운) 본질적 의미[本意]와 (서원에서 해야 할) 실질적 역할[實事]이란 이런 뒤에야 말할 수 있을 것이다."[44]

퇴계는 「迎鳳書院記」에서도 서원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앞서 살펴본 것들과 유사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서원의 등장을 家의 塾, 黨의 庠, 州의 序와 같은 사회 단위별 교육 체제의 붕괴에 대한 대안적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45] 그러면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書院이 家塾이나 黨庠과 그 제도는 비록 같지 않지만 추구하는 의의는 같으며, 風化에 관계됨이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도를 아는 선비와 치세를 원하는 군주가 서원의 진흥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46]

규모와 성격 등의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書院이 추구하는 바는 家塾이나 黨庠이 추구하는 바와 같다고 퇴계는 말하고 있다. 家塾, 黨庠, 州序, 國學 등은 『禮記』「學記」에 나오는 고대의 교육 기구들로, 이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化民易俗'이다.[47] 그렇다면 서원이 추구하는 바 역시 '化民易俗'이라는 점을 퇴계는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변역시킨다'는 뜻의 '화민역속'은 유학이 상정한 동심원형 파장의 구도에 대입하면 家를 너머 鄕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고대에는

44) 『退溪全書』 卷42, 「易東書院記」.
45) 『退溪全書』 卷42, 「迎鳳書院記」.
46) 『退溪全書』 卷42, 「迎鳳書院記」.
47) 『禮記』「學記」

학습 연령기에 따라 家와 黨, 州에 설치된 교육 기구들에 차례로 진학하게 함으로써 한 개인을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시켜나가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결국 '화민역속'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데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었던 것이다. 국학과 향교의 교육이 이미 이러한 방향에서 이탈한 현실에서 퇴계가 서원을 통해 무엇을 희망했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글에 나타난 퇴계의 다음 언술은 이를 보다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을 테지만 낮은 수준의 사람들도 吉人과 修士가 되는 데 문제가 없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을 때는 집안을 반듯하게 하고 풍속의 표상이 되며, 관직에 나아가서는 나라를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하리니, 이리하여 서원을 세우고 선비를 양성하는 본의에 저버림이 없을 것이다."[48]

굳이 서원을 세운 본의가 단순히 고을 한복판에 있는 향교에서 산수 좋고 한적한 서원으로 교육공간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비를 양성한다는 것 또한 과거공부를 하던 것으로부터 성리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변경되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聖人이라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구나 吉人과 修士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퇴계가 꿈꾸었던 서원 교육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적 성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엔 집안을 반듯하게 하고 풍속의 표상이 될 주체를, 관직에 나아가서는 나라를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할 주인공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서원을 세우고 선비를 양성하는 본의가 여기에 있다.

5. 인성교육의 현재적 시사

48) 『退溪全書』 卷42, 「迎鳳書院記」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었다. 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놓고 벌였던 종교적 논쟁거리도 있었고, 지구는 돈다 또는 돌지 않는다와 같은 자연과학적 논쟁거리도 있었다. 그에 비견될 만한 인간 본성에 관한 논쟁거리도 있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혹은 악한지에 관한 논쟁거리가 그것이다. 孟子를 대표로 하는 性善說과 荀子를 대표로 하는 性惡說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장이 半分될 만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논쟁거리다. 물론 인간의 본성에 관한 주장 중에는, 본래부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들까지 더해지면 인간의 본성이 과연 어떤지를 해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해명하기도 어렵고 합의에 이르기도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애당초 인간의 본성이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서,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각자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경향을 통해 주관적으로 취집한 경험의 결과치를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고, 악한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의 경험이 균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애당초 인간 본성에 관한 합의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와 순자는 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이자 사상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들은 실험의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그 결과를 성선설 또는 성악설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戰國時代라는 참혹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국시대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맹자와 순자의 접근법은 달랐다. 맹자는 우리(특히 위정자들)가 선한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순자는 우리는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현재

의 문제상황을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본래의 악한 본성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각각의 이름에 제시된 '善'과 '惡'의 상반된 이미지로 인해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주장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성선설과 성악설은 궁극적 지향처가 같다. 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성선설이 지향하는 것도 선이고, 악을 교정해야 한다는 성악설이 지향하는 것도 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생각해 보면,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나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모두 공자의 사상을 잇는 유학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상적 지향이 다를 수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들의 인성론에서 읽어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 즉, '人性'에 주목했다는 사실이다. '인성'은 특정 개인의 성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성질이나 성격을 지칭한다. 따라서 '인성'에 관심을 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하여 보편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성'이 시대의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우리 모두의 책임을 환기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의 차이는 없다.

결국 인성론은 관련 논의를 하는 시간과 공간이 맞닥뜨린 문제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문제를 양산한 원인을 그 주체인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해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 역시 그 주체인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도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인성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학의 인성론은 더욱 그렇다. 유학의 인성론은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그 내용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향을 지향한다는 특징이 강하다. 개별적 인간이 아닌 보편적 인간에 관심을 둔 것부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맹자의 성선설은 말할 것도 없고, 순자의 성악설마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리학은 맹자의 성선설이 지향하는 방향을 채택하면서 유학의 인성론이 갖는 특성을 또렷이 하였다. 理·氣로부터 心·性·情의 구조와 의미를 해명하는 복잡

한 이론체계를 구사하고 있지만, 성리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인간 존재[人]를 다른 존재들[物]과 함께 乾坤 또는 天地로 표현되는 우주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이로부터 인간 개인이나 사회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당위를 연역해내는 것이다. 즉, 맹자의 성선설을 인성론의 기본 방향으로 채택하면서도 단순히 이를 답습하지 않고 좀 더 세련되고 정치한 이론체계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리학의 인성론이다.

'서원의 인성 교육'이라 하여 특별할 것은 없다. 이상과 같은 유학(성리학)의 인성에 관한 내용을 서원에서 교육한 것을 가리킬 뿐이다. 물론 '서원'이라는 특별한 환경적 공간에서 그와 같은 인성을 교육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애당초 서원이 향교와 같은 교육기구와 구별되는 교육 환경을 추구했던 문제의식을 환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앞서 퇴계의 언급에서도 확인했던 바와 같이 서원이 서원인 이유를 단순히 교육공간의 교체에서만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서원을 설립한 본질적 의미[本意]와 서원이 수행해야 할 실질적 역할[實事] 측면에서 교육했던 '인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원의 인성교육이 한결같이 추구했던 것은 우리들 개개인이 '성인'이 되는 것이다. 앞서 원시유학(맹자)과 성리학(주자)의 '성인'에 대한 이해를 검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퇴계가 지향한 서원교육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인이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비스러운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맹자 이후 유학이 추구했던 '성인 됨'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同類'라는 전제이고, 둘째는 '인간 존재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 이상을 더 성취함으로써가 아니라, 부여받은 바를 상실하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성인이 된다'는 논리이다. 생김새만큼이나 상이한 인간들을 '人類'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인성'에 기인한다는 전제, 그런데 그 '인성'은 지극히 완벽한[萬善具足] 것이어서 그것에 준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이 유학의 인성교육이고, 서원의 인성교육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서원의 인성교육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 일회성, 전시성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 서원이라는 시설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짤막한 경전 구절을 외우도록 하는 등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서원의 인성교육이라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 더 나아가 현대문명이 당면한 시대적 문제 상황을 유학의 논리로 해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학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서원이 문화재를 넘어 살아있는 문화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원의 인성교육 역시 이와 같은 기조 위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시대적 문제를 양산한 공동의 책임을 인성에 착안하여 성찰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인성으로부터 도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본질적 고민을 결여한 채 전통의 외양만을 모방하는 전시성 행사나 경전의 한두 구절을 외워보는 일회성 이벤트만으로는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시유학에서부터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동류로 간주했던 유학의 인성론, 그것으로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취에 먼저 도달한 개인이 타인과 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유학의 인성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우주자연의 생태계 속에서 성찰했던 유학의 인성론은 현재의 사회적·시대적 문제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상적으로는 '성인'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길인'과 '수사'를 양성할 가능성에 주목했던 서원의 인성교육, 개인의 성공과 발전만이 아니라 '화민역속'으로 표현된 좋은 공동체를 위한 기여에 초점을 맞추었던 서원의 인성교육은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가치가 전도된 오늘날 학교 교육의 오류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할 참신한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다.

6. 결론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 찌꺼기조차 그 청명

함에 화하여 가을 하늘이 되는 듯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 파란 하늘이 빛의 굴절에 의한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느꼈던 얕은 수준의 '天人合一'의 감정이 거짓이라 할 수 있을까?

公孫衍과 張儀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이 한번 노하면 세상의 모든 제후가 두려움에 떨었고, 그들이 조용히 지내면 온 천하의 전쟁도 멈추었다. 그래서 景春은 그들을 大丈夫라고 평했다. 하지만 孟子는 그들이 가는 길은 妾婦의 길이라고 했다. 첩부는 순종을 제1의 미덕으로 삼는다. 순종, 그것은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고 편승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옳은지 그른지 묻지 않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으로 얻은 힘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저 첩부의 길일 뿐이다. 진정한 대장부는 자신이 추구하는 뚜렷한 신념이 있다. 그 신념의 크기는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할 때만 세상과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아닌 신념을 선택한다. 그가 大丈夫다.

과학이 항상 참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과학에서 파생된 기술문명이 세상의 유일한 방향이 기만 한 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맹목적 순종은 있을 수 없다. 인류는 축의 시대를 거치면서 神話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유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가 다시 神話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AI)의 출현 등을 보면서 그것을 가늠할 신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神話 속에 매몰될 것이다.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가늠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세상의 흐름을 비판할 수 있는 大丈夫의 浩然之氣. 서원의 인성교육은 그런 큰 사람을 길러내는 길 위에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서원의 인성교육’ 토론문

김영나
(경북대학교)

이 논문은 서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서원에서 진행하는 인성교육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학이 지향하는 성인(聖人) 지향형 인성교육에 주목하여, 시기에 따라 ‘聖(성)’, ‘성인(聖人)’의 의미의 변화를 공자 이전, 맹자, 주자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퇴계가 지향한 서원교육과 인성교육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2. 맹자의 성선설과 성인’, ‘3. 주자의 성리설과 성인’에서는 ‘성’과 ‘성학’의 의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자 이전의 성(聖)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체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신의 대변자로서 활동하였고, 맹자 이후 성인(聖人)은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인격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배움’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대중들도 ‘배움’으로 성인이 될 수 있지만 ‘배움’을 통해 성인이 되었다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고,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실천을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권위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배움’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배움’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성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4. 퇴계가 지향한 서원 교육’에서 퇴계는 붕괴된 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기

반이 서원에 있다고 하였고, 학문의 본질에 충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통해 성인이라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길인(吉人)과 수사(修士)가 될 수 있는 교육이 퇴계가 원하던 서원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조선 시대에 퇴계의 교육 사상을 중심으로 실제로 서원에서 교육을 한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족에게 과거시험이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퇴계 이후에도 과연 퇴계가 꿈꾸던 이상적인 서원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5. 인성교육의 현재적 시사'에서, 서원의 인성 교육은 유학(성리학)의 인성에 관한 내용을 서원에서 교육한 것을 가리킬 뿐이고, 서원이라는 특별한 환경적 공간에서 인성을 교육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서원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일회성,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사회적 ·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인성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서원의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서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